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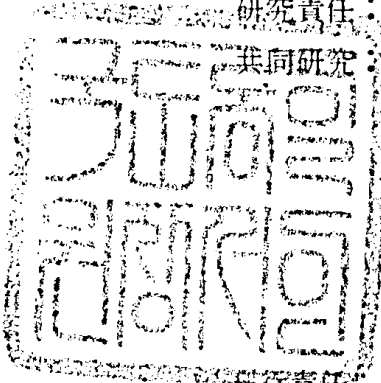
3740
09/1/1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処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統一政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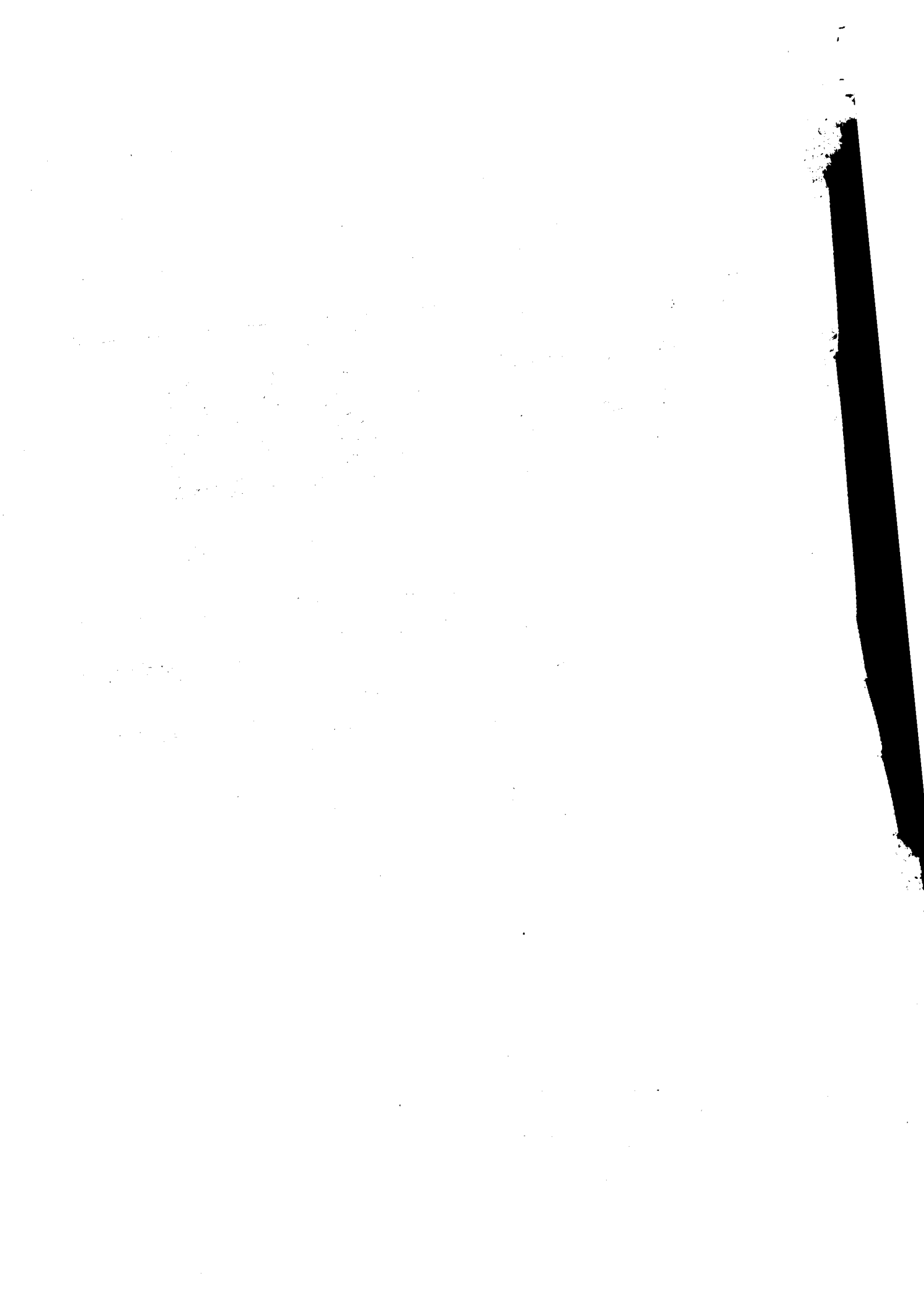
北韓의 新聞·放送

Mass Communication in North Korea

	研究責任: 朴 權 相 (東亞日報 安保統一問題調査研究所 所長)
	共同研究: 崔 禎 鎬 (延世大 教授)
	李 相 斗 (中央日報 東西問題研究所 研究委員)
	韓 炳 九 (慶熙大 教授)
	鄭 亨 壽 (東亞日報 研究開發委員)
金 昌 順 (北韓問題研究所 所長)	
刊行責任: 鄭 富 洛 (政策企劃室 補佐官)	

Handwritten notes and signatures in the bottom right corner.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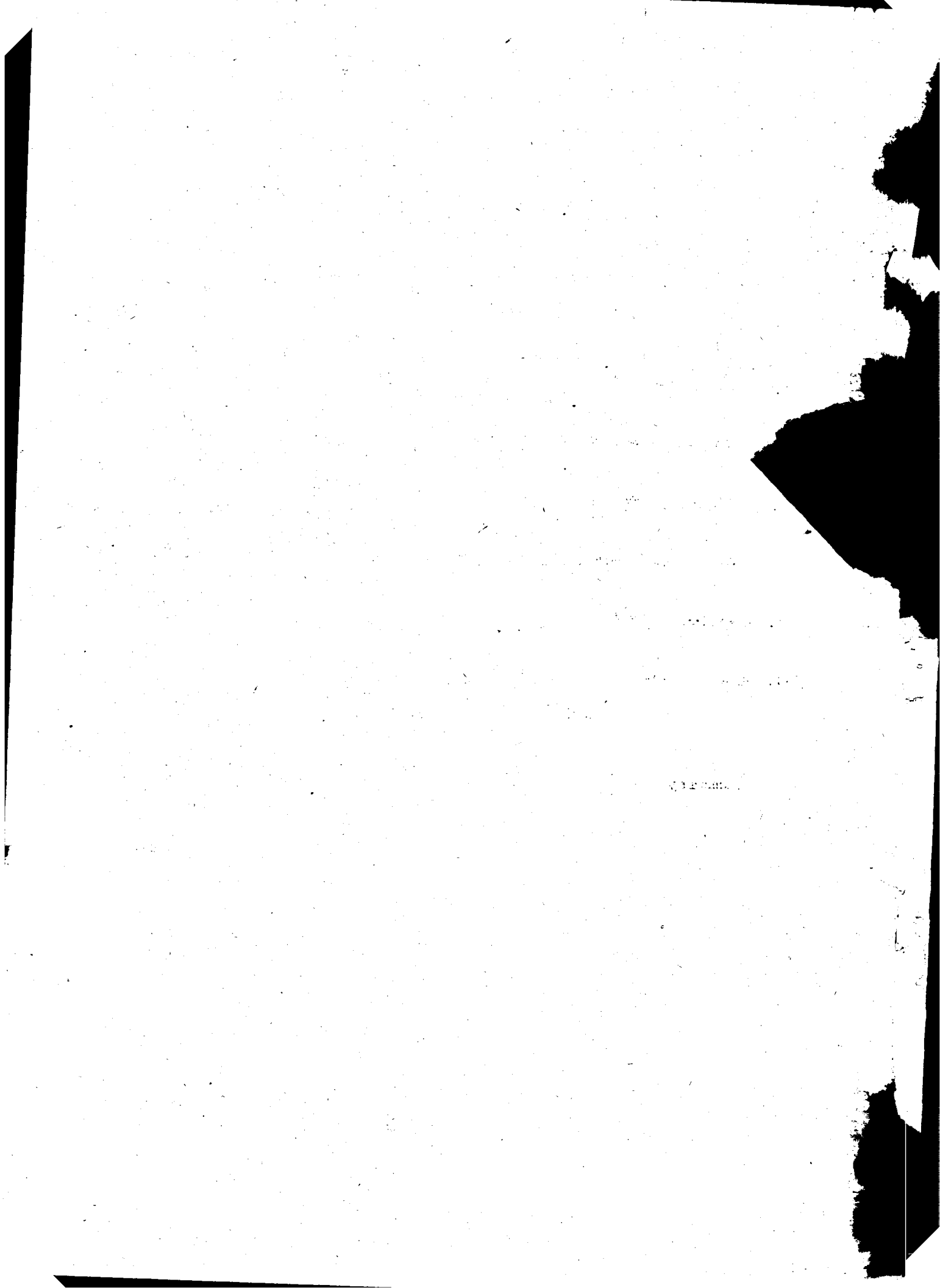


總 目 次

○ 머 리 말

✓ I.北韓의 言論政策.....	(崔 頌 鎬)	7
II.北韓新聞의 編輯体裁.....	(李 相 斗)	41
III.北韓新聞의 報道性向.....	(韓 炳 九)	87
IV.北韓의 放送 實態.....	(鄭 亨 壽)	129
V.北韓言論의 實相.....	(金 昌 順)	177
VI.北韓의 言論		
- 오늘과 내일 -	(朴 權 相)	203

○ Summary



더 릿 말

北韓은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1千7百萬 同胞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歷史, 같은 傳統, 같은 文化 背景속에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統一되어야 할 運命을 지니고 있다는 데 南北 5千萬同胞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苛酷하다. 休戰 26年間 155다일의 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1百萬이 넘는 重武裝된 軍隊는 非平和, 非戰爭의 緊張狀態로 對峙하고 있다. 이런 非生産的 對峙는 가까운 時日안에 緩和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非平和, 非戰爭狀態의 現實속에서 持續되고 있는 것은 南北韓體制間에 벌어지고 있는 生存과 發展의 競爭이며, 休戰線을 꿰뚫고 오가는 宣傳心理戰이다.

특히 北韓共產集團은 新聞, 라디오, TV 등 매스미디어를 完全無欠하게 掌握하고, 銳利하고 戰鬪的인 思想的 武器로 삼고, 이른바 金日成의 「唯一思想」과 「主体思想」의 宣傳, 金日成 神格化 및 金日成 主導下의 「南朝鮮革命路線」등을 強力히 組織, 宣傳, 煽動하고 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우리 韓國에 대해 구사하고 있는 이러한 戰鬪的인 思想的武器에 대해 아직까지 本格的인 研究分析이 試圖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기이한 우리 現實이었다.

이어 우리 6名의 學者와 言論人들은 北韓의 言論을 몇가지 題目으

로 分担하여, 깊이있고 幅넓은 分析研究를 試圖하게 된것을 至極히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延世大學校의 崔頌錫 教授는 다르크스·레닌主義의 新聞理論에서 出發하여 中央集權의인 北韓의 言論統制를 分析하고, 「獨裁主義的, 北韓主義的 總統國家」에 君臨하고 있는 金日成專制君主에서의 言論의 機能을 所상히 研究分析하였다.

中央日報社의 東西問題研究所 研究委員 李相斗氏는 「北韓新聞의 編輯體裁」에 關係 分析한바, 筆者는 北韓의 代表的 新聞인, “로동신문”을 對象으로 하여 具體的인 編輯內容을 所상하고 興味있게 分析하였으며 또 自由世界의 新聞과도 比較하였다.

그리고 金日成 偶像化政策 實踐의 具體的 事例를 指摘하였는바, 예컨대 1972年 9月 15日字 “로동신문” 社說에는 “경애하는 수령...” 등의 수식 접두사가 붙은 金日成 이름이 24回나 言及된 황당무계한 編輯內容이었음을 指摘하였다.

滿洲大學校의 韓炳九 教授는 지난 9年間의 “로동신문”의 報道 傾向을 分析하였으며, 그 分析 結果는 金日成의 偶像化를 爲해, 北韓의 모든 政策이 金日成 主導下에 對外政策과 經濟建設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強調한 內容이었음을 指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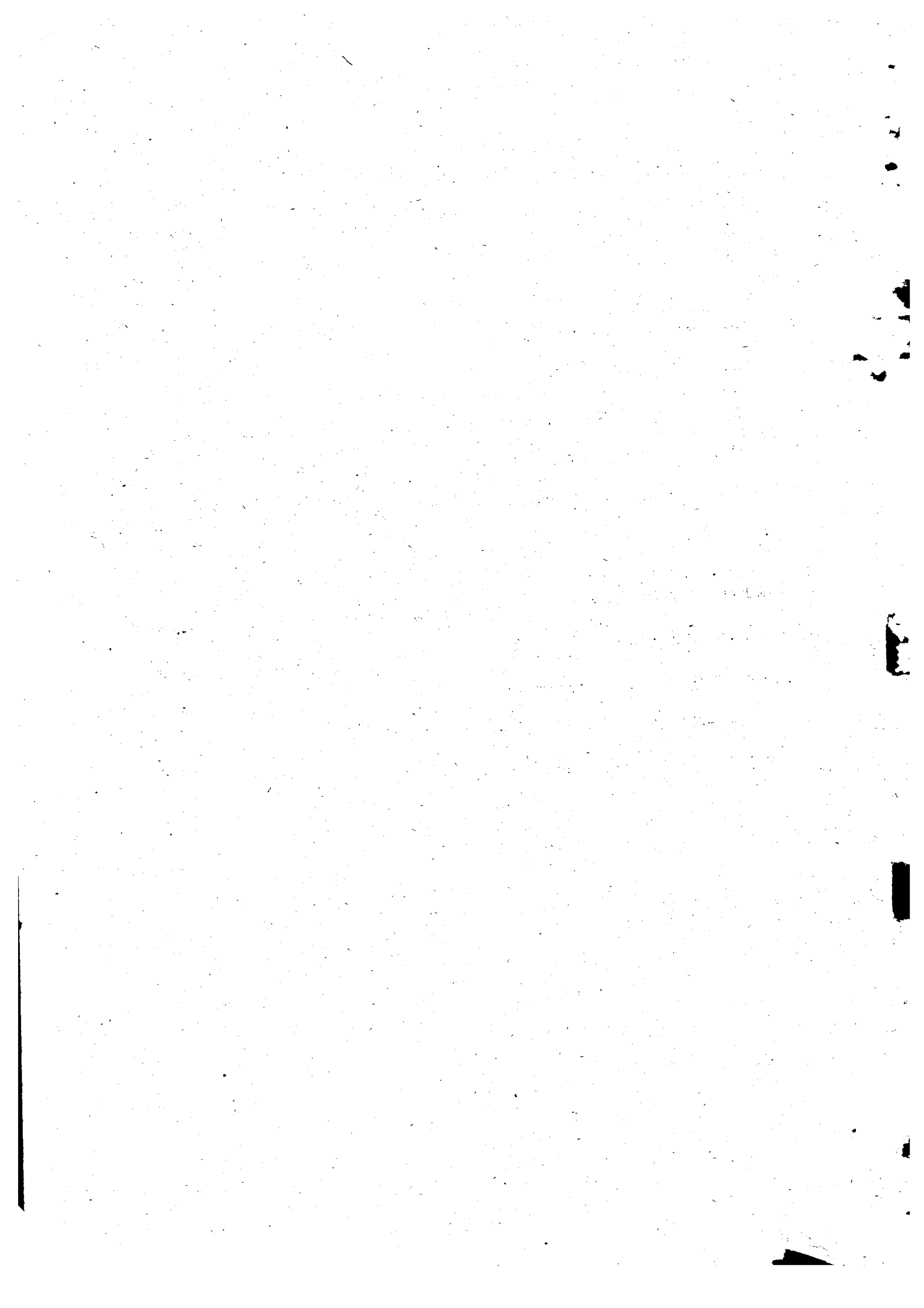
東亞日報 研究開發委員 鄭亨壽氏는 北韓放送의 機能과 役割 그리고 現況을 綜合研究하였다.

北韓問題研究所 金昌順 所長은 “北韓 言論의 實相”에서 주로 金日成政權初期에 北韓에서 일어났던 言論界의 初期動向들을 分析하

였는데, 그 特徵으로는, 初期의 北韓 言論은 蘇聯 占領軍의 監督下에서 蘇聯 言論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金日成 偶像化에는 積極的이 아니었다는 歷史的 事實을 指摘하고, 오늘의 北韓은 金日成政權 初期에 없었던 事實까지 날조하여 처음부터 金日成이 神格化됐던 양 떤들고 있음을 批判하였다.

끝으로 "北韓의 言論-오늘과 내일"을 執筆한 東亞日報社의 朴 權相氏는 毛沢東 死後에 일어난 中共 社會와 中共 言論의 엄청난 變化傾向을 指摘하였고, 이러한 變化는 金日成이 죽은 다음에 北韓 社會에도 밀어닥칠 수 있는 모델이라고 希望的인 關心을 表示하였다.

以上の 6 篇의 論文들은 北韓 言論의 理論과 實際 그리고 未來 方向을 分析·研究한 것이다. 그러나 客觀的 資料 接近의 困難 등으로 完璧하게 研究·整理되었다고 主張할 수는 勿論 없겠으며, 다만 앞으로 繼續될 보다 훌륭한 研究에 대한 基礎的인 努力에 不過하다는 것을 強調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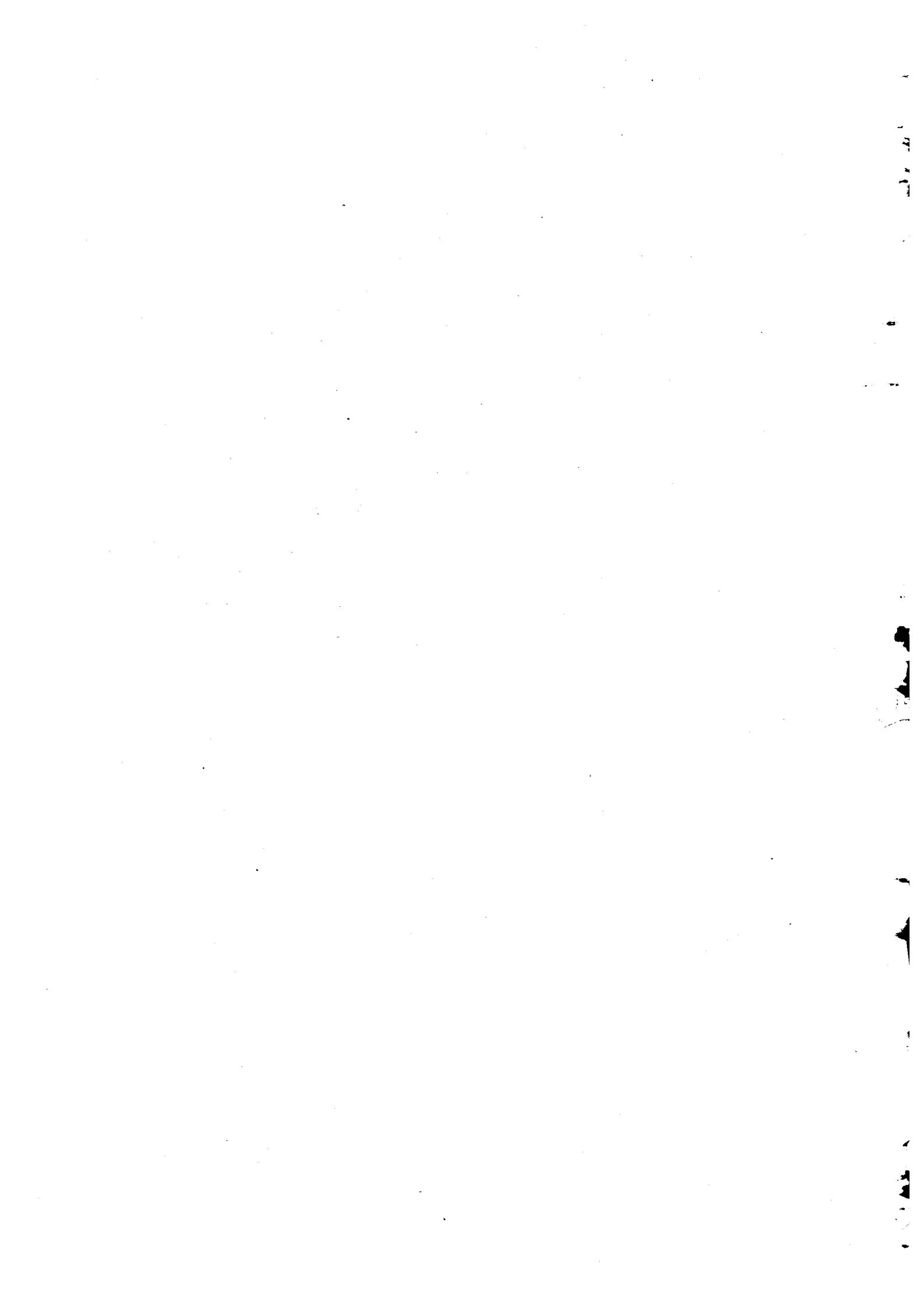


I. 北韓의 言論政策

崔 禎 鎬

(略 歷)

-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学 哲学科卒業
- 하이델베르크大学 修了
- 西베를린自由大学 Ph. D
- (現) 延世대학교 教授.



I

言論體系를 比較研究하려는 學徒들에게는 言論體系와 社會體系, 그리고 言論體系와 한 社會의 基本的인 價值體系 사이에는 의미 있는 相互關連性이 있다는 假定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歷史적으로 存在했고 現在도 多樣的인 存在形態를 보이고 있는 世界의 많은 言論體系를 몇가지 큰 範疇로 類型化해 보려는 試圖도 그 근거에는 이러한 假定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言論政策을 類型化하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言論政策의 類型에 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의 範疇化가 가능하겠지만 코쉬크(Kurt Koszyk)와 프루이스(Karl H. Pruys)는 言論政策(Kommunikationspolitik)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範疇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絶對主義的인 言論政策, 둘째, 立憲主義的인 言論政策, 셋째, 民主主義的인 言論政策, 넷째, 共產主義的인 言論政策, 다섯째, 파시스트的인 言論政策이 그것이다. 2)

이러한 여러가지 유형의 言論政策은 그것이 드러나는 형식적인 現象形態에서 把握한다면 더욱 단순하게 두가지 유형으로서 大別될 수 있다. 그 하나가 中央集權的이고 閉鎖的인 單元型 體系(Monotypes system)이며, 다른 하나는 相互競合的이고 開放的인 多元型體系(Polytypes system)이다. 3)

북한의 언론정책이 이러한 分類表에서 공산주의적 언론정책의

법주에 든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言論政策은 單元的體系를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구현하고 있는 言論政策의 典型이라는 것도 周知된 바와 같다.

어떤 의미에선 이와 같은 單元型體系의 言論政策이란 특히 「20世紀的인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의 言論政策과 絶對主義의 言論政策에 관해서는 그의 기본철학이 (權威主義)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兩者의 類似性이 흔히 지적되곤 한다. 그러나 16세기 내지 17세기 이래 유럽의 역사무대를 지배하고 있던 絶對主義體制 아래서는 언론의 媒介는 아직도 民間에 의해서 사사로히 所有, 運營되고 있었으며 정부의 言論政策은 주로 이들 言論媒介가 絶對王權이나 그의 官憲 및 그들의 政策을 비방 비판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否定的, 消極的인 統制에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言論政策은 19世紀의 비스마르크·프로이센의 立憲君主體制에 있어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다. 언론매체와 언론정책은 19世紀 말까지도 多元型體系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세기의 중엽에 마르크스가 오늘날 공산주의 저널리즘의 출발점으로 구가되고 있는 「리-인新聞」(Die Rheinische Zeitung)을 創刊, 復刊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당시의 언론정책이 多元主義로서 성격 지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權威主義 哲學의 20世紀的인 發顯形態인 소비에트 공산주의 체제와 콰쇼·나치스 체제에서는 양상이 一變하고 말았다.

言論媒体는 가능한 한 公權力에 의해서 소유·경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言論媒体에 대한 政策도 정부에 대한 비판, 비방, 왜방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公權力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言論媒体가 그 구실을 「다하도록」 肯定的 積極的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의 배경에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革命」을 불러일으킨 매스·미디어의 위력에 대한 인식이 그 動因이 되고 있었다. 특히 신문의 위력에 대한 인식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레닌에 의해서 20世紀初에 이미 이론적으로 表明된바 있다. 1901년에서 1902년 사이에 레닌이 해외망명중에 집필한 글 「무엇을 할 것인가」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맑스·레닌주의의 신문이론의 核心을 이루는 기본 문헌이 되고 있다. 레닌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의 革命意識은 그들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오는 自發性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 前衛部隊의 의식적·이론적인 지도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식적인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노동자 계급과 근로 인민의 조직화된 前衛部隊인 「새로운 型の 政黨」 곧 볼셰비키 政黨이며, 그의 끊임없는 대중교육과 대중선동, 선전과 선동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새로운 型的 新聞」 곧 黨의 기관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신문 이론에 따르면 인민대중을 끊임 없이 교화하고, 선동하고, 活刀化하고, 지도하고, 統御하는 수단인

신문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결코 개인 소유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문을 포함한 모든 매스·미디어는 党和 大衆組織, 國家的, 社會的 諸機構의 집단적인 기관지 (Organ)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바로 공산주의 신문이 綱領처럼 자주 인용되는 레닌의 말과 같이 신문은 「집단적인 선전자이며 집단적인 선동자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조직자」⁵⁾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공산주의 신문의 기능 규정으로 또하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비판과 자기비판」의 기능이다.

한편 이처럼 기능이 규정된 공산주의 신문은 資本主義 社會의 자유주의 신문과는 필연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 한다. 공산주의 신문은 戰鬪的이어야 하며, 이른바 그들의 「眞理」와 그들의 기본 「綱領」에 충실해야 하며, 党的 이데올로기의 定向을 쫓아야 하며 노동자 계급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같은 공산주의 신문의 특성들은 대충 다음의 세가지 기본적 성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성격이며, 둘째, 党的 성격 곧 党性이며 셋째, 대중적 성격이다. 공산주의 신문의 또 다른 특성으로 흔히 지적되는 이른바 「계급적」 성격은 앞에 든 이데올로기의 성격이나 党的 성격, 그리고 대중적 성격에 다같이 깔려 있는 「共通分母」이기 때문에 따로 열거하지 않는다. 결국 마르크스 레닌주의 신문이론에 의하면 모든 신문은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所産으로 특정한 黨派的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6)

신문에 관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러한 이론은 資本制的 자유주의
신문의 이념과 對角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
문의 기본이념이 되고 있는 독립성, 객관성, 언론자유 개념 등에
대한 全面的인 挑戰이며, 또한 그의 全面的인 否定이라 할 것이다.

그 경우 그들의 論據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른바
「진정한 客觀性」(Objektivität)과 부르조아의 형식적 「客觀
主義」(Objektivismus)와의 구별이요, 또는 이른바 그들의 「진
정한 물질적 언론의 자유」와 「부르조아의 형식적 언론의 자유」
를 구별하는 概念公式이라 하겠다.

II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문의 기능 규정에 관한 이와 같은 이론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저널리즘 활동의 實際와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특히 저널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核心的인 개념이 되는 「뉴스」 개념의 새로운 해석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신문의 계급성, 당파성의 강조는 신문의 總體的 政治化 (Politisierung)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산주의 신문에 있어서는 이른바 「純粹한 저널리스트」 혹은 「오직 저널리스트」 (Nur-Journalist)의 존재는 否認되고 있다. 그 결과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신문사의 편집국이란 그의 上位에 있는 黨의 지시와 지령을 따르는 한낱 집행기관이며 거기서 일하는 저널리스트는 사실상 黨과 국가의 要員 (Functionary)들이다.

「오직 저널리스트」의 否認과 함께 공산주의 신문에서는 이른바 「오직 뉴스」, 「뉴스 그 자체」의 개념도 부정된다. 뉴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전, 선동이라는 上位의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한 뉴스 개념에 관한 기능규정이 전 타스 通信社 사장 팔구노브 (N.G. Palgunow)의 「뉴스는 사실의 도움에 의한 선동이다」라는 말에 요약되고 있다.⁷⁾

이를 위해서는 뉴스의 斷片性이 止揚되어야 하며 뉴스의 目的指向性, 目的關聯性, 目的奉仕性이 강조된다. 이러한 뉴스 개념이

資本制的 서방 자유주의 세계의 뉴스 개념과 대립되는 물론이다.

이에 대하여 잉켈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뉴스란 「事件」(Events, incidents)이란 말과 대체로 같은 뜻이며 그것은 時事的인 일이나 사람과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 소련에 있어서는 사건이 아니라 사회과정(Social process)이 뉴스로서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련에 있어서의 주요한 뉴스, 어떤 의미에선 사실상 유일한 뉴스는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과정이다.⁸⁾

이러한 공산주의 신문의 뉴스 개념이 사실보도의 객관성의 이념과 兩立할 수 없음을 두 말할 필요도 없다. 뿐더러 이와 같은 공산주의 신문의 뉴스 개념의 共通分母가 되고 있는 時事性 또는 速報性의 특성도 脫落해 버린다. 사건 자체만으로서의 뉴스가 될 수 없는 공산주의 신문에서는 스트레이트 뉴스란 無價値한 것이다.

모든 뉴스는 일정한 黨 路線과의 意味聯關속에 그의 이데올로기의, 党的 성격이 검토되는 여과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신문의 모든 보도에는 肯定的이거나 否定的이거나 간에 혹은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간에 이미 뉴스 자체에 論評的인 添加物이 따라 붙으며 그림으로 해서 「사실의 도움에 의한 선동」구실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 바로 뉴스의 速報性 또는 時事性이다.

공산주의 신문의 실제 제작에 있어 소극적인 速報主義에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対応策이 이른 바, 편집의 「計劃

王表」(Planungssystem)와 「重点主義」(Schwerpunkttechnik)이다.

소련을 위해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를 모델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共産黨國家의 신문사 편집국은 일종의 장기계획체제에 의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편집국은 언제나 1년의 4分期마다 3개월 앞서서 신문제작의 중점을 「展望計劃書」속에 확정해 둔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다시 편집국의 각部署는 4分期間計劃, 月間計劃, 週間計劃을 수립하게 한다. 각 신문사 편집국의 4分期計劃은 그때 그때 결정된 重點의 소재가 그 서열에 따라 수립, 조정된다. 9)

지금까지 소개한 공산주의 신문의 기능 규정, 성격의 특색 및 뉴스 정책 등은 비단 신문 매체만이 아니라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다른 매체에게도 共通的으로 적용되고 있는 原理라 볼 수 있다.

III

北韓의 언론정책도 크게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언론 이론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적 閉鎖的인 單元型 범주에 포함된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을 것이다.

北韓은 그들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고 (제1조) 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은 사회체제는 그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이념이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범주에서조차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가릴 수는 없다. 70년대초에 북한을 방문한 急進的인 사회주의자들까지 북한을 가리켜 사회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權威主義的, 國碎主義的, 總統國家」라고 하고 있고, 金日成을 공산주의자라기 보다는 「匪細的 專制君主」로 보고 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실례라고 하겠다.¹⁰⁾

따라서 북한의 언론정책을 살펴 보는 本稿에서는 위에 略述한 바와 같은 언론정책에 관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이론과 함께 다음에는 북한 특유한 언론정책이 무엇인가를 아울러 헤아려 보아야 될 것이다.

북한의 언론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용」 (북괴 「헌법」 제9조)된다는 그들의 모든 국가기관

과 같이 철저한 중앙집권적인 單元型 체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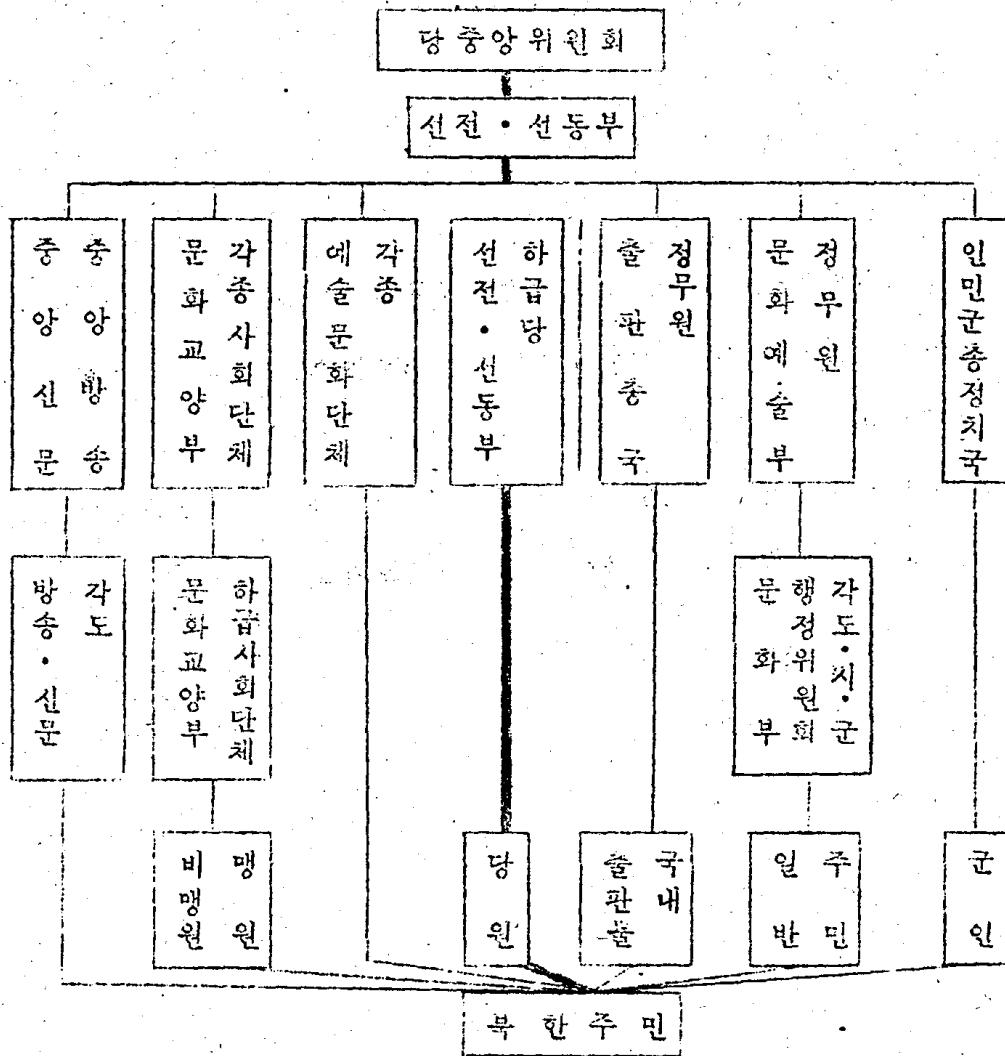
언론자유에 대한 북한의 「헌법」 제 4 장 제 53 조에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모든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獨裁權力에 의해서 公的으로 인정된 인간, 즉 市民權이 인정되는 「公民」만이 향유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음이 우선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회과학 출판사」에서 간행한 『정치학 사전』(1973년판)을 보면 이러한 언론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制約性이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본다. 즉 언론의 자유는 金日成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擁護 關철하고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가일층 강화하여 인민들의 정치사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님의 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복무한다』고 못박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수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절대로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북한의 언론은 그 이데올로기의, 党的, 階級的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党和 행정부의 기관지가 「人民日報」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중공과는 달리 소련을 모델로 해서 출발한 북한에는 당의 기관지 「로동신문」과 政務院의 기관지 「민주조선」이 따로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二元化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모든 공산국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어서도 党은 정치 권력의 最高体系이며 「政務院」의 「文化芸術部」나 「出版總局」도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党 中央委員會 宣傳煽動部의 一元的인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党 중앙위원이며 「로동신문」의 責任主筆인 동시에 思想問題를 다루는 선전, 선동 전

<圖表: 북한의 선전, 선동 기구>



문가로서 「政務院」의 부총리로도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북한 언론
통제의 單元型體系를 설명해 주고 있다.

공산당에 있어서 선전, 선동 기능이란 조직기능과 함께 黨 사업
의 核心을 이룬다. 이것은 1969년 10월의 金日成 연설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고 있다.

즉 『... 조직 지도부와 선전, 선동부가 사람들을 혁명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직지도부와 선전, 선동부
의 상호 관련성은 의사와 약제사의 관계와 같다. 가령 조직지도
부에서 黨 생활의 진단이 떨어지면 선전·선동부는 처방을 해야
한다』¹¹⁾는 것이다.

黨의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는 행정부, 軍, 下級黨과 각종 예술,
문화, 사회단체 및 중앙의 신문, 방송등 언론매체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求心的인 결정기구로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單元型 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언론정책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다음에서 살펴 보기로 한다.

IV

무릇 언론정책 (Kommunikationspolitik)이라 하면 그것은 단순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단이 아니라 퍼스널·커뮤니케이션의 영역도 아울러 포함하고 있음¹²⁾은 특히 20세기의 全体主義國家들에서 그 두드러진 실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언론정책에 대한 究明도 비단 신문, 방송, 잡지, 영화등 대중매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밝혀져야만 비로소 충분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언론정책을 편의상 對外 언론정책과 對內 언론정책의 둘로 나누어서 보았다.

우선 북한의 對外言論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정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窓口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國營通信인 「朝鮮中央通信社」인 것 같다.

「政務院」직속인 이 통신사는 共產圈諸國에 海外支社를 두고, 특파원을 내보내고 있으며, 소련의 타스 通信, 中共의 新華社通信과 送受信하고 있다. 日刊 「朝鮮中央通信, 写真通信」을 발행하면서

「로동신문」에 대부분의 기사를 대주고 있는 「朝鮮中央通信社」는 사실상 북한에 들어오는 외국 뉴스의 守門將 (gate keeper) 구실을 하고 있다. 그와 함께 日刊으로 영어, 러시아語, 프랑스語, 스페인語의 통신을 발행하고 이 4개국말로 방송, 통신을 하고 있는

「朝鮮中央通信社」는 해외에 대한 북한의 소리 구실도 맡고 있다.

그 밖에 북한에서 對外 언론정책 수행에 관여하고 있는 기구로는 「로동신문」社, 「민주신문」社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國際部, 평양의 「朝鮮中央放送」의 일본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방송, 그리고 「정무원」 직속의 出版總局에서 통제하고 있는 外國文 번역출판을 전담하는 「外國文出版社」 등이 눈에 띈다.

북한의 사회체계가 얼마나 閉鎖的이나 하는 모든 특히 對外 언론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들어날 것으로 믿어진다. 구체적인 자료는 손에 없으나 우선 外國의 정기간행물 및 일반출판물의 수입 및 보급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일부 고위 黨 간부와 실무자를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그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을 것으로 推測된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印刷媒体에 대하여 이처럼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推測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電波媒体를 타고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에 대하여 그들이 물샐 틈없는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주민들의 世帯에 강제적으로 有線放送을 가설해 주고 원칙적으로 스피커만으로 된 이 방송만을 듣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다이알식 라디오에 대해서는 납땜을 하여 다이알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밖」의 소리를 못듣게 하고 있으며 한 때 일본에서 북송되어 온 교포들이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가져와 물의를 일으켰으

나 이내 國營收買商店을 통해 압수해 버렸다고 알려지고 있다.¹³⁾

물론 정보의 單元的 통제란 사회체제 내부의, 전달 매체에 대한 통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매체에 대한 통제만으로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內國人的 地域的 移動의 자유, 內外國人的 出入國의 자유도 아울러 통제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전달은 매체에 못지 않게 사람의 往來에 의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內外國人的 여행에 대해서도 상당히 철저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한가지 북한의 對外 언론편정책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괴는 비단 西方 자본주의 諸國에 대해서만 문호를 閉鎖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유럽 공산주의 諸國에 대해서도 異例적으로 높은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특히 소련 공산당 제 20차 전당대회에서 후루시초프가 스탈린을 비판하고, 그에 힘입어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자유화 운동이 전개되고, 그 결과 북한에서도 金日成 개인숭배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1956년 이후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무렵 소련 및 東유럽 제국에 파견된 북한 유학생들이 전원 소환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例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東유럽 諸國과의 교류에 대한 제한과 그 뒤의 中·蘇문쟁에 있어서의 난처한 외교적 배회,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긴장관계의 지속은 東유럽 제국에 보편적으로 파급된 바 있던 스탈린主義에 대한 비판을 북한에 있어서는 不發케 했었다.

뿐만 아니라 1953년 東유럽諸國의 신문들이 摸索한 이른바 「새로운 코스」의 도입도 북한은 막아버린 것처럼 보인다.

1953년 봄 스탈린이 죽자 그 해 연말 당시 소련 공산당 제 1서기 후루시초프는 당 중앙위에서 소집한 회의석상에서 신문을 보다 영향력 있고 독자들을 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제작 방식을 모색하라고 편집자들에게 促求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소비에트 신문에는 이른바 「새로운 코스」에의 모색이 시작되었다. 그후 1956년과 다음해 1957년의 소련 「신문의 날」(5월5일) 「프라우다」지는 아직도 소련신문이 「재미없고 지루하며」, 「읽기 힘들고 생동감이 없다」는 것을 사실에서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비난 사실이 바로 당 기관지에 공공연히 게재되었다는 사실은 소비에트 신문의 체도 전환을 시사하는 무엇보다도 용변적인 반증이라 할 수 있었다.

東유럽의 위성국가들은 2차세계대전 후에 공산당이 집권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오랜동안 높은 수준의 저널리즘의 역사, 다양한 신문의 방향 및 구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다. 그럼으로 해서 그들에게는 자유주의 신문의 뉴스 보도와 특히 그 짙막한 短信의 기사 형태에 익숙해 있었다. 바로 이러한 東유럽諸國의 저널리즘 傳統이 밑으로부터의 壓力으로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코스」 모색을 위한 위로부터의 요구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당 기관지의 경우엔 이데올로기의 교화와 경제 생산을 위

한 선전·선동·조직의 임무가 계속 제1차적 비중을 갖는다는 사실에 변함은 없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신문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의 구미에 영합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다 많은 취미, 오락 내용을 갖는 편집이 허용되거나 혹은 요구되기 시작했다. 『모든 근로대중은 오락과 긴장해이의 요구를 갖는다. 우리 당의 신문들이 이에 상응하게 그 내용을 확충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나위없이 독자에 대한 신문의 영향력을 현저하게 강화하게 될 것이다』¹⁴⁾ 하는 것이 그러한 지면 변화의 참된 동기라곤 하더라도_____.

신문의 제한된 자유, 새로운 시도에 대한 관용, 그리고 감독의 완화등이 나라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1953년 이후 東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제국에 일반적으로 드러난 현상으로 기록되고 있다.¹⁵⁾

그러나 동유럽 제국의 이러한 「새로운 코스」와는 달리 이에 담을 쌓고있는 북한에서는 그 선전·선동정책의 重点序列은 70년대에 들어와서 까지도 계속 金日成의 偶像化와 그 유일체제의 보장이 제일 우선 순위에 있다는 사실이 북한의 전 출판물의 내용 분석이나 정책자료의 분석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¹⁶⁾

특히 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한 내용분석에 의하면 소련 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와 對比할 때, 게재된 기사 건수가 극히 적고 (55.34) 단일 아이템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사의 長文傾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¹⁷⁾ 는 사실등이 기사의 短文化

短信의 우대등을 요구한 소련 및 東유럽 諸國 신문의 「새로운 코스」에 북한 신문이 便乘하지 않고 있다는 또 다른 시사로 보여진다.

V

한편 북한의 对内 언론정책은 미디어 채널을 통한 언론정책과 非 미디어 채널을 통한 언론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신문·방송과 같은 미디어 채널에 대해서는 이 共同研究에 참여한 다른 論文에서 評論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미디어 채널과 非 미디어 채널의 연결에 대해서 주로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說得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선 메시지의 傳達効果는 미디어에 의한 대중 채널과 사람을 통한 퍼스널 채널이 결합될 때 提高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보는 대중 매체와 대중집회 또는 대중시위의 並行方式이 그러한 例이다.

북한의 对内 언론정책에 있어서도 그들은 金日成의 유일 권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金日成의 唯一思想의 선전 또는 노력동원을 고취하기 위한 생산의욕의 선동 등은 단순히 중앙집권적인 「砲列」을 갖춘 신문·방송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匿名의 「매스」에 대한 메시지의 長距離 砲擊만으로써 그치게 하진 않는다. 그들은 대중 매체에서 砲擊한 메시지의 着彈地点에서 이번에는 一次的 집단 내지는 小集團의 對面(face to face) 접촉의 채널을 통해서 선전·선동의 요원으로 하여금 短距離 射擊으로 같은 메시지의 개인적인 注入을 수행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북한의 신문학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신문 편집자들은 신문을 발간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수중에 들어 간 신문의 운명에 대하여서까지도 책임진다. 그러므로 신문 편집자들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독자와의 사업을 진행하여 신문에 나간 자료들에 의한 實効鬪爭을 組織한다』¹⁸⁾

北韓에 있어서 對面 채널을 통해서 선전·선동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으로서 각 직장 단위 및 각 農村의 作業班 單位에 配置된 「일선 선동원」, 「로동통신원」, 「청년 기동 선전대」, 「5호 담당 선전원」 등이 곧 대중매체와 북한 주민을 연결하는 요원들이다. 이들은 독자들의 「수중에 들어간 신문의 운명에 책임」 지고 「신문에 나간 資料들에 의한 實効鬪爭」을 組織하는 선전의 이른바 소총부대들이다. 이 밖에도 북한에는 각 里 협동농장 또는 각 作業班別로 「民主宣傳室」이 設置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뒤 「金日成 革命歷史 研究室」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다. 아무튼 여기서는 당과 住民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勞働者 農民들을 위한 각종 공연, 노래, 무용의 보급, 이야기 모임, 독서 감상회 등의 이른바 「군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설명을 부연할 필요가 있는 것이 「勞動通信員」제도이다.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신문의 「대중적 성격」은 무릇 共產主義 신문의 三大 基本性格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신문의 「대중성」을 강조함으로써 공산주의

선전·선동 활동은 미디어 채널과 퍼스널 채널을 결합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도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共產主義 신문의 대중적 성격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함축을 갖는다. 즉 共產主義 新聞은 대중이 신문을 사고 읽는다는 사실만으로서만 만족하지 않는다. 그 보다도 대중의——적어도——의식적 능동적인 일부 대중의——신문 제작에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 新聞의 대중적 성격은 그의 대중적인 보급보다도 오히려 대중의 신문 제작에의 협력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대중의 협력, 대중과의 결합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그러나 당이나 신문이 대중의 자발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감을 의미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이른바 멘세비키의 後衛 政策이라 비판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볼세비키의 대중결합의 중요특징은 黨이 언제나 의식적으로 대중을 先導한다는데에 있다.¹⁹⁾

黨과 勤勞大衆을 결합하는 가장 기동적인 수단으로서의 신문은 한편으로 黨이 그의 지도적 역할을 실천하도록 도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이 黨의 이론적·정치적 수준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 요청된다.

共產主義의 論理에 따르면 이 경우 신문과 대중과의 관계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첫째는 「大衆속의」 작업이다. 이른바 대중정책적인 작업 (die massenpolitische Arbeit)이 그것이다. 둘째는 「大衆과의」 작업이다. 이것은 대중을 신문의 능동적인 협

력작업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신문과 대중의 결합을 위한 이 두 형태는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이룩하고 있다. 신문의 대중정책적 작업의 質은 곧 독자와 신문과의 협력을 위하여 큰 비중을 가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문의 대중정책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신문이 대중을 향하여 얘기하며 어떻게 신문이 대중에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구명된다.

한편 신문의 대중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그 기반 조성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소련 및 東유럽 제국에서 보편화 되고 있는 이른바 「人民通信員」(Volkskorrespondent)운동이다. 共産黨의 이론에 따르면 바로 이같은 비전문적인 인민통신원의 협력작업에 의해서 사회주의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 선동자, 조직자가 된다는 것이다. 인민 통신원은 또한 그들의 직장이나 활동분야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수행하는 중요한 과업도 맡게 된다. 20)

북한 신문의 「勞動通信員」이 곧 「人民通信員」이다. 이러한 노동통신원에 대해서 북한 共産主義者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노동통신원 제도의 창조를 그들의 金日成 秘話의 일부로서 오려 짜 넣고 있다는 事實로서도 입증된다. 북한의 신문학 교과서를 보면 (1930년대에 金日成은 『자기의 실천적 모범으로 노동자, 농민, 그리고 군대 통신원들을 계통적으로 育成 訓練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대

중적 노동 통신원 운동의 기준을 닦아 놓았으며 共產主義的 문필가들의 후비를 育成하였다』²¹⁾고 뇌까리고 있다.

북한 신문은 현실 생활을 지방적으로 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範圍에서 広範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제한된 편집국의 소수 인원만 가지고는 자기 事業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이유에서도 노동통신원망을 갖게 되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 편집국과 노동통신원과의 관계는 비단 신문 지면에 資料나 보충하기 위한 실무적인 事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自体가 黨의 指導下에 大衆들의 자각적이며 자원적인 하나의 社會的 運動』으로 전환되고 있는 「政治事業」이라는 데에 그 가장 큰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²²⁾ 그래서 북한에서는 黨의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勞動通信員 大會」 같은 것도 소집해서 『나라의 혁명 발전의 매 시기 마다에 신문 편집국들의 대중 사업에서 제기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며 이 事業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었다』고 알리고 있다.²³⁾

그러나 이러한 「노동통신원」이나 또는 「인민통신원」의 실제적인 기능이나 임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것은 黨과 政府를 위한 深層的인 情報網 組織이라 해서 크게 빛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통신원 망이란 대중이 신문을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黨과 신문이 대중을 체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들 통신원이 黨의 통제하에 있는 신문사 편집국에서 人選되고 訓練받

으며 특히 이들이 일선 직장에서 편집국으로 보내는 通信內容은 반드시 모두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으로 알 수 있다.

노동통신원장 이외에도 북한 신문은 「근로자들과 편지 연계」를 맺는 일, 그리고 「열성 필자와의 사업」하는 일을 그들의 大衆事業의 일환으로 들고 있다.

『勤勞者들은 신문 편집국에 서신 형식으로 社会的으로 꼭 알리고 싶은 일, 또는 신소 청원적인 것들을 제기함으로써 자기들의 政治的 의사를 관철』한 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신문 편집국들은 근로자 편지를 가지고 신문 지면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大衆들의 동향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며 편지에서 綜合된 資料를 分析하여 黨과 國家事業을 방조할 수 있게 된다』²⁴⁾는 것이다.

大衆事業의 한 형태로 들고 있는 「열성 필자와의 사업」이란 기자나 노동통신원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집국의 筆陣을 보충하는 事業이라 說明되고 있다.²⁵⁾

마지막으로 북한신문의 大衆事業을 위한 장치로서 들어야 될 것이 이른바 편집국의 「讀者들과의 事業」이다. 북한 신문의 편집국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신문을 발간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手中에 들어간 신문이 그들 속에서 어떤 反應을 이끄는가 하는데 대하여 의식적으로 알아 보고 그럼으로 해서 독자들 속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참작해서 신문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 것을 「黨의 軍중노선을 관철시키는 하나의 表現 형태로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 강조하고 있다.²⁶⁾ 그러기 위해서

신문 편집국들은 해당 黨 組織들과의 연계하에 각종 「독자회의」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大衆事業」을 위한 여러 제도는 대중 매체의 통로에 의한 선전·선동 사업의 피드백(Feedback)을 위한 인간 통로의 조직이라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드백」이 집단적 조직자로서의 신문 그 자체를 위해서라기 보다 黨의 중요한 「政治事業」의 일환으로 강조,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VI

북한에서는 신문·방송을 혼자서 읽고 듣게 하지 않고 공장이나 논두렁과 같은 일자리에서 선동원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읽고 읽히는 「談報會」가 조직이 되고 방송 프로그램 또한 집단 청취, 집단 시청이 일반화되고 있다. 27)

이와 같은 「미디어 채널」과 「퍼스널 채널」의 결합은 북한의 社内 언론정책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의 효과를 높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전달 기능도 강화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함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일상 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언제나 이같은 선전 선동의 一線 要員이 遍在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의 여가시간 구조에 치명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職場에서 일이 끝난 뒤 또는 職場에서 일손을 놓은 뒤의 自由時間, 餘暇時間을 이들 下級 선전·선동원에 의하여 언제나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는 사실상 달리 생각을 하거나, 아니 그보다도 생각을 안 하고 쉬는 餘暇時間·自由時間마저 完全히 박탈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선전·선동의 遍在」라는 실로 可恐할 현상이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单元的, 閉鎖的 言論政策이 이와 같이 선전·선동요원의 遍在를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의식을 노동시간·여가시간의 구별없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 더욱 가공할 문제가 있

다. 바로 어린이들의 社會化過程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탁아소·유치원 등의 교육과정이다.

世代間 (inter-generation)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의 社會化 과정에서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말이나 글을 배우기 이전의 어린 아이들에게 먼저 金日成 偶像化 숭배를 「언론」이나 「이론」이나 「논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에 앞서 「신체」의 차원, 「생리」의 차원에서 주입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70년대초 평양을 방문한 西獨 新左派의 教育心理學者에 의해서 현장으로부터 보고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북한의 어린이들은 「아빠」나 「엄마」와 같은 낱말을 배운 다음 처음으로 낱말을 묶어서 한 「센텐스」를 만들기 시작하는 生後 만 한살 반 쯤의 나이가 되면 「김일성 수령님 고맙습니다」라는 말부터 익힌다는 것이다. 28)

이것은 북한의 언론정책이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파톨로지」 (Pathologie)의 차원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북한의 언론정책이 북한 주민의 노동시간이건 여가시간이건 간에 비탄 의식이 눈을 뜨고 있는 시간, 이른바 識阈 (threshold of consciousness)의 세계만을 선전·선동의 遍在性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람의 의식이 눈 뜨기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미 갓난 어린이 시절부터 闕外 커뮤니케이션 (subliminary Communication)에 의해서 지배를 시도하

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그 結果가 어떠한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될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北韓의 言論政策」이라는 이 論文 主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큰 問題가 될 것이다.

註

- 1) 言論 및 言論政策의 類型化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 대해서는 拙稿, 「新聞과 政府와의 關係研究」(「野農, 崔竣 教授 停年紀念論文集」 서울, 1979 収録) 參照
- 2) Kurt KOSZYK u. Karl H. PRUYS: Wörterbuch zur Publizistik, 3 Aufl, München, 1973, PP.186-190.
- 3) Ibid.,
- 4) 獨語 번역은 W.I.LENIN: Was tun? (S.Aufl) Berlin, 1954.
- 5) LENIN: op.cit., P.17.
- 6) Cf. Anton BUZEK: Die Kommunistische Presse, Frauenfeld, 1965, PP.63-75.
- 7) N.G. PALGUNOW: Tass und ihre Rolle, In: Ostprobleme 8, Jg.N.24.
- 8) Alex INKELS: Opinion in Soviet Russia, A Study in Mass Persuasion, Cambridge, 1951, P.139.
- 9) 자세한 것은 拙稿, 「공산주의 신문의 이론적 계보와 뉴스 정책」(「저널리즘」 1975년 가을호) 參照
- 10) Horst KURNITZKK: Chollima Korea, Ein Besuch in Jahre 23, (" Kursbuch" 30. Berlin, 1972) PP.87-114.

- 11) 極東問題研究所(編) : 北韓全書 上卷, 서울, 1974, P.239.
- 12) KOSZYK U. PRUYS, op.cit., P.186.
- 13) 前掲「北韓全書」, P.247.
- 14) Fred OELSSNER: über die Verbesserung der Arbeit der Presse und des Rundfunks, Referat auf der 16. Tagung des ZD der SED, Berlin (Ost), 1953, P.15.
- 15) 東유럽 諸國 신문의 특히 1953년 이후의 변화와 각국별의 차이에 대해선 BUZEK.op.cit., PP.109-134. 參照
- 16) 前掲 「北韓全書」, P.242.
- 17) 조형준 : 북한 언론에 관한 연구 - 노동신문 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1973, PP.22-23.
- 18) 배순재, 라두림 공저 : 신문리론, 재일본 조선언론출판인협회 번각 발행, 東京, 1967, P.5.
- 19) E.M.HERRMANN: Zur Theorie und Praxis der Presse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Deutschlands, Berlin, 1963, PP.48-50.
- 20) 인민 통신원에 대해서는 E.M.HERRMANN: Die Presse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Deutschlands, Berlin, 1957, PP.86-91.
- 21) 배순재, 라두림, 前掲書, P.15.
- 22) 배순재, 라두림, 前掲書, P.50.
- 23) 배순재, 라두림, 前掲書, P.51.

- 24) 배순재, 라두림, 前掲書, P.50.
- 25) Ibid.,
- 26) Ibid.,
- 27) 前掲、「北韓全書」, PP.243-248.
- 28) H.KURNITZKY. op. cit., PP.95-103.



II. 北韓新聞의 編輯体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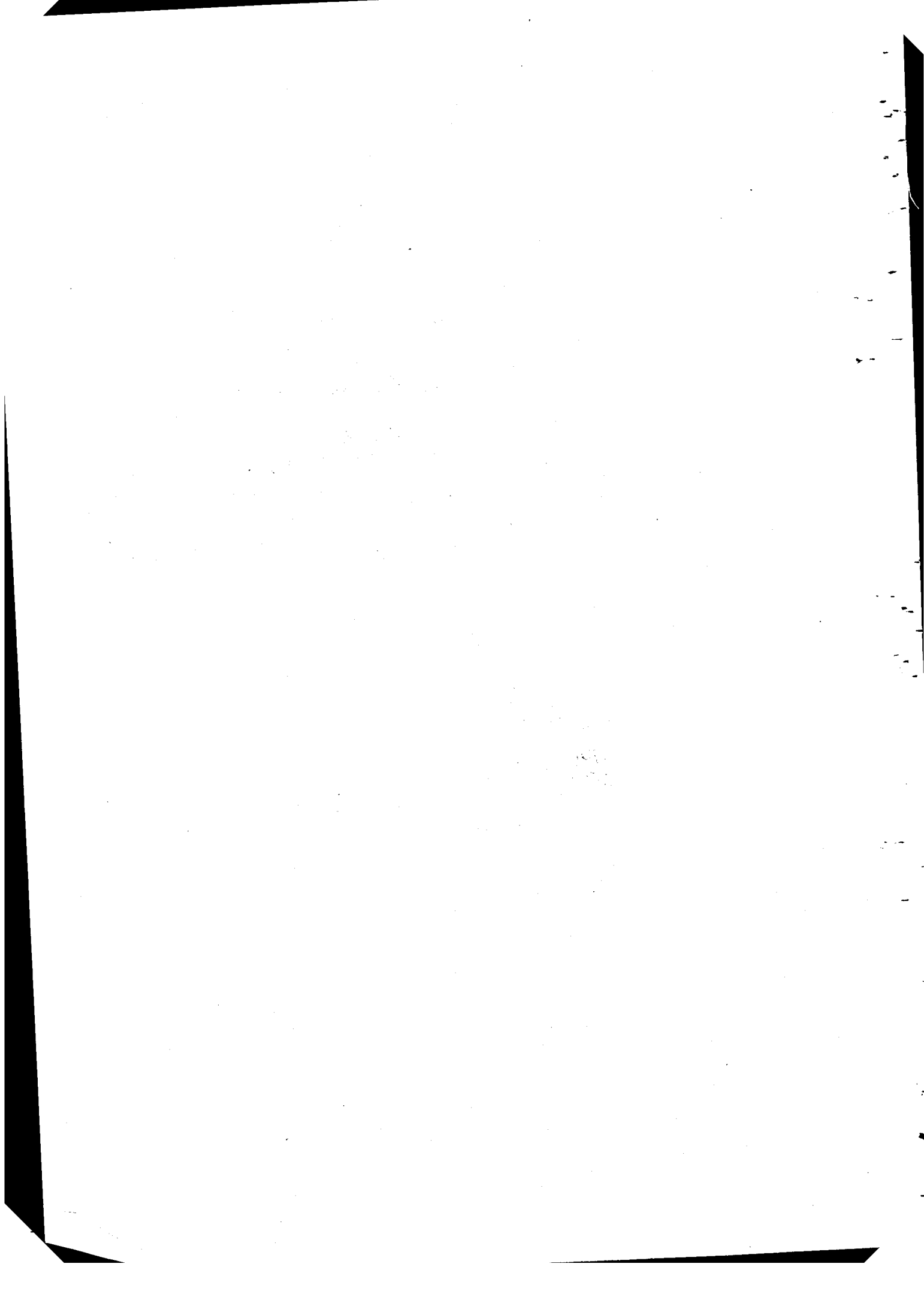
李 相 斗

(略 歷)

- 慶北大學校 法政大學 卒業
-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修了
- 慶北大學校 法政大學 講師
- (現)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 研究委員

— 目 次 —

1. 北韓新聞의 特性
2. 北韓新聞의 現況과 編輯体制의 類似性
3. 「로동신문」의 特質



I. 北韓新聞의 特性

北韓新聞의 編輯体裁의 特質을 分析·批評하기에 앞서 먼저 北韓新聞의 特性과 現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北韓新聞의 特性 및 現況에 대한 간단한 論及은 新聞의 編輯体裁의 올바른 把握과 理解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北韓新聞은 所謂 社會主義·共產主義建設의 「物質的 要塞」와 「思想的 要塞」를 점령하기 위한 大衆動員 및 사상교양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革命과 建設課業遂行을 위해 言論媒体를 어떻게 服務토록할 것인가에 북한언론정책의 목표가 있다 하겠다.

金日成은 1945년 12월 17일에 개최된 「朝鮮共產黨北朝鮮組織委第3次擴大執行委員會」에서 報告를 행하면서 「우리의 課業」이란 항목에서 「正路」¹⁾ 문제에 대해 언급했는데²⁾ 이것이 新聞政策에 대한 그의 첫번째의 見解表明이다.

그후 여러차례 新聞에 관해 담화와 敎示를 발표했으나 거기엔 獨創性과 創造性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마르크스-레닌, 혹은 스탈린의 新聞理論을 모방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 예로 金日成이 「正路」문제에 대해 말하면서 신문의 「集團的 宣傳者·組織者」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도 레닌이 「이스크라」(Iskra : 불꽃)³⁾를 창간하면서 「全國的 政治新聞」은 「集團的 宣傳者 및 집단적 선동자일뿐 아니라 또한 집단적 조직자가

『아이한다』⁴⁾는 주장을 본받을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말한다면, 북한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른 얼마간의 修正과 解釈 및 適用上의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金日成言論理論 및 북한신문의 특성이라 하겠다.

공산국가신문의 모델인 소련의 「프라우다」는 劃一性和 千遍一律性이 짙고, 거기에다 변화와 재미의 결여·부족이 그 特質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의 신문, 그 핵심적·中樞的인 「로동신문」의 경우 이같은 傾向이 더욱 뚜렷한 것이 사실이다.

『소련의 「프라우다」엔 <뉴스>가 없고, 「이즈베스차」엔 <眞理>가 없다』는 諷刺와 비평은 공산국가 신문의 공통적 현상인 眞實性·正確性·速報性의 결여를 적절히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런 현상은 북한신문에 있어서는 보다 뚜렷하며 多樣性和 獨창성이 결여된 반면 党派性和 思想성이 강하며 매우 戰鬪的이라 할 수 있겠다.

「로동신문」 1만호 發刊紀念社說에서 신문의 성격과 역할을 강조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북한신문의 특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동신문>은 김일성 동지의 革命思想과 敎示를 끊임 없이 大衆에게 解説·宣傳해주며 끝까지 貫徹·침투시키는 것이 임무이며 榮譽로운 作業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문의 역할과 사명을 이같이 언명한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모든 신문-신문만이 아니라 라디오·TV·通信·雜誌·映画

등 모든 매스 미디어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大衆媒体로서의 언론기관이 아니라 党의 「唯一思想」·「主体思想」과 金日成偶像化의 党路線과 정책을 해설·설전하는 선전매체의 성격이 뚜렷하다 하겠다.

2.北韓新聞의 現況과 編輯体裁의 類似性

북한에는 「共和国言論의 總參謀部」라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機關紙인 「로동신문」과 最高主權機關이라고 하는 「最高人民會議」常設會議와 最高主權機關의 行政的 執行機關인 政務院(內閣)기관지인 「민주조선」, 平壤市人民委員會가 발행하는 『首都의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分野뉴스를 反映』하는 「평양신문」, 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청년」등의 日刊紙와 隔日刊紙·週2회 및 週刊紙등이 있다.

中央紙는 각 政党·社會團體·勤勞團體 기관지이고 地方紙는 각道의 道日報⁵⁾이며 下級新聞은 工場·企業所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工場新聞과 각大學에서 내고 있는 大學新聞이다.

이외에 Pyongyang Times 라는 英文·佻文版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이들 新聞은 비록 發行機關·發行部數·發行面數와 回数등엔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과 編輯体裁 등은 大同小異하며 모든 신문의 模範인 「로동신문」의 複写版이라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에 無作為抽出로 북한의 대표적 신문인 「로동신문」·「민주조선」·「평양신문」·「로동청년」의 ① 1978년 10월 31일자와 ② 1979년 8월 21일자를 샘플로하여 그 구체적 實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78년 10월 31일자를 보면 이들 신문은,

① 金日成의 이른바 「不朽의 古典的 勞作」들을 사회주의 국가들과 기타 국가의 出版物·通信들이 보도했다는 소식을 꼭같이 실었다.

② 신문들은 김일성에게 「在日本 朝鮮人總聯合會中央委員會」제 11期 第2次會議에서 보내왔다는 편지를 일제히 실고 있다.

③ 金日成의 논문, 「사회주의건설에서 財政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發表 10주년에 즈음하여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財政이 나아갈 輝煌한 앞길을 밝혀준 綱領的 文獻』, 「민주조선」은 『사회주의 財政管理에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아가야할 綱領的 指針』, 「평양신문」은 『사회주의 財政이 나아갈 앞길을 輝煌히 밝혀준 綱領的 文獻』이란 題目的 글을 실었다.

④ 모든 신문들은 朝總聯中央委 제 11기 제 2차회의 소식을 꼭같이 실고, 또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같은 標題아래 韓德銖의 報告要旨를 한면 전면에 실고 있다.

⑤ 각 신문은 비슷한 제목으로 經濟計劃 수행을 선동하는 社說을 게재했으며,

⑥ 꼭같이 經濟關係記事를 실고 있다.

⑦ 모든 신문은 『남조선당국은 反共謀略 策동을 당장 중지하여야한다』는 題目으로 발표한 「조선중앙통신사」聲明을 일제히 실고 역시 똑같은 標題아래 韓國을 비방하는 글을 실고 있다.

⑧ 『好戰分子의 교활한 기만策동』 및 이와 비슷한 제목의 論評을 이 신문들이 실었으며,

⑨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표제아래 유엔총회 제 33차회의 소식을 다같이 실고 있다.

1979년 8월 21일자 신문들을 보면,

① 「로동신문」·「민주조선」·「평양신문」은 똑같이 金日成이 알제리獨立 17주년에 즈음하여 알제리大統領이며 民族解放戰線黨秘書인 사들리 벤제기드에게 보낸 祝電에의 答電을 실었다.

② 金日成이 요르단王國의 후세인 1世에게 民族名節에 보낸 祝電에 대한 答電을 실었으며,

③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朝鮮勞動黨中央委政治委와 中央人民委聯合會議에 대하여 보도한 시리아 新聞과 가나의 라디오 및 TV放送뉴스를 게재했다.

④ 「로동신문」·「민주조선」·「평양신문」·「로동청년」등 中央紙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出版報道戰線에서 革命的 전환을 일으키자』는 題目아래 전국記者大會가 17일부터 2일간 平壤에서 개최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⑤ 「로동신문」·「민주조선」·「평양신문」등은 북한에서 가을걷이 준비에 착수한 소식을 타스通信이 보도한 것과,

⑥ 美國이 美·日·韓 3角軍事同盟조작을 책동하고 있다는 타스通信이 폭로한 기사와, 역시 타스通信이 보도한 南韓에서의 颱風피해소식을 실고 있다.

⑦ 中央紙들은 20일 서울市永登浦區九老洞에 있는 신라金屬株式會社 종업원 500여명이 밀린 賃金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꼭같이 보도했다.

⑧ 中央紙들은 『国軍兵士들은 銃부리를 売国奴들에게 돌려라』라는 표제아래 越北한 前国軍兵士 김용길이 20일 人民文化宮殿에서 国内外記者들과 회견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⑨ 「민주조선」과 「평양신문」은 新民黨과 統一黨의 籠城소식, 한국경찰이 罷業참가자들을 탄압한데 대한 타스通信의 보도 및 東獨아디언通信의 보도를 게재했다.

⑩ 「로동신문」은 『조선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世界人民들의 反響』을 실었고, 「민주조선」은 『조선은 하나이다. 카터는 2개조선정책을 걸어 치우라』는 제목으로 日本의 「金日成主席著作研究会 全国連絡委員会」會長과 공산권신문들이 美軍철수를 동결시킨 카터大統領을 규탄한 성명과 報道를 게재했다.

⑪ 「로동신문」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민족 모두에게 안겨진 최대의 영광이다」라는 제목아래 南韓지식인들이 金日成을 흠모하고 있다는 보도를 실었고, 「로동청년」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대를 이어 높이 모셔야 한다』는 題目아래 釜山의 한 敎員이 김일성을 흠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게재했다.

⑫ 「로동신문」은 金日成이 네팔記者團에게 한 談話와, 中共의 鄧穎超환영연에서 한 연설을 감비아와 英國의 신문이 게재했다는 소식을 실었으며, 「민주조선」과 「평양신문」은 金日成의 『不朽의 古典的 勞作들』을 여러나라 出版物들이 게재한 소식을 실었다.

「로동청년」은 金日成이 베닌共和國 내부안전 및 민족방향부연구계획국장이 提起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시리아新聞이 실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⑬ 「로동신문」은 『겨울나이준비를 빨리하자』, 「평양신문」은 『가을걷이 준비를 잘하자』는 제목의 社說을 실었고, 中央紙들은 다같이 여러건의 産業·經濟記事를 실었다.

⑭ 「로동신문」과 「민주조선」은 루마니아解放 35돌 平壤市紀念集會가 20일 人民文化宮殿에서 있었던 소식을 게재했다.

⑮ 中央紙들은 다같이 여러건의 國際소식들을 게재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中央紙들은 똑같은 제목의 社說과 記事를 실는 경우가 許多하며, 또 글자 몇자를 바꾸고 表現을 약간 달리 하여 실는 경우도 많다. 이같은 編輯方針은 文革當時의 中共의 3大紙誌의 編輯方針과 비슷하다⁶⁾.

北韓新聞들이 얼마나 翻一的인 편집과 보도를 하고 있는지 북한신문을 分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로동신문」·「민주조선」·「평양신문」·「로동청년」할 것 없이 정치적 입장은 물론 社說·論評·기사내용이 비슷할뿐 아니라 編輯体裁(format)조차 흡사하다. 新聞間의 특색과 특징이 별로 없는 편이다. 신문의 題号가 각기 다를뿐이라고 해도 誇張된 표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것이다.

3. 「로동신문」의 特質

(1) 紙面 및 編輯上의 特性

㉑ 紙面의 特性

북한신문들은 「로동신문」을 典型으로 하여 편집·제작되기 때문에 「로동신문」의 편집·체제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곧 모든 북한신문의 편집·체제상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으로 된다 할 수 있다.

紙面의 특질부터 말한다면 「로동신문」은 우리나라 日刊 中央紙들과 거의 같은 紙幅을 갖고 있는데 1면의 가로가 40.8 cm, 全面을 펴서 81.7 cm이고 세로가 54.9 cm이다. 그러나 이같은 크기로 紙面이 바뀐 것은 1978년 6월 30일자(日曜日)부터이며, 그 전은 1면의 가로가 42.3 cm, 전면을 펴서 84.6 cm, 세로가 59.7 cm로 韓國新聞이나 日本新聞 및 「人民日報」보다 약간 큰 셈이었으며 소련의 「프라우다」의 크기와 똑같았다.

이번의 紙面크기의 변경으로 가로가 3 cm, 세로가 5 cm 정도 축소되었으며, 活字의 크기는 旧紙와 같으나 行間을 좁힘과 동시에 1행의 字数도 8段의 경우 종래의 17자에서 16자로 줄었다.

「로동신문」의 사이즈가 「프라우다」의 크기에서 「人民日報」나 日本의 「朝日新聞」등의 크기로 바뀐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굳이 추측해 본다면 다음 몇가지를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첫째, 技術 및 施設面에서 보면 輪轉機 등을 바꾼데서 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중태의 운전기나 印刷施設은 1962년에 건설된 平壤綜合印刷工場의 소련製였고 따라서 「프라우다」의 紙幅과 같았으나 이 운전기 등의 印刷施設이 老朽化하여 日本 등 西方세계에서 새로 구입설치하였고, 그 때문에 日本신문이나 「人民日報」크기로 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中共이나 유럽에서보다는 日本에서 도입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⁷⁾

둘째, 新聞用紙切數에 따라 재단할 때 로스를 줄이기 위해 新聞紙面을 축소했을 가능성도 排除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세째, 政治的인 이유를 여기에 결부시켜 본다면 북한이 親中共路線으로 기울어 졌을 때 소련憲法을 모델로 제정했던 헌법을 1972년 12월 27일 中共헌법을 모방하여 改正한 일이 있는데 「로동신문」의 지면변경의 경우도 혹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며 그리고 日本을 비롯한 西方세계로부터의 기술·시설도입의 강력한 의사표시 내지 그 실현의 具體的 实例인지 모른다.

그런데 「로동신문」도 「프라우다」나 「人民日報」처럼 年中無休(正初나 名節, 일요일도 發行)이며 하루 日紙 4면과 속지(間紙) 2면, 총 6면을 발행하고 있다.⁸⁾ 그러나 나머지 신문들은 지금도 원칙적으로 4면 發行이다.

현재 「人民日報」는 1일 6면이나 來年부터 가능하면 8면으로 增面할 예정이라고 胡績偉 편집장은 밝히고 있으나 用紙事情으로 확정적은 아니라고 했다.

「로동신문」의 경우도 增面の 조짐은 현재로선 없는 듯하다.

㊤ 編輯上의 特性分析

「로동신문」의 紙面 및 편집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1977년 10월 31일자 신문을 分析對象으로 삼기로 한다. 「로동신문」은 1979년 10월 31일로 第 304号(累計 11935号)를 발행하고 있는데 無作為抽出로 77년 10월 31일자 신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로동신문」의 紙面을 보면 제1면 上段 中央에 「로동신문」이라는 題号가 한글 橫書로 써어 있고, 그 바로 밑에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라는 글자가 配列되어 있으며 역시 바로 그 아래에 제 304호(累計 제 11203호) 1977년 10월 31일(월요일)이라는 날짜가 박혀 있다. 그러나 「프라우다」등 과는 달리 購読料가 적혀있지 않으며, 그리고 韓國이나 서방세계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發行人·인쇄인·편집인 및 主筆·편집국장 등의 이름도 또 신문사 住所나 電話番号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題号의 왼쪽엔 「프라우다」를 본떠서 「전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共産黨宣傳의 마지막 한 귀절이 있고, 그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는 勞動黨의 구호가 써어 있다. 이 구호는 時期別로 바뀌지기는 하나 그 표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 金日成主体思想을 강조하는 내용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題号의 오른쪽에는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口号가 게재되어 있다. 이것은 革命傳統性을 강조하는 구호이며, 여기 실리는 구호 역시 표현은 수시로 변하나 그 내용은 革命鬪爭, 經濟建設, 勞力競爭 등을 한결 같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같은 구호만 보더라도 「로동신문」은 혁명과 투쟁을 鼓舞·선동하는 신문이요 金日成主体思想과 個人崇拜를 선전·강조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리한 도구임을 알 수 있겠다.

題号와 그 양쪽의 구호아래 부분부터가 記事인데 기사는 한글전용이며 횡서로 짜여져 있다.

각면은 보통 6段, 7段, 8段의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요 演說文의 경우는 4단, 5단), 한단은 약 140行으로 되어 있으며, 6단의 경우 1行의 字数은 22자, 7단의 경우는 19자, 8단의 경우는 17자이다. 따라서 1면에 실리는 기사량은 6단橫組의 경우 약 1만 8,480자, 7단일 때는 약 1만 8,620자, 8단의 경우는 약 1만 9,000자이며 2백자 原稿紙로 대략 93~95枚分에 해당한다. 写真 및 큰 活字로 길다랗게 다는 題目(1977년 12월 16일자의 金日成이 主席이 되었다는 기사제목은 붉은 색으로 달았다)들을 제하면 훨씬 줄어든다 하겠다.

本文活字는 8号明朝体이나, 이것은 1972년 4월 15일 金日成의 60회 生日을 맞아 바뀌어졌던 것인데 그 전은 8号高體였다.

1977年 10月 31日자 신문을 概觀하면 1면은 7단으로 짜여져

있는데 上部의, 왼쪽에서 중앙에 걸쳐 가로 29 cm, 세로 21 cm 크기의 큰 사진이 실려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대의우호협회 및 중조우호협회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는 긴 사진설명이 붙어있는 것이다. 호스트를 가운데 두고 한줄로 길게 늘어서서 사진 찍는 式은 中共과 북한에서 하고 있는 스타일이다. 이런 종류의 사진의 경우, 金日成은 늘 뒷짐을 지고 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곳곳한 자세로 서는데, 유럽쪽의 訪問客중엔 金日成처럼 뒷짐지는 포즈를 취하는 자가 간혹 있기는 하다.

1면의 약 3.5분의 1이나되는 커다란 이 사진 오른쪽 남은 부분에 写真의 세로와 똑 같은 길이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 로작들을 여러나라 신문·잡지들이 게재』라는 긴 題目的 기사를 실고 있고 記事끝에 「본사기자」라고 밝혀 놓았다.

북한신문엔 金日成의 「勞作」을 외국출판물이 게재하였다는 기사를 거의 매일처럼 실는 것이 常例로 되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대의우호협회 및 中朝우호협회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는 제목의 기사와 그 바로 오른쪽에는 역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대의우호협회 및 中朝우호협회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었다』는 제목의 記事를 「본사정치보도반」이름을 달아 실었다.

이같은 헤드 라인이나 캡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金日成에 대해선 반드시 「위대한 수령」등의 修飾語를 붙이고 또

「하시였다」등의 敬稱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것은 西方 세계신문에서선 찾아 볼 수 없는 일이다. 現代 共產主義를 한다고 하면서 家父長的 遺習에 얽매어 있는 증거라 하겠다.

②題目이 길고 說明調이며 또 名詞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動詞로 끝나고 있다. 제목을 요령있고 儼潔하게 달고 또 名詞로 끝내는 韓國新聞들과는 對照的이다. 그리고 韓國新聞에서 처럼 小題目이나 중간제목을 거의 달지 않는다. 이 2개기사의 下段에 2段幅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政令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공화국 북반부에 의거하여온 전남조선피뢰군 대대장 류운학과 무전수 오봉주에게 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이다. 그 政令內容이 「美帝」와 兩韓當局을 중상 비방하고 越北者들의 行동을 「애국적 소행」으로 규정, 선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 아래에는 『인민무력부에서 의거자 류운학과 오봉주에게 상금과 군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명령을 발표』라는 제목으로 이 越北事件을 철저히 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그 오른쪽에 『오늘의 이 크나큰 은덕에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보답해 나가자. 사동구역 리현협동조합에서 자랑찬 한해농사를 종화하고 연간결산분배모임진행, 호당 평균 7톤 431 킬로그램의 알곡과 많은 현금을 나누었다』는 역시 긴 제목의 記事가 「본기자 한창환」의 이름으로 실려있다. 이기사는 下段部の 7분의 5의 스페이다.

다음 2面은 『위대한 교육체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제목의 社說이 실려 있는데, 紙面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의 긴 6段組의 社說이다. 「로동신문」의 사설은 대개 1면에 실리나 2면이나 3면에 실리는 경우도 더러 있고 게재되지 않는 날도 적지 않다.

社說의 길이는 일정하지 않으나 題目을 뺀 字数가 2백자原稿紙로 9장반짜리가 있는가하면 어떤것은 92~93매에 이르는 長文의 것으로 1面전면을 완전히 메우는 것도 있다. 한국·日本·英·美 등 西方世界新聞의 사설은 하나짜리보다 두개짜리가 가장 많고 간혹 세개짜리도 있으나 「로동신문」社說은 원칙적으로 한개짜리이다.

「로동신문」에는 서방세계신문에 의례 있는 칼럼欄이나 短評이 없으나 반면 党·政權機關幹部나 論評員(북한에서는 論說委員을 論評員이라 하고 中共에서는 評論員이라 부른다)의 記名論說이나 論評, 또는 무기명논평, 그리고 編輯局論說과 「正論」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실리는 것이 特徵이다.

북한신문의 社說은 으레 金日成의 교시를 인용하고 (그 敎示는 반드시 고딕體를 써서 만 기사와 區別하고 있다), 그것도 몇번씩이나 인용·반복한다. 이날 社說에선 金日成의 교시가 4번 인용되고 「수령 김일성동지」·「위대한」 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敬稱이 6번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西方世界 같으면 綜合雜誌나 理論誌에다 실릴 길고 專門的인 논문이 社說로 실리는 데에 「로동신문」사설의 또하나의 特徵이 있다할 것이다.

社說아래 왼쪽 下段部의 8분의 3의 넓이에 「조선로동당 중앙위

원회앞」으로 「뵤르뚜갈사회당 국제관계전국비서」인 루이스마베우스가 1977년 10월 10일에 보낸 勞動黨창건 32주년기념 祝賀메시지가 실려 있다. 그 아래에는 『리비아 아랍사회주의 인민공동체 총인민대회 총비서가 우리나라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보았다.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리비아수도에서 초대공연을 진행』이라는 題目的 「평양 10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발 記事가 게재되어 있다.

이 記事 오른쪽엔 『생동한 사실을 가지고 선동할 때』라는 제목으로 「신원군 백우협동농장 제2작업반 제2분조 선동원 리명숙」이 보낸 「讀者投稿」가 게재되어 있다.

「프라우다」·「人民日報」도 그러하지만⁹⁾ 「로동신문」에서도 이 독자로부터의 편지나 投稿 등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로동신문사」의 機構를 보면 「地方輻翰部」가 있어서 地方通信員이 보내온 기사와 일반독자의 각종 편지등을 정리하여 필요한 것은 紙上에 게재하며, 陳情·고발·호소 등을 해결·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다음 3면은 8단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런 기풍, 이런 일본세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이다』라는 큰 題目아래 『개천지구 탄광설비보수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라는 「본사기자 리종관」의 르포르타지를 실고 있다. 『개천지구 탄광설비보수사업소로동자들은 안전등과 소공구도 많이 만들어 탄부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설명이 붙은 두장의 사진이 곁들여 있고, 『본사기자 김원국 적음』으로 되어 있는 이 現場取材記事

는 3면의 10分の8 정도의 길이이다.

이 르포르타지 아래쪽엔 역시 『장비를 잘 갖추고 석탄생산을 더욱 늘인다. 고건원탕광에서』라고 「통신원 한정겸」이 보낸 글이 실려 있다. 앞의 1면과 2면이 金日成의 勳勞를 비롯한 국내기사와 對外關係記事로 채워졌다면 이 3면은 經濟面인 셈이다.

다음 4면도 3면처럼 8단으로 編輯되어 있는데 『공화국의 기치밑에 번영하는 우리 조국』, 『한없이 은혜로운 우리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어 가자』라는 컷으로 된 題目으로 두편의 르포르타지가 실려 있다. 그런데 「로동신문」에서는 題目を 高麗體나 明朝體의 활자로 다는 것이 대부분이고 銅版컷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紙面의 3분지 2에 걸친 이 두편의 르포는 왼쪽에 『우리혁명주권아래 우리는 보람찬 생활·희천공작기계공장을 찾아서』라고 하여 「본사기자 차용구」가 쓴 것이, 오른쪽엔 『두메산골, 꽃피는 금부리 땅 삼주군금부협동농장을 찾아서』라는 「본사기자 김경선」이 쓴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두記事의 아래부분中央에 『공화국의 품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란 가족끼리의 나들이 写真이 「본사기자 립순직 찍음」으로 실려 있다.

이런 르포르타지는 으레 努力競爭을 선동·고무하는 것이며, 또 宣傳用 사진은 北韓을 「千里馬의樂園」·「社會主義의 地上天國」으로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 르포의 下段 왼쪽에는 『다음해 농사에 쓸 물을 많이 잡는다.

삼천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이라는 「본사기자 김상호」의 글을,
그 아래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
하고 돌아간 방글라데시 인민연합당 총비서인 방글라데시 노동자연
맹 위원장이 연회를 마련』이라고 하고 「평양 10월 30일발 조선
중앙통신」 기사를 轉載하고 있다.

이 두 記事 오른쪽에는 「금천군 산림조성사업소에서」 「본사기자
서기남」이 보낸 「튼튼히 기른 나무모를 많이 공급한다」는 르포
가 실려 있다.

5面도 8段편집인데, 왼쪽 上段에 「위대한 수령께서 계시기에
우리인민의 오늘의 보람찬 삶과 행복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라는 題目下에 「제 38차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혁명의 요람 만경
대와 철골, 봉화혁명사적지를 방문」이라는 「조선중앙통신」 轉載記事
가 실려 있다. 그리고 이 記事의 뒷부분에 『위대한 수령 김일
성동지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유서 깊은 만경대 고향집을 방문한 제 38차재일동포조국방
문단』이라는 설명이 붙은 写真이 곁들어 있다.

이 記事 아래쪽에 「일본국회의 야당의원들이 일<한>간의 검은
유착관계를 정부에 추궁」이라는 題目의 「평양 10월 30일발 조선
중앙통신」記事가 轉載되어 있다.

이 두 記事의 오른쪽 뒷부분에는 『서울의 연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에 열렬한 성원을 보낸다』의 題目아래
『<한민통> 일본본부가 <민단계> 8개 단체의 공동명의로 된 성명

을 발표』라는 「도쿄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기사가 轉載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반월간 남조선정세 개관」이라는 김창윤의 記名論評이 실려 있다.

『각성된 인민들의 애국적 진출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題目이며, 그 내용은 延世大學生들의 示威를 다룬 것이나 이런 경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의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이나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하는 常套的인 宣傳文句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 6面의 맨 윗쪽 원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형의 혁명적 당, 조선로동당 창건 32돐에 즈음하여 말라가슈방송이 기념방송을 진행』이라는 記事, 그 아래에는 『우리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영화 감상회와 사진전시회 진행』이라는 「본사기자」의 記事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캄보자 방송이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규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소개』라고 한 「조선중앙통신」記事가 轉載되어 있으며, 바로 그 아래쪽엔 『소련 철도운수부문일꾼들의 사회주의 경쟁성과』란 글이 「성기현」이름으로 게재되어 있다.

그 아래, 즉 왼쪽 맨끝에 『인종주의자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참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인민들의 전진운동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아프리카의 여러나라 정부들과 사회계,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라는 「본사기자」의 解説記事를 실고 있다. 說明的인 題目만 보아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짐

작이 간단하겠다.

6面 오른쪽 맨윗자리에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라는 제목의 「황진식」의 논평을 실고 있는데, 그 내용은 前中央情報部長 金炯旭이 폭로한 對美로비活動과 이와 관련된 韓美·韓日癒着 관계를 비난한 것이다.

이 論評아래 왼쪽에 『애급에서 기상 관측탑을 건설』이라는 「조선중앙통신」 轉載記事와 그리고 그 밑쪽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집행리사회위원장이 뽀스카를 방문』이라는 「조선중앙통신」 轉載記事가 실려 있다.

그 아래에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통일을 강화하자, 에티오피아 혁명보도센터가 성명에서 강조』라는 「본사기자」 이름의 『科學的社會主義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정치 단체들의 통일』을 주장한 짧은 記事를 실었다.

그 오른쪽에 『민족교육발전에서 성과들을 달성, 도쿄, 가이아나, 앙골라에서』라는 題目的 「본사기자」가 쓴 것으로 된 外信報道가 실려 있다. 그 아래에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국영책방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写真說明과 함께 女店員과 冊을 들여다 보고 있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 실려 있다.

그 아래 맨 마지막에 『삶의 권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 『미국의 대서양 연안과 메히조만 연안지역 부두로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100여척의 대형화물선과 약 1천척의 짐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근로자들은 각지에서 올해 가을철 공동투쟁을 계속,

이탈리아에서 40 만명의 식료공업부문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단행, 철도부문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으로 철도운행마비, 프랑스의 각부분 근로자들도 파업투쟁을 펼치기』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제목의記事가 「본사기자」이름으로 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실업을 반대하여 일떠선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가두선전을 벌이고 있다』는 실명이 붙은 작은 写真이 게재되어 있다.

이로써 「로동신문」 1977년 10월 31일자 6면의 概觀이 전부 끝나는데 마지막에 「편집위원회」라고 기록하여 이 신문의 編輯上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다. 이 편집위원회란 「로동신문」이나 「민주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機構인데 責任主筆(社長)·副主筆·편집국장·부국장·部長 등 12~15명의 幹部로 구성되어 新聞製作에 따르는 方向을 논의하고 論說·社說記事의 결정 및 신문사 운영에 수반되는 諸般問題를 협의 결정하는 임무와 그리고 責任主筆이하 社의 간부를 형식상으로나마 選出하는 소임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下部欄外에 一連番号·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행특별취급 승인 제 3호, 그리고 編輯局과 각부의 전화번호가 記載되어 있다.¹⁰⁾

이상과 같은 「로동신문」하루치의 紙面 및 編輯上의 방침과 特徵은 西方世界 신문의 그것과는 判異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2) 体裁 및 内容上的 特性

㉑ 적은 新聞面數

「로동신문」은 하루에 보통 6면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같이 적은 면數로는 洪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국내의 뉴스를 제대로 消化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共産黨機關紙의 경우는 日本공산당 기관지인 「아까하다」(赤旗)와 1日平均 14面을 除外한다면 「프라우다」·「人民日報」등 모두가 1日平均 6面인데, 西方世界新聞面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게 사실이다.

『중국의 消費量이 文明의 尺度』라는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北韓은 분명히 文化, 특히 出版文化의 水準이 낮다고 볼 수 있겠다.

機關紙인 「로동신문」이 1일 6面이고 나머지 신문들은 4면에 지나지 않는 이 新聞發行面數의 低調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는, 新聞用紙의 不足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1960년까지는 新聞用紙를 소련에서 거의 全量輸入해 왔던 것이다. 자체 공급을 위해 1960년부터 펄프공장 건설을 서둘렀던 것이다.

1961년 吉州펄프工場이稼動되면서 부터 用紙難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中共도 外國에서 펄프를 輸入하고 있기에 新聞部數擴張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新聞用紙 부족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書籍出

版에 적지 않은 종이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 특히 主体思想 강조와 金日成個人崇拜을 위한 文獻·도서출판에 注力하여 1972년 한해에 160여種, 약 4천만部 (이중 金日成勞作이) 49종 1천 816만 8천부, 革命傳統 교양자료출판이 85종 1천 130만 9천부)를 발행한 바 있다.

中共의 경우도 「人民日報」의 部數·面數를 늘이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教科書나 노트製作에 종이를 우선 배당하는 사실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面數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신문이 黨의 완전한 통제와 감독하에 있으며 黨路線과 兗策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特殊性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방대한 뉴스를 黨的 立場에서 정연하게 취사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실사 用紙不足의 문제가 전혀 없다 하여라도 面數를 西方세계신문처럼 增面發行한다는 것은 쉽게 실현되기 어렵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北韓을 포함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뉴스에 대한 개념도 資本主義 社會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客觀的 事實의 보도, 好奇心을 자극·충족시키는 사건이나 興味本位의 고십 등은 뉴스가 되지 않고 아무런 價值도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에트에 있어서의 주요한 뉴스, 그리고 어느 의미에서는 사실상 唯一의 뉴스감은 社會主義建設이라고 불리는 過程, 즉 소비에트 社會를 건설하려는 일반적 노력이다. 사건은 그것의 사회 과정에 대하여 의미를 갖고 있는 限에서만 뉴스로 看做된다』는

것이니 반드서 많은 뉴스를 게재할 필요도 뉴스選擇의 어려움도 사실상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많고 雜多한 뉴스 가운데서 記事化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다음 몇가지로 限定되어 있다할 것이다.

① 党的 唯一思想·主体思想의 교양과 보도

② 金日成個人崇拜을 위한 선전·찬양

③ 党策의 실천요구와 党決定의 告知

④ 人民經濟建設 추구와 勞力競争운동 鼓舞

⑤ 对南言論政策으로서의 남한에 대한 비방과 남한의 否定的

측면 誇張

⑥ 反美·反日宣傳과 反帝·反植民地 투쟁 煽動

⑦ 제 3세계,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민족해방투쟁 動向 소개

⑧ 불력不加盟国会議(非同盟會議)를 비롯한 북한의 외교활동 소개 등이라 하겠다. 따라서 많은 紙面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더우기 적은 面數일수록 言論統制의 견지에서선 無難하며 효과적이기도 한 것이다.

㉔ 各面의 구별과 特徵이 없는 編輯 북한신문의 편집·体裁上的 特徵의 하나는 신문이 全面에 걸쳐 國內政治面·外信面·經濟面·社會面·스포츠面·文化面·地方欄 등의 구별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1일 6面発行의 記事配列을 보면 1면은 주로 國內·國際政治問題, 특히 북한의 국제적 地位向上과 관련된 문제를 실는게 일반적이다.

1977년 10월 31일자 「로동신문」의 경우 1면은 ①中共人民對外友好協會 및 中朝友好協會대표단 關係記事. ②金日成의 勞作에 관한 기사 ③中央人民委政令 및 賞金수여에 관한 기사 ④한 協同農場의 年間決算分配에 관한 기사 등이 실려 있어 政治面為主의 편집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協同農場記事가 끼어 있어 그 틀을 약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다음 2면은 社說과 祝電·독자투고로 채워져 있다. 한국신문의 경우 2면은 經濟面이나 「로동신문」은 잡탕식으로 기사가 뒤섞여 있다.

3면은 두 르포記事가 다같이 旅鎭의 석탄생산에 관한 것. 따라서 이 面은 經濟부문기사, 産業생산활동을 다룬 面이라 하겠다. 그리고 4면도 이의 延長이다. 4개記事가 工場 및 농촌에 관한 것이고 記事하나가 海外消息기사이다. 「로동신문」은 필요한 경우 몇면에 걸쳐 같은 분야의 기사, 심할 때는 한가지 記事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음 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혹은 1면에서 계속하는 식이 많다.

5면은 南韓關係 및 對外關係面이라 하겠다. 南韓을 비난한 보도는 延世大生데모와 그리고 反政府활동고무, 維新體制반대에 관한 2개 論評이고 對外關係는 朝總聯系在日同胞들의 평양방문 기사와 韓日癒着을 추궁한 日本国会에 관한 기사이다.

마지막 6면은 外信에 해당하는 國際·外交關係面이다. 이 면에서는 주로 社會主義圈의 소식과 제3세계의 動向 및 자본주의세계

의 反政府鬭爭을 보도한다. 이 면의 편집에 있어서의 일관된 3大原則은 첫째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북한의 政治的·文化的 地位向上과, 둘째 그들이 「3大革命力量」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國際革命勢力과의 連帶강화와 세째, 國際路線에서의 反美·反帝·反資本主義선전이라하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각면의 구별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 社會面 記事가 없다.

社會面 記事가 없는 것이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신문의 편집 체제상의 또하나의 特徵이다. 사회면 기사가 없다는 것은 共產國家新聞의 공통적인 特色으로 「프라우다」나 「人民日報」에도 이것이 없다.

그러므로 新聞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북한의 社會相, 주민들의 생활실태, 風俗등을 외부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다.

「로동신문」이 사회문제나 社會的 事件들을 일체 報道하지 않는 이유는 否定的인 측면을 알리지 않고 不美한 사건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模範的인 내용, 肯定的인 面만을 선택하여 보도하고 또 이를 美化해서 발표함으로써 북한에는 모든 社會적 不正과 社會惡이 근절된 地上樂園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일 것이다. 동시에 自己犧牲性, 規律性, 社會주의적 愛國心, 노동애 호심등 이른바 共產主義道德教養을 고취 강요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하기야 讀者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에 迎合하기 위해서, 그리

고 販売部數를 늘리기 위해서 興味本位로 사회문제를 선택해서 널
하게 다루는 商業主義新聞의 편집 태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현대신문의 教育文化的 機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음
엔 안되며, 신문은 스스로의 선택기준에 따라 사실을 폭로하고
그것에 公開發性 (Publicity)을 부여하여야만 한다.

「로동신문」에는 북한사회의 裏面相, 각종 犯罪・非行・事故・公
安문제・스캔들 등은 단 한출도 보도하지 않고 있으나 북한에는
그같은 사건들이 전혀없다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社會主義・社會」의 개념과도 어긋난다 하겠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社會主義 社會는 『그 자신의 토대위에 발
전한 共產主義社會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겨우 資本主義社會에서
갓 태어난 공산주의 사회이다. 따라서 이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점에서, 經濟的으로도 道德的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공산주의사
회가 태어난 母胎인 舊社會의 母斑을 아직 띠고 있는』¹²⁾ 사회
인 것이다. 북한 憲法에선 스스로 「自主的 社會主義의 나라」
내지 「社會主義的 生産關係」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사회라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북한사회는 理論的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旧社会의 母斑」이 남아 있는 사회요, 따라서 意識의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낡은 사회의 要素와 새 사회주의 요소가 混合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社会主義的 人間改造」가 그렇게 쉽게 短時日안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史實이 證明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체제나 이데올로기의 여하에 상관없이 사회적 사건과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북한에서 1977년 12월에 개최된 最高人民會議 제 6기 제 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 따라 「社会主義 遵法生活指導委員會」가 설치된 것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하겠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①權力濫用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②遵法教育을 강화하며 ③法規範違反者에게 法的 制裁를 가하는 것이라 하겠다.

正常的인 커뮤니케이션이 封鎖된 상태만이 아니라 一方的으로 통제된 커뮤니케이션의 상태하에선 大衆의 心理는 流言蜚語에 排出口를 찾게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社会面 記事가 없는 까닭에 북한신문사에는 「社会部」라는 부서가 없다. 사회면기사가 없는 것이 북한신문의 特徵인 동시에 신

문으로서의 큰 弱点이라 하겠다.

㉑ 娛樂面의 기사가 없다.

娛樂記事가 없는 것이 「로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신문의 특징의 하나이다. 「로동신문」에는 娛樂을 위한 기사가 전혀 없으며, 스포츠나 巧芸(서커스)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는 하나 그것은 스포츠競技 그 자체보다도 政治宣傳事業과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다루어지는데 一次的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에는 프로競技가 없으며 스포츠는 政治的 從屬物로 되어 黨策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라우다」에는 漫評이 실리고 日本「赤旗」에는 連載小説이 2편(1편과 12면), 連載漫画(15면)와 社会漫評(2면)이 실리며 商品市況(9면)과 프로野球 등의 기사 및 스포츠 프로案内, 장기, 바둑(11면), 인생상담·건강문제·料理에 관한 것을 다룬 婦人家庭欄(12면), 일기·日曆(15면), TV·라디오·프로案内와 演芸人소식 등을 다룬 演芸面(16면)이 있으나¹³⁾ 「로동신문」에는 이런 것이 없다.

「赤旗」에 있는 여러 娛樂기사, 특히 漫画·社会戲評 등의 不足·결여를 보충하기 위해 소련에서는 隔週 諷刺漫画雜誌인 「크

로코딜」(Krokodil : 鱷魚)를 내고 있고, 中共에서는 文革前에 있었던 「漫畫」誌와 「諷刺와 유모어」(찰러印刷)가 복간되었다고 한다.

文革 때는 「漫畫」誌도 비판받고 많은 만화가들이 「反革命」으로 규탄되었으나 「四人幫」이후 만화의 부활을 요구하는 독자층의 소리가 높고, 또 만화는 사회주의사업의 추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復刊이 시뮬되었다. 「漫畫」誌를 발행하던 中國美術家協會가 独自の으로 刊行하기 어려워 「人民日報社」가 刊行하였다¹⁴⁾고 한다.

앞으로 「로동신문」 등 북한신문도 이 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북한신문에 娛樂記事·흥미본위 기사, 일장적인 生活情報¹⁵⁾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이유의 하나는 販売競争·部數擴張을 위한 독자들의 환심과 인기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運営體制의 특수성에 起因한다 하겠다.

㉞ 廣告없는 「로동신문」

「로동신문」에는 資本主義體制下에서의 新聞의 基本構造의 表現이라고하는 廣告欄이 없다. 現代의 大衆新聞은 各 企業에게 더 없이 便利하고 有効한 廣告媒体인데, 現代新聞의 廣告機能은 이런 意味에서 現代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의 經濟活動엔 없어서는 안될 요긴한 것으로 되어 있다.

購買者인 大衆도 廣告에 의해 商品을 選擇·購買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 新聞廣告는 商業의 目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一般的인 人的 物的 需要供給의 媒介로서 利用되거나 告示의 目的으로도 使用되고 있다.

하기야 廣告表現에 있어서 虛偽·과대표현으로 消費者들을 현혹시키며 競爭企業이나 相對方을 誹謗·中傷하는 逆機能의 面도 있다. 또 廣告主들의 直接·間接의 壓力, 廣告收入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現代新聞의 企業的 性格으로 보아 廣告를 다루는 問題는 慎重을 기해야 할 것임은 勿論이다.

共産黨기관지중 「赤旗」만이 廣告를 실고 있으나 이것은 주로 書籍·書店·觀光 等に 關한 것인데, 그래서인지 平沢忠雄 編輯長은 「뉴스위크」紙의 폴 브린클리-로지스(Paul Brinkley-Rogers)記者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우리는 大企業의 廣告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影響力을 行事하지 못한다』¹⁶⁾

그러나 『廣告도 또한 뉴스』라는 말이 있는만큼, 비록 廣告 그 自体가 記事는 아니지만 西方世界新聞은 지면의 상당부분을 廣告로

때우고 있다.

그런데 「로동신문」은 廣告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그 理由는 黨·政權機關이나 工場·企業所에서 할 廣告를 記事에서 다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런데 극히 예외로 平壤市人民委員會에서 發行하는 「평양신문」에 약간의 廣告가 掲載되어 있다. 그러나 그 廣告라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면 「오늘은 무엇을 구경할까요?」하는 5号活字의 약간 큰 題目을 붙이고, 그 다음엔 6号活字로 서너 곳의 劇場 이름과 上映되는 映画·演劇의 題目을 紹介하는 程度이다. 이것은 모스크바의 劇場案内를 하고 있는 「프라우다」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最近엔 兒童用學用品이 廣告되고, 또 文化用品 및 工藝品이란 명목으로 洗濯비누·치약·우산·포장끈·담배쌈지·줄약·손톱깎이·인단갑·구두끈·색 테이프등이 廣告되고 있는 事實이다. 이것이 「日用雜貨都売所」의 이름으로 廣告되고 있는 것이다.¹⁷⁾

北韓에서는 『廣告는 消費者를 속이기 위한 手段으로, 資本家들이 보다 많은 利潤을 짜내기 위한 競争의 手段으로 利用되고 있다』¹⁸⁾고 資本主義社會에서의 廣告를 비난하면서 『廣告活動을 위하여서는 新聞·雜誌·放送·照明 等 여러 가지 手段과 方法이 利用되며 該當한 物資와 山勞動의 支出이 不可避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廣告活動을 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첫째, 막대한 廣告費를 들여 廣告할 必要도 또 실사

廣告했을 경우일지라도 消費者들이 物品을 살 充分한 購買力이 없
어 별다른 效果를 거두지 못하는 北韓의 經濟社会的 特殊性때문이라
하겠나.

그런데 中共에서는 華国鋒·鄧小平体制에 의해 추진되는 4個現代
化路線에 따라 11월 1일 党·政府共同通達로 農村副生産物등 1萬
品目 以上の 政府 統制價格을 解除, 價格決定을 市場需給關係에 맡
기는 한편 今年 10월 1일부터 「市場」이라는 新聞을 發行하고
있다. 廣告를 40~50% 싣고 있는데 發刊目的은 活潑한 市場開
發에 있다는 것이다.

北韓新聞이 廣告를 싣지 않는 또하나의 理由는 『내 머리속에는
돈벌이 밖에 없다. <타임>은 내힘으로 再産해 보이겠다. 新聞
의 編輯方針 등에는 興味도 關心도 없다. 별가만하면 된다』고
「新聞의 코머셜리즘」을 強調했던 「더 타임스」의 동슨¹⁹⁾의 말
과는 달리 「로동신문」엔 營利追求의 必要性, 商業主義的 立場에서
의 編輯製作의 必要性이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㉔ 速報性を 度外視하는 編輯態度

北韓新聞에서는 新聞報道의 가장 重要한 기능의 하나인 速報
性を 거의 무시하고 있다하겠나.

新聞의 뉴스性·速報性を 도외시한 이런 編輯은 「프라우다」에서
始作되었는데 스탈린의 生日祝電 等は 數個月씩 繼續 揭載되기 일
췌었다.

「로동신문」의 경우도 9月9日의 政權創建記念日 때의 各國으로 부터의 祝電은 2個月동안 繼續되기가 普通이니 이는 新聞이라기 보다 黨·政權機關의 告知事項을 알리는 官報의 性格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동신문」은 뉴스報道紙이기 보다 黨의 宣傳·教養紙이므로 사전계획·사전조판·사전인쇄까지도 可能하며 따라서 記者는 取材競争을 할 必要도 없고 特種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데스크에서도 記事 마감시간에 쫓길 일도, 마감시간직전까지 지면의 일부를 비워놓거나 짜놓은 版을 解版하고 새로 組版할 理由도 없다.

『中國의 新聞界는 日本과 달라서 각 新聞社·通信社間은 分業關係에 있고, 日本新聞처럼 特種競争을 하는 일도 없다.

<新華社>의 特派員이 보낸 記事를 <人民日報>記事가 또 보내는 것은 하지 않는다. 記者의 수도 적기에 可能한 한, 浪費를 줄이도록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新華社>는 國際關係의 정보를 수집하고 <人民日報>는 評論을 쓰는 것을 주로하고 있다』는 말은 北韓의 경우에도 該當된다 하겠다.

北韓新聞도 記事의 상당부분을 「조선중앙통신」보도를 轉載하고 있다. 金日成도 『여러 新聞이 <중앙통신>에서 나오는 資料를 받아 보도하여! 그렇지, 또 어떤 新聞은 지면이 적어서 그렇지 新聞들에 特色이 없는 것이 큰 결함이다. 여기에도 形式主義와 教조주의가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심각한 檢討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²⁰⁾ 고 한 일이 있다.

北韓新聞들간에 特色이 없고 無性格하며 거의 비슷한 編輯을 하는 것은 지나친 統制·검열로 인한 自律性의 抑制·결여 때문이며 이 責任은 言論機關從事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黨과 金日成 自身에게 있다는 것은 分明하다.

어쨌든 「로동신문」이 「조선중앙통신」에서 記事量의 90%以上을 轉載하기가 普通이었다. 따라서 新聞은 各 新聞社의 取材活動에 의해 제작되는 것보다 北韓 유일의 官營通信에 依存하며, 나머지는 黨의 지시에 따라 計劃的으로 작성된다고해도 過言은 아니다.

그 예로 1972년 9월 15일字 「로동신문」의 경우는 祝電을 제외 한 나머지 44건의 기사중 社說·記名解説記事·르포(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轉載하고 있으며, 1977년 10월 31일자 「로동신문」에선 6건밖에 转载하고 있지 않으나, 통신에의 依存度는 確實히 큰 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速報性을 무시한 編輯을 하고 있으면서도 南韓事態나 國際關係에서 自己들에게 有利한 것은 즉시 報道할뿐더러 되풀이 報道하는 方針을 견지하고 있다.

「로동신문」의 面數調整; 報道的 緩急性 등에 철저히 黨策이 反映되며 따라서 計劃的 意圖的으로 編輯·製作되고 있는 것이다.

㉠ 「文化語」使用과 編輯體裁

「로동신문」을 비롯한 모든 刊行物은 한글만으로 製作되고 있는데, 1949年 9月 한글專用方針에 따라 漢字使用을 全廢하는 措置를 취했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1966年5月14日 言語學者들과의 談話 『조선어의 民族的 特性을 옳게 살려나갈데 대하여』에서 「文化語」使用을 主張했다. 『……革命의 참모부가 있고 政治·經濟·文化·軍事의 모든 方面에 걸치는 우리 革命의 全般的인 戰略과 전술이 세워지는 革命의 수도이며, 요람지인 平壤을 中心으로 하고 平壤을 基準으로 하여 言語의 民族的 特性을 보존하고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런데 <표준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야 하겠다. <표준어>라고 하면 마치도 서울말을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릇되게 理解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쓸 必要가 없다. 社會主義를 建設하고 있는 우리가 革命의 수도인 平壤말을 基準으로하여 發展시킨 우리말을 표준어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 <문화어>란 말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쳐 쓰는 것이 낫다』²¹⁾하여 平壤말을 文化語로 바꾸어 부르도록 지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北韓은 한글專用, 漢字廢止 等を 골자로하는 「民族語 發展」을 위한 言語政策을 쓰고 있긴하나 여전히 많은 問題點이 제기되고 있다.

「로동신문」 紙面의 分析을 통해 이를 살펴보면, 첫째 記事의 文章이 걸어진 點이요, 둘째는 發言이 強하고 語感이 戰鬪的인 어휘를 많이 쓰고 있는 點이다. 「원쑤」·「帝國主義놈들」·「까부시다」·「불 락을 안겨주었다」 等이다. 이런 것을 「革命的 言語」라고 부르고 있으며, 「言語는 革命과 建設의 모든

分野에서 大衆을 革命鬪争에로 불러일으키는 組織動員의 武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革命的 言語」조작에서 生硬함이 눈에 거슬리는 경우가 많다. 「革命的 大事變」·「領導的 核心」·「群衆工作」·「機關本位主義」·「雇傭間諜」등 무수하다.

이런 것들은 한글전용의 원칙과 모순된다 하겠는데, 金日成은 「科學論文이나 정치보고에서는 한자어가 비교적 많이 쓰일 수가 있다. 이 政治術語는 좀 복잡하다.」고 하면서 정치용어는 한자어 정리 대상에서 제외한 例外措置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같은 例外사항이 아닌 「어버이 수령님」·「공장기계 새끼치기 운동」·「중심고리」등의 용어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한자어를 그대로 한글로 써서 얼른 알아보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허다하다. 機要員, 待機上下車, 方式上学·自檢自修·以身作則·滿負荷滿稼働 등 무척 많은데 漢字로 써놓아도 무슨 뜻인지 잘 알기 어려운 것을 한글만으로 써놓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려운게 事實이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編輯 体裁上的 特性을 갖고 있는 「로동신문」은 그 紙質에도 약간 特性이라면 特性을 갖고 있다 하겠다. 「로동신문」은 西方世界新聞같이 한번 훑어보고선 던져버리거나 休紙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誑報會」나 學習會때의 學習教材로 使用된다. 따라서 毀損되는 일 없이 잘 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질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두꺼운 종이며 更紙가 아니

라 中質無光沢紙이고 사진이 많이 실리는 날은 사진발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옵세트로 印刷하고 用紙는 中質光沢紙를 써오기도 했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北韓의 모든 新聞의 編輯体裁上的 特性은 「黨策의 侍女」와 「독재자의 制度的 保衛機構」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党派性·階級性·人民性을 잘 反映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한다는 요구와 必要에서 案出되었다고 하겠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北韓의 모든 신문간에는 뚜렷한 差異와 特性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앞으로 記事의 選択, 레이아웃과 포맷면 등에서 讀者의 希望과 요구에 맞는 方向에로의 修正·改善이 摸索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註

- 1) 「正路」는 1945年10月13日「北朝鮮共産党」의 決定으로 그해 11月1日 同党機關紙로 창간되었다가 46年9月1日「北朝鮮新民党」(主席 金枋奉)의 機關紙 「前進」와 통합하여 「로동신문」으로 改題・發刊되었다. 兩機關紙의 통합과 「로동신문」으로의 改題・發刊은 46年8月28日~30日에 開催된 「北朝鮮共産党」과 「朝鮮新民党」의 合党大会結果 「北朝鮮勞動党」이 창당되고 그 機關紙로 되었기 때문이다.
- 2) 「正路」問題에 대한 言及에서 金日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正路>新聞社의 기구를 확장하고 거기에 유능한 일꾼들을 派遣하여 新聞의 質을 높이며 그 부수를 5만부에까지 달하게 하는 동시에 日刊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新聞이 集團的 宣傳者・組織者로 되게 하여야 하겠다』
<金日成저작선집> I. 「朝鮮勞動党出版社」, 1967, p. 21.
- 3) 「이스크라」는 레닌이 1900年12月에 亡命地에서 창간한 最初의 全國的인 마르크스主義的 非合法新聞이다.
「이스크라」라는 名稱은 『불꽃이 타올라서 커다란 火焰으로 된다』고 한 푸시킨의 詩에서 딴 것이다. 그런데 소련共産党 史에선 『그 題号는 <데카브리스트> (Dekabrist : 12月党) 가 푸시킨에 준 回答속에서』 딴 것으로 되어 있다. 毛沢東 도 작은 불꽃이 마침내 燎原의 불길로 된다는 뜻의 「星火燎

原」이란 말을 쓴 적이 있다.

4) 『신문은 集團的 宣傳者·集團的 煽動者·集團的 組織者이기도 하다』는 말은 태닌의 言論思想과 言論政策의 核心인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우리들 運動의 緊急한 諸問題> (What Is To Be Done? Burning Question of Our Movement, 1902) 라는 그의 저서의 <차례 5>. 全國的 政治新聞의 「計劃」에서 全國的 新聞이야말로 全國的 政治組織을 건설하는 核心的 手段이라는 뜻에서 이를 「集團的 組織者」로 규정하였다.

5) 『道日報』는 道黨委員會기관지로 發行部數는 大体로 4~5萬部 程度이며 日曜日을 除外하고 매일 4面을 發行한다. 『道黨委員會 기관지』인 『道日報』와 같은 級の 地方紙로 道主權機關인 『道人民委員會』의 기관지 人民報가 있었으나, 1951年6月에 통합하여 道日報로 一元化되었다.

6) 中共에서는 文革當時 重要한 黨理論이나 黨方針에 대해서는 『人民日報』·『紅旗』(黨理論誌)·『解放軍報』의 3機關紙(誌)가 共同社說을 실었다.

7) 『로동신문』社에서 輪轉機를 새로 導入했다면 그것은 유럽이나 中共에서보다 日本에서 들여왔을 可能性이 큰데, 그 理由는 첫째, 金日成이 先進技術이나 施設을 導入할 때는 日本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포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日本製機械는 言語解得이 가장 쉽고 또 같은 東洋人의 體格에 어울리게 製作되었으므로 操作에 便利하다는 利點을 들

있던 것이다.

둘째는 中共이 새로운 輪轉機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9年 10月 20日字 「朝日新聞」에 掲載된 渡辺誠毅 「朝日新聞」사장과 「人民日報」의 編輯長(社長) 胡績偉와의 對談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있다. 여기서 胡績偉는 「人民日報」의 印刷設備는 40年前의 낡은 機械가 使用되고 있고, 단 1년에 近代化할 餘裕가 없다」고 솔직히 밝히고 있다. 40年前의 시설이라면 日製일 可能性이 가장 크며, 「人民日報」도 낡은 日製의 印刷設備에 의해 製作된다고 하겠다.

8) 「로동신문」이 1日發行面數 6面으로된 것은 1975年 1月부터 이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1964年은 週 2回(水·土)만 6面이고 나머지 5回는 4面이었고, 70年엔 週 3回(火·木·土)가 6面이고 나머지 4回는 4面이었다가 73年에 이르러 週 6回(火·水·木·金·土·日)가 6面, 月曜日 1回는 4面 發行이었다.

9) 「人民日報」 編輯長 胡績偉에 따르면 「人民日報」엔 하루에 平均 1,500通의 讀者便紙가 配達된다 한다. 그것을 80名の 「大衆工作部」부원이 처리하지만 新聞에 실리는 量은 극히 적으며 「讀者來信」欄은 週 1回라는 것이다.

이 外에 「人民日報社」는 5個의 党内刊行物を 내고 있는데, 여기에 讀者便紙를 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0) 여기에 記載되어 있는 電話電号에 의해 「로동신문사」의 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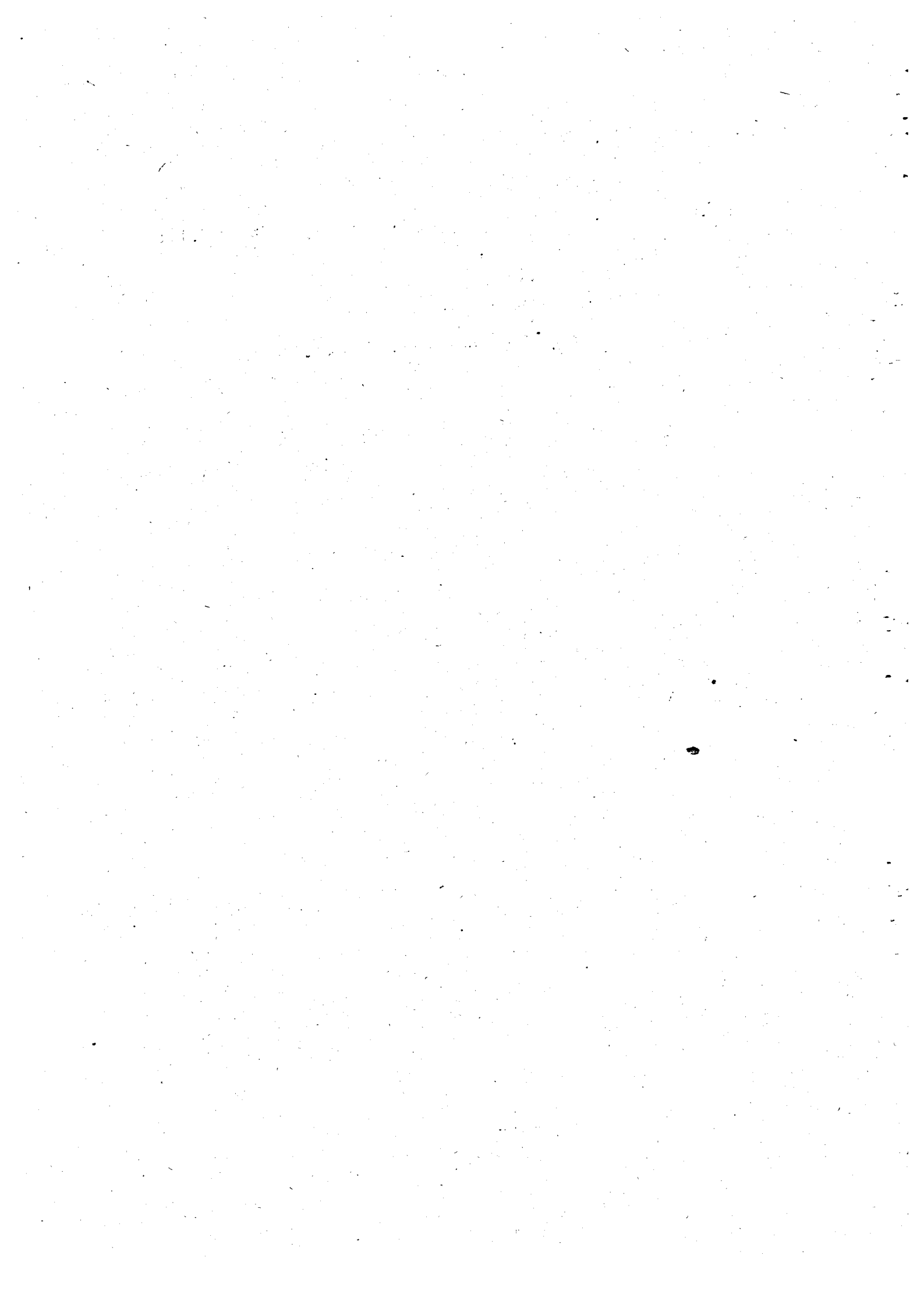
를 짐작할 수 있다. 編輯局·黨生活部·理論宣傳部·工業部·農業部·南朝鮮部·國際部·寫真部·地方書翰部·財政經理部の 電話番
호가 나와있다. 이 외에도 論評員室·校正部·編輯部 等の 부
서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 11) 「뉴욕 타임스」가 1日平均 60~64面 (日曜版은 200面), 「더 타임스」가 24面 (土曜日은 18面), 「朝日新聞」이 朝夕刊 合쳐 36面을 發行하고 있다.

우리나라 日刊紙는 1日平均 8面이나 廣告欄을 제하면 記事面은 5~6面에 不過하여 「로동신문」과 別 差가 없는 實情이다.

- 12) 「마르크스-엥겔스全集」19, 大月書店, 1971, pp.19-20.
- 13)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北韓言論의 本質과 批判 — 汎友社, 1979, p.110.
- 14) 「朝日新聞」, 1979年 10月 20日字.
- 15) 「로동신문」等 北韓新聞에는 物価·서평·결혼·모임·訃告(黨·政權機關 高位幹部의 訃告만은 廣告에 의해서가 아니라 告知의 形式으로 게재된다)가 없고 日氣豫報도 없다. 다만 道日報와 農勤盟기관지인 「농업근로자」에 실리고 있다.
- 16) Newsweek, June 11, 1973, p.34.
- 17) 「北韓總鑑」, 共產黨問題研究所, 1968, p.611.
- 18) 「경제사건」, 「사회과학출판사」, 1972, p.387.

- 19) 酒井寅吉, 「戦後ジャーナリズム」, 大和書店, 1968, pp.155-56.
- 20) 「金日成저작선집」1, pp.584-85.
- 21) 「北韓全書」(中), 極東問題研究所, 1974, p.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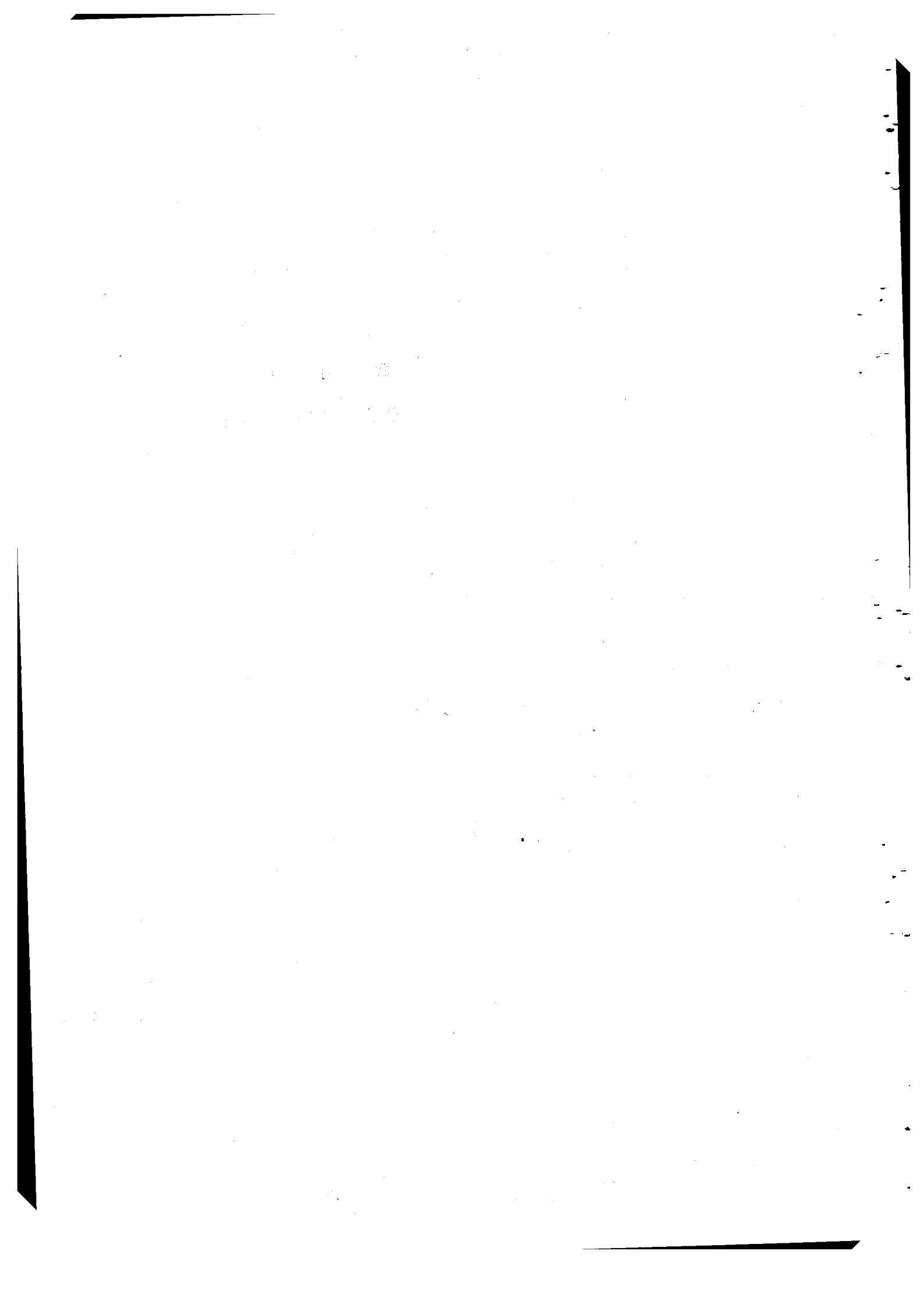
Ⅲ. 北韓新聞의 報道性向

韓 炳 九

(慶熙大 新聞放送學科 教授)

— 目 次 —

1. 序 論
2. 金日成의 言論思想
3. 「로동신문」 題目을 通해본 報道性向
4. 結 論



1. 序 論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社会制度가 그 社会의 價值規範, 慣習 등을 支配하듯이 言論制度도 그 社会內的 政治的, 社会的 構造의 양상에 따라 그 制度의 形態가 規定되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서 言論制度의 형태는 言論이 作用하고 있는 그 社会의 政治体制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言論制度는 그 本質에 있어서 政治哲學을 反映해 주고 또 維持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言論制度는 제각기 그 나라의 政治哲學에 密着해 있으며, 결국 言論制度의 差異는 곧 哲學의 差異라는 結論이기도 하다. 이러한 政治哲學에 바탕을 두고 美國의 저명한 매스 커뮤니케이션學者들은 그 나라의 政治哲學에 가장 흡사하게 符合되는 言論制度를 適用시켜 볼려고 試圖한 결과 權威主義型, 自由主義型, 社會責任主義型, 그리고 소련 共產主義型的 4 가지 主要概念으로 把握分類하고 있다.

이들 4 가지 類型 가운데서 소련 共產主義型은 그 思想的 起源을 俄國과 20世紀初의 마르크스·레닌으로 이어지는 思想的 命脈에 그 根源을 두고 오늘날까지 維持돼 오고 있으며 동시에 그후에 탄생한 모든 共產國家들의 標本이 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言論體系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前提 위에서 本研究者는 研究論文의 本論이라 할 수 있는 北韓新聞의 報道性向이 지난 9年 동안 어떻게 變化돼 오고 있는가

를 內容分析을 통해 究明해 보기에 앞서 金日成의 言論思想 내지는 言語理論을 檢討해 봄으로써 本論을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期待하였다.

2. 金日成의 言論思想

엄격히 말해서 소련공산주의의 言論哲學 내지는 言論理論은 마르크스主義思想에 기초를 두었을 뿐 실제 發展은 金日成에 의해 이루어 졌다고 보는 見解가 압도적이다. 그 까닭은 마르크스自身은 言論에 關係 한번도 직접적인 言及을 한 적이 없으며 金日成이 理論家로서 뿐만 아니라 言論家로서의 經驗에 의해 中央集權主義的 理論 체계의 모델을 提示했고 또한 定着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사실은 비록 마르크스自身이 직접적으로 言論에 關係 理論的, 思想的 見解表明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르크스主義 이전의 마르크스는 言論界에 無事하여 言論人¹⁾으로서 활동했고, 이것이 契機가 되어 마르크스의 政治鬭爭의 序幕이 되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言論에 關係 思想的 背景의 이면을 엿 볼 수 있는 根拠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主義의 기초가 되는 社會變動의 變증법에서도 공산주의 言論理論의 사상적 배경이 探究될 수 있는 根拠가 發見되기도 한다. 즉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한 최초의 著書중의 하나인 「도이취 이데올로기」(Die Deutsche Ideologie,

1845~1846) 속에 言及되어 있는 「交通」(Verkehr) 概念에서도 간접적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는 있다.²⁾

그런 까닭으로써 우리들은 共産主義型의 言論思想은 마르크스-레닌主義思想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다고 말하는 所致도 바로 여기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言論思想도 마르크스·레닌의 言論思想과 分離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想像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端的인 實例로서, 金日成은 1952年 12月 15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5차 全員會議」에서 行한 『당의 조직적, 사상적 強化는 우리 勝利의 기초』라는 題下의 報告에서 『신문사, 잡지사, 기타 출판기관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의 창조적 適用과 관련된 論文, 著書들과 여러가지 教養資料들을 널리 체계하여 출판하여야 합니다』³⁾ 라고 力說한바 있다.

또한 다른 實例에서 金日成은 『우리 新聞理論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일반적인 理論에 확고히 立脚하면서도 그것을 나라의 구체적인 實情에 창조적으로 구현한 우리의 党的 新聞활동經驗의 총화로, 직접적으로는 우리 新聞들의 實踐活動에 이바지 할 산 理論으로 되어야 한다』⁴⁾ 고 強調하기도 했다.

위에서 列挙한 두가지 實例를 觀察해 볼 때 金日成의 言論思想도 역시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金日成은 北韓實情에 알맞는 창조적 適用을 檢調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創造的 適用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解答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

다. 그것도 그럴것이 金日成은 마르크스나 레닌처럼 知的인 사람도, 理論家도 아니라는 点에서도 충분히 納得이 될만 하다고 본다.

우리들은 흔히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新聞은 <社會의 公器> 내지는 <社會의 거울>로서 自由스럽게 報道하고 批判함으로써 國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켜주는 責任이 있다고들 말한다. 反面에 共產主義社會에 있어서 新聞은 共產黨이란 <黨의 거울>로서 政治 道義的 또는 共產革命課業의 강력한 武器로 간주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레닌에 따르면 노동자階級の 혁명의식의 成熟은 그들 자신의 「内部에서」 일어나오는 自発性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 잘 訓練된, 그리고 革命意識에 투철한 인텔리 前衛部隊의 의식적, 理論的인 지도에 의해서 「外部로 부터」 주어진다고 說明한다.⁵⁾ 이러한 意識的인 지도를 조직적으로 遂行해 나갈 수 있는 集團이 소위 말하는 <새로운 類型의 政黨>으로서 곧 共產黨이기도 하다. 따라서 共產國家에 있어서 黨은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大衆을 代表하는 엘리트 階層의 集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結果 共產國家에 있어서 新聞은 이러한 少數 엘리트階層인 <새로운 類型의 政黨>이 大衆을 상대로 教育하고, 선전·선동하고, 그리고 說得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効果的인 理論的 武器 (weapon)가 곧 <새로운 類型의 新聞>으로서 黨 機關紙的 기능을 遂行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共產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新聞의 특징을 土台로 金

日成選集에 収録된 그의 주요 言論思想중에서 몇가지 事例를 들어 마르크스 이후 소련指導者들이 提示한 그것과를 比較해 봄으로써 앞에서 言及했듯이 金日成은 자기나름대로의 어떠한 새로운 獨創的인 言論思想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을 端的이나마 立証해 보고자 한다.

레닌은 革命初期부터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두가지 필수적 要件으로서 正確한 理念과 確固不動한 革命的 조직을 강조한바 있다. 즉 正確한 理念과 조직을 政治투쟁의 成功基準으로 判斷한 레닌은 위의 두가지 要件을 끊임없이 發展시킬 뿐만 아니라 深化 擴大할 수 있는 尤도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역시 全國的인 政治新聞의 發行을 통해 서단이 可能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레닌은 共產新聞 즉 政治新聞의 機能에 대해서 『新聞은 集團的 宣傳者이며 集團的 煽動者일 뿐만 아니라 集團的 組織者이기도 하다』라고 定義한바 있다. 쉽게 말해서 共產新聞은 黨員이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널리 宣傳하고 煽動하고 그리고 흩어진 대중을 共產黨조직에 명복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一絲不亂하게 黨에 忠誠토록하기 위한 政治的 武器가 될 것을 強調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레닌의 新聞에 대한 定義와 관련해서 金日成은 1945年12月17日「조선공산당 北朝鮮組織委 第3次 擴大執行委」에서 行한 「북조선 公산당 各급당 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라는 題下의 報告에서 『<正路>⁶⁾ 신문사의 기구를 확장하며……, 동시에 日刊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신문이 집단적

선전자, 조직자로 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라고 披瀝했다.

여기서 金日成은 新聞의 集團的 煽動者的 기능에 대해서 言及하지 않고 있으나 그렇다고 金日成이 이 기능을 소홀히 여겨지는 것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速斷이라고 본다.

그 까닭은 北韓에 있어서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新聞의 最高監督 기관은 党中央委員會 산하에 있는 「宣傳 煽動部」가 그 업무를 掌管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煽動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金日成은 1962年3月8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全員會議 확대회의」에서 煽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등문들은 煽動하는 演說을 한마디하고 映画나 하나 돌리는 宣傳事業을 다 한 것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煽動事業이지 宣傳事業이 아닙니다. …… 煽動事業은 群衆의 기세를 돌우고 그들을 革命課業수행에로 직접 활동시키는 事業입니다. 煽動事業도 千僞一律式으로 할 것이 아니라 新聞과 조건, 革命任務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⁸⁾

위에서 보았듯이 金日成은 레닌이 契約的으로 定議한 新聞의 機能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新聞의 機能을 遂行함에 있어 한결같이 新聞을 敵과 싸우는데 있어서의 銃이나 칼과 같은 武器에 比喩하고 있음을 新聞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1917年의 革命에서 政權을 장악한 레닌은 帝政러시아의 新聞들

을 接受하는 마당에서 『……종래의 新聞은 모두 有産階級이 獨點하고 있었다. 브르조아新聞은 브르조아의 더욱 더 有力한 武器이다. 勞動者, 農民의 새로운 政府가 수립되어 가고 있는 이 순간 그 武器를 敵의 手中에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⁹⁾ 라고 新聞의 重要性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레닌의 後繼者인 스탈린은 『新聞은 黨이 매일 매 시간 勞動者階級과 이야기하는 주요한 道具(instrument)이다. 이것만큼 黨과 階級사이의 정신적인 유대關係를 긴밀하게 해 주는 것은 없고, 또 이것만큼 융통성이 풍부한 道具가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¹⁰⁾ 라고 力說한바 있는데 이 概念속에서 스탈린이 말하는 道具란 用語는 역시 레닌이 指摘한 武器라는 用語에 代身하는데 不過한 것이다.

그후 흐루시초프는 『新聞은 우리들의 이데올로기의 주요 武器이다. 이 新聞의 임무는 勞動階級の 敵과 勤勞大衆의 敵을 때려부수는 일이다. 마치 武器없이 軍人이 싸울 수 없듯이 黨은 新聞과 같이 銳利하고 전투적인 武器없이는 성공적으로 싸울 수 없다……』¹¹⁾ 라고 強調했다.

한편 金日成은 1928年1月15日 <새날>¹²⁾ 을 創刊하면서 新聞의 重要性에 대해 『革命軍隊가 武器를 가져야만 敵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革命조직은 出版物과 같은 그러한 銳利하고 戰鬪的인 사상적 武器를 가져야만 大衆을 勝利에로 인도할 수 있다』¹³⁾ 라고 披擬했다고 한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흐루시초프와 金日成이 피력한 新聞概念이 複写版과도 같이 흡사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흐루시초프는 이 말을 1957년에, 그리고 金日成은 이 말을 1928년에 피력한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따라서 記錄대로라면 흐루시초프가 金日成이 言及한 新聞概念을 모방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1928年 <새날>이 창간되었을 당시 金日成의 나이가 겨우 16세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한 言及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심과 함께 造作된 記錄이 아닌가 疑者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어느 누가 말했듯이 北韓이라는 나라는 金日成의 「封建領主國」으로서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禁慾的이며 閉鎖的인 社會라고 指摘한 바 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北韓社會에서는 金日成을 위한 일이라면 歷史記錄도 얼마든지 날조할 수 있는 可能性은 항상 있을 수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表現은 아닐상 싶다.

이상에서 몇가지 事例를 檢討해 본 결과 金日成나름대로의 어떠한 새로운 言論思想이나 理論의 提示가 없이 어디까지나 소련의 指導者들이 提示한 概念設定의 影響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獨創的인 言論思想이나 理論을 提示할바는 없으나 다른 처더라도 金日成은 다른 어느 共產國家의 指導者들 보다는 新聞을 自己의 政治的 종속물로 간주하고 최대한으로 利用하기 위해 新聞에 대한 強壓政策을 엄격히 固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金日成은 政治的 權力을 增大할 수 있었고 동시에 北韓社會를 그의 恐怖政治속으로 몰아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3. 「로동신문」의 題目을 통해 본 報道性向

1. 研究의 目的

우리 韓民族은 같은 핏줄을 타고 났고 같은 겨레로서 오랫동안 같은 生活慣習과 思考方式 그리고 文化體制를 영위해 온 單一民族으로서 自負해 왔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1945年 解放과 더불어 韓半島는 南北韓으로 分斷되면서 領土의 分斷뿐만 아니라 相異한 政治, 經濟, 社會, 文化領域에서 서로 다른 理念體制를 발전시켜 오므로써 單一民族이면서도 異質的인 文化意識속에서 지난 30餘年동안을 살아오고 있다.

이러한 異質化現象은 新聞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新聞과 社會體制는 상호 理解體系위에 關聯되어 있음을 잘 立證해 주고 있는 것이다. 社會體制와 新聞과의 眞正한 關係에 대해서 시이버트(Fred S. Siebert) 등은 『人間의 本質, 社會와 國家와의 本質, 人間과 國家와의 關係 그리고 知識과 眞理의 本質과 같은 그 社會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信條 또는 假說에 注視하지 않으면 안된다』¹⁴고 主張한다.

이렇듯 新聞은 그것이 作用하고 있는 社會內的 政治的, 社會的 構造에 따르는 色彩와 形態를 갖추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社會를 診斷하는데 있어서 新聞은 하나의 중요한 尺度가 될 수 있다는 假定은 충분히 可能하다고 본다.

이러한 假定을 받아 들이면서 本 研究者는 北韓社會의 本質을 究明해 보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北韓에서 發行되는 新聞을 통해 보는 것이 하나의 중요하고도 有効한 方法이라고 認識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研究의 題目인 「北韓新聞의 報道性向」이 말해 주듯이 本 研究는 단순히 學問的 關心만으로 그치지 않고 南北間의 대치상태에서 우리의 効果的인 對北政策을 위한 國家政策 內지는 統一을 위한 知識을 整理하는데 기초적 判斷資料로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어졌다.

그에서 本 研究者는 序頭에서 言及한바 있는 金日成의 言論思想과 關係해서 北韓이 指向하고 있는 共產주의 國家建設과 韓半島의 赤化統一 內지는 金日成主義를 實踐해 오는 과정에서 新聞이 어떻게 利用돼 오고 있는지를 內容分析을 통해 究明해 보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2. 分析의 範圍

北韓에서 發刊된 「政治事典」에 의하면 北韓에서 최초로 發行된 共產新聞의 호시는 앞에서 言及했듯이 1928年1月15日 創刊된 <새날>로서 이 新聞은 1926年12月15日에 조직된 새날少年同盟의 機關紙로서 金日成이 직접 제작한 週刊紙라고 한다.¹⁵⁾

그후 解放되기까지 여러가지 共產新聞 또는 雜誌들이 發行되었으나 당시 共產新聞의 특징은 동사판新聞이 대부분이었고 發刊部數도 거의가 數百部를 上下廻하는 극히 보잘것 없는 新聞이긴 했지만

만 新聞活動에 있어서는 철저한 공산주의 조직망을 갖고 있었음은 의심의 餘地가 없으리라고 본다.

解放 다음해인 1946년에는 23종의 新聞에 발행부수는 約7千1百만部였던 것이 1975年度現在 29종의 新聞에 發行部數는 年間 5억 5천萬部에 달하고 있다.¹⁶⁾ 이들 新聞중에서 가장 王座的인 地位를 누리고 있는 新聞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中央黨 기관지인 <로동신문>이다.

機能面에 있어서나 體制面에 있어서 그 原型을 소련의 <프라우다>에서 찾고 있는 <로동신문>은 원래 1945年10月13日에 있는 북조선 공산당의 決定으로 그해 11月1日부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 위원회의 기관지로 創刊을 보게 된 <正路>의 後身이다.

같은 해 12月부터 日刊으로 發行되기 시작한 <正路>는 다음 해 8月28日부터 30日까지 3日間에 걸쳐 평양에서 新民黨¹⁷⁾과 「북조선공산당」의 兩黨 合黨大會가 開催되었는데 여기서 黨의 명칭을 「북조선로동당」으로 改名하고 동시에 新民黨의 기관지였던 <前進>을 吸收하여 同年 9月1日부터 오늘의 <로동신문>이란 題号로 發行을 보게 되었다.¹⁸⁾

70만부로 가장 많은 發行部數를 자랑하고 있는 <로동신문>은 週 7回를 發行한다. 1968年頃부터 서서히 展開된 金日成의 偶像化政策에 따른 主体思想·唯一思想事業이 강조되면서 부터 종전의 하루 4面에서 月·木·日曜日만 4面을, 그리고 나머지 4日은 6面을 발행했다. 73年6月부터는 月요일만 4面을 발행하고 나머

지 6일은 毎日 6面씩을, 그리고 75年1月부터는 毎日 6面을 발행하고 있다.

다른 모든 新聞들이 하루 4面으로 限定되어 있는데 反해 <로동신문>은 6面發行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아도 얼마나 중요한 位置에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로동신문>은 『金日成의 革命思想, 主体思想을 지도적 指針으로 하고 그의 革命思想과 革命路線을 解説·宣傳하고, 具體하여 首領을 政治·思想的으로 옹호, 保衛하는 것으로 党的 위력한 思想的 武器가 되는 것이 곧 <로동신문>의 使命이다』¹⁹⁾ 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막중한 위력을 委任받고 있는 <로동신문>은 따라서 北韓에서 발행되는 모든 新聞들의 指導者的 立場에 있음은 물론 모든 新聞들의 귀감이 되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못된다. 따라서 모든 新聞들은 이 <로동신문>의 複写版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동신문>에 게재된 記事內容의 80% 이상을 그대로 轉載하곤 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런 理由에서 本 研究者에게 주어진 分析의 範圍가 마치 北韓 新聞 전반에 걸친 報道性向을 分析하는 것처럼 넓세를 풍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本 研究者는 그 範圍를 <로동신문>으로 局限시켰다. 우선 다른 新聞(민주조선除外)을 求해 볼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위에서 言及했듯이 모든 新聞들은 <로동신문>에 게재된 記事內容의 80% 이상을 그대로 轉載하고 있는 實情이고 보면 <로동신문>만을 分析對象으로

하여도 所期의 研究目的을 달성하는데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 分析方法

<로동신문>을 研究分析의 대상으로 採択하고 分析期間은 1970年부터 1978年에 이르는 9年間을 定했다. 그 理由는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 南北韓은 가장 政策的 變化가 많았던 注目할만한 時期였다는 点이다. 즉, 1970年 朴正熙大統領의 8.15 宣言과 韓國의 南北赤十字會談 提議(1971.8.12)가 있는 후 역사적인 南北共同聲明(1972.7.4)이 발표되어 최초로 南北이 會談을 열게 되었으며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1973.6.23), 南北不可侵協定提議(1974.1.18),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提議(1974.8.15)가 있었다.

反面 北韓은 北韓의 對南戰略을 자세히 論議한 金忠린의 論文²⁰⁾(1972.4.15)이 발표됐고, 南北共同聲明, 平和統一 5개 항목발표(1973.6.23), 南北對話中斷(73.8.28), 對美平和協定締結 提議(1974.3.25) 등이 있었으므로 역사적 轉換點을 이룬 중요한 時期였던 만큼 新聞內容에 있어서도 많은 變化가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豫想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內容을 分析하려면 記事의 길이, 記事의 內容, 記事의 位置, 主題의 發生빈도등 여러 衡規에서 創出해 볼 수 있겠으나 本 研究에서는 記事의 題目(headline)만을 對象으로 主題別로 분류하여 흔히 內容分析에서 採用되고 있는 5가지 경향, 즉 ①質的分析

(qualitative analysis) ②回數의 計算 (frequency counts)
③分割分析 (Contingency analysis) ④連結分析 (Valence anal-
ysis) 그리고 ⑤強度分析 (intensity analysis)²¹⁾ 중에서 回
數의 計算法을 適用하여 主題의 掲載頻度를 測定하기로 했다.

또한 라스웰 (H. D. Lasswell)은 『內容分析은 커뮤니케이션 즉
新聞, 라디오, 필립 등의 內容을 記述하는 간단한 手段을 提供하며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는 記号들을 일련의 적당한 카테고리
로 分類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결과 分類된 圖式 (scheme)
에서 각 카테고리를 위한 記号의 出現頻度를 측정함으로써 커뮤니
케이션의 表面的 內容을 叙述할 수 있다』²²⁾ 라고 主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表面的內容이란 內容이 表示할지도 모르는 潛在的 強度
나 潛在的 反響등을 除外한 分明하게 나타나는 內容들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分明하게 나타나는 內容 내지는 表面的 內容이란
新聞記事의 題目만으로도 충분히 感知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
까닭은 記事 전체를 읽지 않고도 題目만을 읽고 거의 完全하고 정
확하게 記事內容을 알 수 있도록 簡潔하게 要約·壓縮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北韓의 新聞들은 우리들의 新聞과는 달리 記事의
題目이 文章式으로 길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表面的 內容을 파악
하는데 그 正確性이 더욱 높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分析에 있어서는 前述한 바 9年間을 대상으로 하되 每年 每月 15日字
를 抽出하기로 했으며 그날 新聞에 나타난 題目 全量을 대상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15日字가 欠號일 때에는 그 다음날인 16日字

의 것을 対象으로 하였다.

<로동신문> 題目内容を 分析하기 위해 本 研究者는 各 題目 그 자체를 分析單位 (unit of analysis) 로 보고 各 題目은 <表-1>과 같이 ①金日成 偶像化 ②黨路線 ③政府政策 支持 ④對外關係 ⑤經濟 ⑥社會·文化 ⑦教育, 그리고 ⑧體育등 8 個群으로 基本分類하고 그것을 다시 28 個의 主題變數로 分類하였다.

<表-1>

〈로동신문〉의 主題變數 分類

基本分類	主 題	一連 番号	備 考
I. 金日成 綽號化	1-1. 金日成찬양 및 忠誠	1	日本國內의 찬양 및 忠誠 同盟圈들의 찬양 및 忠誠
	1-2. 金日成찬양 및 忠誠	2	
	1-3. 主体思想무장	3	
II. 党路線	2-4. 党의 唯一思想	4	
	2-5. 党찬양 및 忠誠	5	
III. 政府政策支持	3-6. 國防力 강화	6	
	3-7. 祖国統一	7	
	3-8. 勞勤者, 농민의 主權強化	8	
IV. 對外國係	4-9. 對南非難	9	
	4-10. 對西方諸國非難	10	日本포함
	4-11. 對UN非難	11	
	4-12. 對同盟圈찬양 및 非難	12	이는 기외가 찬양

基本分類	主 題	一連 番号	備 考
	4-13. 同盟團人士 北韓친선방문 및 축하 4-14. 北韓人士 海外親善방문 및 축하	13 14	
	5-15. 革命生活 강조 5-16. 물자절약 5-17. 技術向上 5-18. 增産強要 5-19. 經濟自立 5-20. 社會主義經濟 건설 및 우월성 강조	15 16 17 18 19 20	
V. 經 濟	6-21. 勤勞者 宣撫 6-22. 各種行務 (공연, 만찬, 교양) 6-23. 育兒事業 중요성 강조 6-24. 出版物 利用 강조	21 22 23 24	
VI. 社會・文化	7-25. 教育의 중요성 강조 7-26. 教育사업 개선強化	25 26	
VII. 教 育	8-27. 体育人찬양 및 중요성 8-28. 국제경기 참가 8-29. 국제경기 비난	27 28 29	
VIII. 体 育			

4. 分析結果 및 解辭

<<結果의 綜合分析>>主題別 分析에 앞서 이번 內容分析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結果를 토대로 <로동신문>의 편집체제를 훑어보기로 하자.

다음 <表-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로동신문>은 韓國 및 西方世界, UN에 대한 非難 또는 北韓의 同盟國관계 記事 등 對外關係記事에 가장 큰 力點을 두며(총 기사건수 4,072件中 62.9%), 다음의 혁명생활이라든지 불자절약, 증산강요 등의 經濟關係記事(15.8%), 北韓内外의 김일성 찬양 등의 김일성 偶像화 기사(11.7%), 그리고 각종행사라든가 출판에 관련된 社會·文化關係記事(6.2%)의 順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지난 9년간에 걸쳐 비록 김일성의 偶像화 기사가 건수면에서 대외관계기사나 경제관계기사보다 다소 뒤떨어지고는 있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류의 기사보다 훨씬 많은 지면을 김일성 偶像화 기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아시아 제국들이 그러하듯이 신문용지난은 북한에서도 예외가 될수없으며 오히려 다른 아시아제국들에 비해 더욱 극심한 용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부터 시작된 金日成 偶像화 政策이 강조되면서부터 <로동신문>에 限해 6面の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러한 6面중 간지 두面에는 거의가 金日成의 成長과정이나 항일투쟁, 혁명활동 등에 관한 長文의 論文

〈로동신문〉記事의 主題別 記事 건수

單位：건

主題区分	'70	'71	'72	'73	'74	'75	'76	'77	'78	計
1. 건일성 수상과	39 (11.9)	46 (11.0)	74 (13.4)	50 (10.0)	55 (12.4)	30 (7.2)	39 (8.7)	83 (17.4)	62 (12.7)	478 (11.7)
2. 당로선	3 (0.9)	5 (1.2)	4 (0.7)	-	7 (1.6)	-	7 (1.6)	2 (0.4)	1 (0.2)	29 (0.7)
3. 정부정책 지지	9 (2.7)	8 (1.9)	13 (2.4)	12 (2.4)	2 (0.5)	5 (1.2)	3 (0.7)	3 (0.6)	3 (0.6)	58 (1.4)
4. 대외관계	212 (64.6)	252 (60.4)	325 (59.0)	337 (67.1)	283 (63.9)	288 (69.1)	310 (66.9)	251 (52.6)	305 (62.6)	2,563 (62.9)
5. 경제	44 (13.4)	55 (13.2)	55 (10.0)	64 (12.7)	81 (18.3)	72 (17.3)	79 (17.6)	108 (22.6)	87 (17.9)	645 (15.8)
6. 사회문화	15 (4.6)	43 (10.3)	69 (12.5)	30 (6.0)	13 (2.9)	19 (4.6)	12 (2.7)	26 (5.5)	24 (4.9)	251 (6.2)
7. 교 육	6 (1.8)	5 (1.2)	7 (1.3)	6 (1.2)	-	3 (0.7)	-	4 (0.8)	3 (0.6)	34 (0.8)
8. 체 육	-	3 (0.7)	4 (0.7)	3 (0.6)	2 (0.5)	-	-	-	2 (0.4)	14 (0.3)
計	328 (100.0)	417 (100.0)	551 (100.0)	502 (100.0)	443 (100.0)	417 (100.0)	450 (100.0)	477 (100.0)	487 (100.0)	4,072 (100.0)

* () 안의 숫자는 해당년도의 총기사건수에서 각 주제별 기사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임.

이나 金日成을 찬양하는 文芸창작물로 總당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立証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党路線 (1.4%)이나 政府政策 支持등에 관한 記事는 期待했던 것보다 그 件數가 상당히 적었다는 것을 (각각 1.4%, 0.7%) 알 수 있었다. 다른 한편 敎育이나 體育에 관한 記事件數는 豫想했던대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0.8%, 0.3%)

그러나 이와 같은 主題別 記事件數가 全体記事중 차지하는 비율은 9개년을 통해 매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위 <표-2>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로동신문>의 1日分 기사가 그 件數面에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즉 이번의 분석대상이된 4,072件의 <로동신문>의 기사는 9개년 간의 전체신문중 대월 15일자를 추출해낸 것의 총 기사件數이므로 <로동신문> 1日分の 평균 기사件數는 37~38件에 지나지 않는다. 이점을 통해 로동신문의 기사는 대체로 장문으로 쓰여진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동신문>은 북한사회 전반을 비추는 「신문」이기 보다는 金日成이나 당의 政策등을 알리는 宣傳物로서 전적으로 利用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記事主題別 分析>>

앞 項目에서는 北韓의 <로동신문>에 어떤 內容의 記事가 얼마나 자주 擧論되었는가 하는 <로동신문>의 전반적인 構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다음에서는 記事의 主題別로 게재빈도의 變化추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큰 關心거리가 되는 것은 역시 主題頻度數가 말해주듯 金日成의 偶像化와 對外關係 그리고 經濟關係 記事이다. 따라서 本 分析에 있어서도 上記한 세가지 基本分類에 重點을 두고 살펴 볼려고 한다.

1) 金日成 偶像化, 黨路線, 政府政策 支持

여기에서 「金日成 偶像化 記事」란 北韓 자체는 물론 同盟 圈들의 金日成 찬양記事나 金日成에 대해 忠誠心을 나타내는 記事, 주체사상을 부르짖는 記事를 뜻한다.

다음 <表-3>, <表-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金日成 偶像化記事는 경제변동面에서 상당히 큰 變化가 있음을 우선 알 수 있다. 즉 9개년을 통해 72年과 77年에 이들 記事가 크게 늘어났다는 點이다. 그러면 그 까닭은 과연 무엇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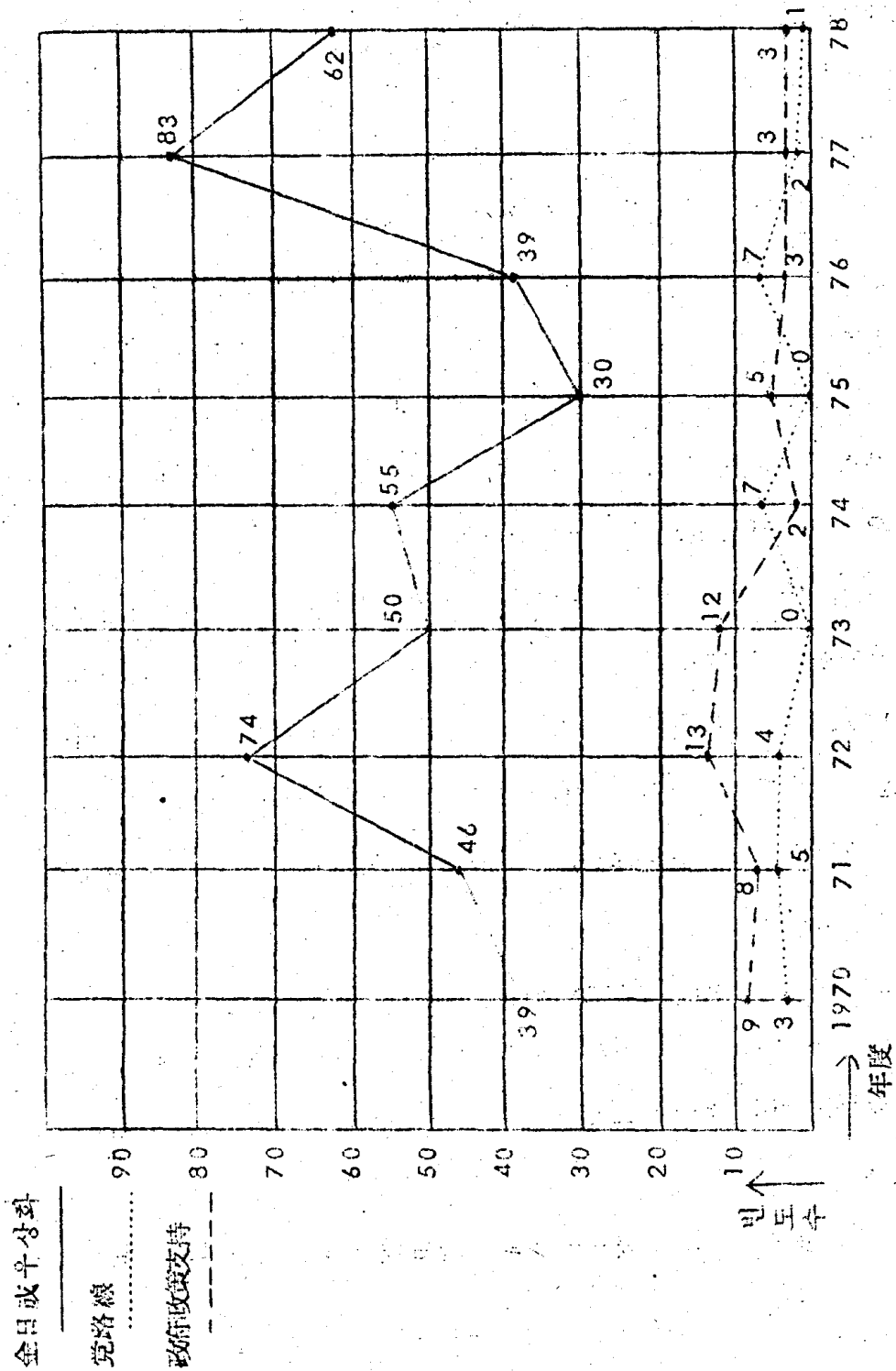
1972年 北韓은 金日成의 60회 生日을 맞이하여 金日成 主体 思想의 무장을 더욱 強化코자 했는데 이러한 點이 72년도 <로 동신문>에 그대로 反映됨으로써 그와같은 結果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 된다.

한편 1977년의 경우는 그 해가 바로 第2차 7개년 경제계획 (1977~1984)의 실시 첫 해로서 소위 <3大革命 붉은旗 쟁취 운동>²³⁾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한 시기였다는 點으로 解釋해 볼 수 있겠다.

위 <表-3>, <表-4>의 金日成 偶像化記事의 변화추이에서

○ <表-3>

金日成 偶像化, 党路線, 政府政策에 관한 題目內容의 變化경향



<表-4>

主 題	年 度											
	'70	'71	'72	'73	'74	'75	'76	'77	'78			
I. 金日成의 偶像化	김일성 찬양 및 중성 1)	13	16	25	15	36	25	19	34	35		
	김일성 찬양 및 중성 2)	18	23	44	26	2	-	2	16	4		
	주체사상무장	8	7	5	9	17	5	18	33	23		
	計	39	46	74	50	55	30	39	83	62		
II. 党路線	당의유일사상	-	4	3	-	-	-	3	1	-		
	당찬양 및 중성	3	1	1	-	7	-	4	1	1		
	計	3	5	4	-	7	-	7	2	1		
III. 정부의 정책지지	국방력강화	5	3	-	-	-	2	-	1	-		
	조국통일	4	3	11	7	2	-	1	2	2		
	노동자 농민의 주권강화	-	2	2	5	-	3	2	-	1		
	計	9	8	13	12	2	5	3	3	3		

* 「김일성 찬양 및 중성」의 ①은 북한내의, ②는 동맹권에 의한 찬양 및 중성임.

또 한가지 덧붙여지는 재귀있는 사실은 1972년의 경우 共產同盟圈을 빌어 金日成을 찬양하거나 忠誠心を 提示하는 方式을 썼는데 비해 1977年度の 경우는 이러한 方法이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사채적인 金日成 찬양 및 忠誠記事가 크게 늘어 났다는 点인바, 이는 金日成이 국제사회에서 外圍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立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앞에서도 言及했듯이 政府政策을 支持하는 記事나 輿에 대한 찬양 및 忠誠 등에 관한 記事는 기대했던 것보다 그 件數가 상당히 적었는데 筆者의 見解로는 金日成의 偶像화가 곧 黨 路線이고 政府政策의 支持라는데 溯由된 故운이 아닌가 여겨진다.

2) 對外關係

'60年代末과 '70年代初에 美·蘇의 兩極的 國際體制에는 구조적 變化가 일어났다. '70年代初 國際體制的 多極化에 따라 美·中共和解, 日·中共和國交 正常化, 美·蘇間의 協調體制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위 얄타體制에 의한 戰後時代가 끝나고 冷戰體制的 긴장완화에 따른 多極體制라는 새로운 世界秩序再編의 章이 열리게 된 셈이다.

이러한 國際體制的 變化 속에서 北韓은 尼克슨독트린에 의한 美國의 軍事的 介入의 變化, 中共의 유엔代表權 획득, 제3世界國家로 일컬어지는 아시아·아프리카國家들의 대거 유엔加入 등을 기회로 國際社會에서 北韓의 實제적 主權을 浮刻시켜 물러고 온갖 努力을 傾注했던 것이다.

이 時期에 北韓은 國際社會의 여론에 駐韓美軍 철수론을 주입시켜 韓·美間의 紐帶를 이간시켜서 美軍撤収를 단행케 하고 나아가서는 平和統一 5개 항목, 對美平和協定締結 提議등을 발표함으로써 위장평화공세를 위한 對外宣傳에 汲々했던 데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는 1975년에 있는 第30次 유엔總會를 앞두고 약 10개월에 걸쳐 88개국에 293개 使節團을 파견하고 1,292회의 海外宣傳광고를 했으며 엄청난 돈을 票매수에 使用했었다.²⁴⁾ 그리고 修交國數에 있어서도 '62年 南韓은 53개 國家와, 北韓은 15개 國家와 修交했고 공동수교국은 하나도 없던 것이 '76년에 와서는 南韓이 95 國國, 北韓이 90 國國, 공동수교국이 47 國國으로 늘어난 것이 이를 立証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이번 내용분석에서 드러난 <로동신문>의 對外關係記事 取扱頻度를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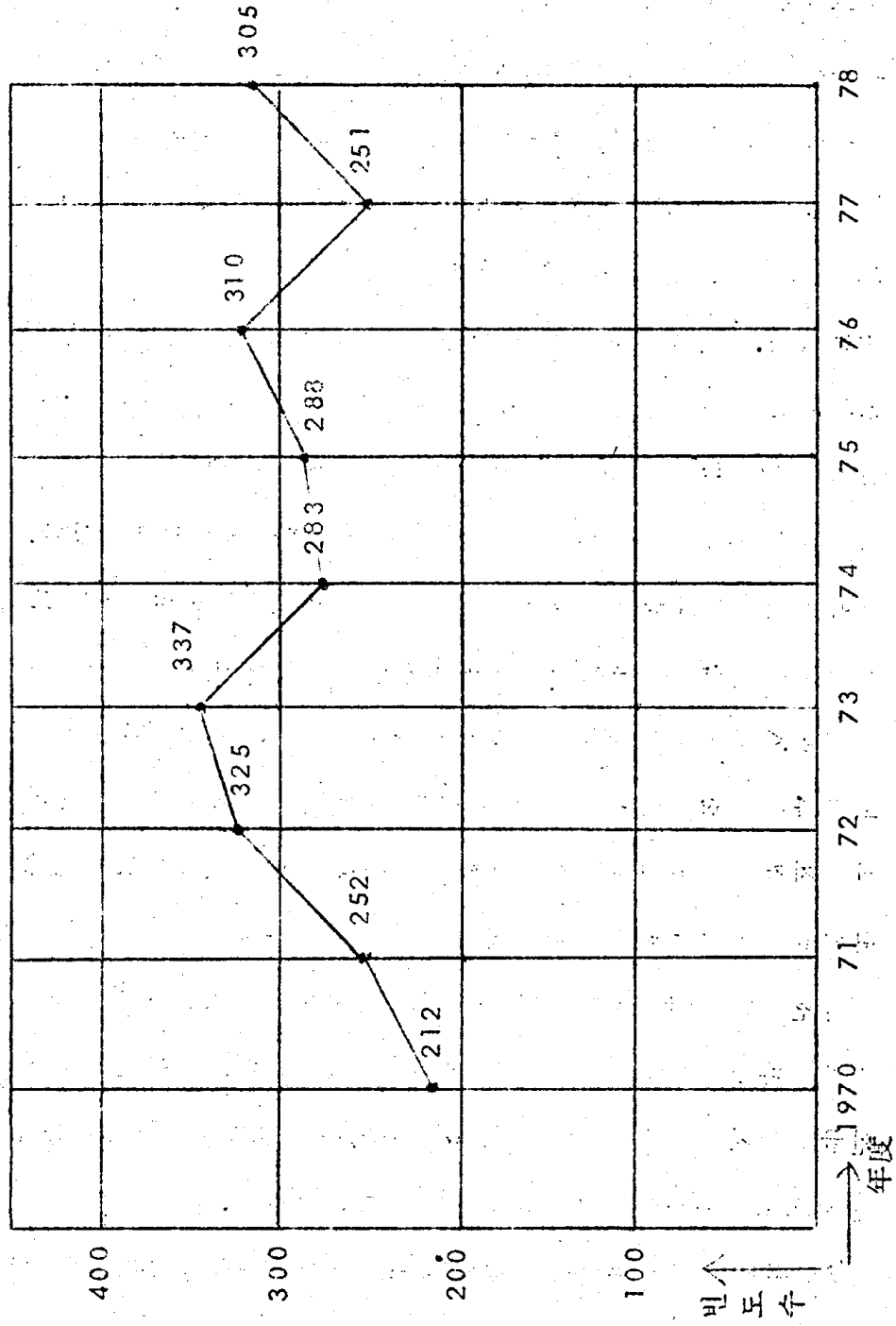
나옴, <表-5> 및 <表-6>을 보면, 1970년부터 '73년에 이르기까지 對外關係記事의 件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대로 國際情勢가 多極化됨을 기화로 北韓의 국제적 위치를 높여보려는 속셈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74년도에는 약간이긴 하지만 同<로동신문>의 對外關係記事가 다소 주춤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74년에 經濟關係記事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의 반대 현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75년과 '76년에는 對外關係記事가 다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表-5>

対外関係に 関한 題目内容의 變化경향



<表-6>

主 題	年 度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對南 比年	28	49	40	54	79	60	62	59	68		
對西方諸國 比年	45	31	46	39	25	31	30	14	23		
對UN比年	24	19	30	40	18	10	19	17	12		
對同盟國比年 및 淸양	68	77	99	102	81	60	107	91	100		
同盟國人士 北韓친선방문 및 축하	35	45	70	54	63	77	64	44	72		
北韓人士 海外親善방문 및 축하	12	31	40	48	17	50	28	36	30		
計	212	252	325	337	283	288	310	251	305		

* 對同盟國比年 및 淸양은 거의가 淸양임.

이러한 변화는 '74년에 우리측이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자 동 11월에 열린 第29次 UN총회에서 북한은 美國을 협상 상대로 하는 대미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결의안을 상징한 바 있는데 이것이 부결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다음해인 '75년에 열린 第30次 UN총회를 앞두고 10개월동안 대대적인 대외활동이 편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또 <표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75년에는 동맹권인사들의 북한방문 및 북한인사의 해외 친선방문에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았던 점에서도 입증된다. 한편 '76년에는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對 UN비난이 다시 고개를 드는 동시에 對 동맹권 찬양기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75년의 第30次 UN총회에서 서방·공산 兩側의 결의안이 동시에 가결된 후 취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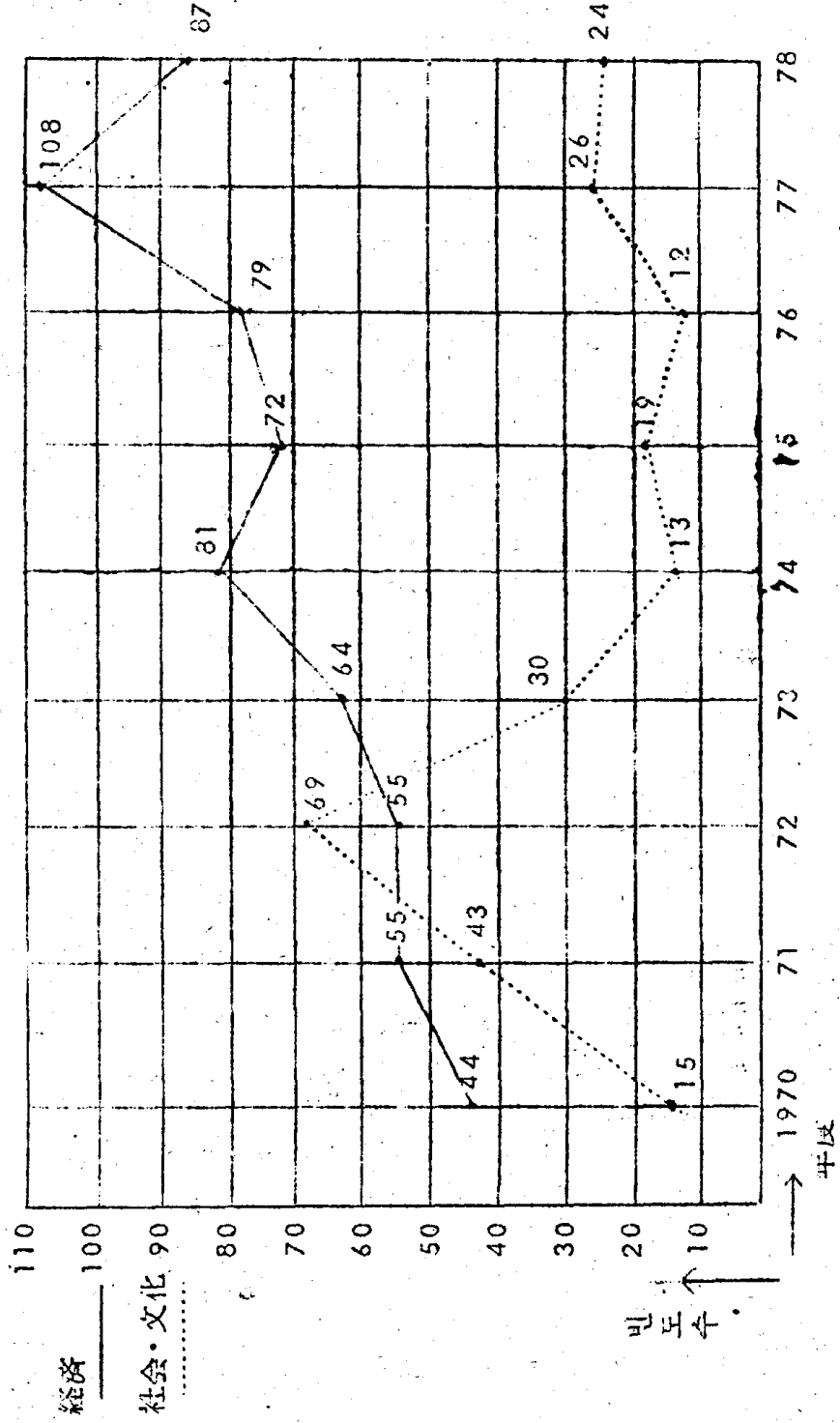
'77년에는 일사 對外關係記事의 게재건수가 크게 떨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그 이유를 파악하기 힘들다. 단지 <표6>을 통해 對西方諸國 非難記事와 同盟國 인사들의 북한방문 기사가 매우 적은데 이와 함께 77년의 경제관계기사 급증이(경제관계 분석 참조) 작용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

3) 經濟, 社會·文化關係

分析結果 <로동신문>이 경제관계記事를 다루는 件數가 197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表-7>, <表-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70년의 경우 44件에 불과하던 것이 '77년에는 최고 108件이나 다루었던 것이다.

<表-7>

經濟, 社會・文化에 관한 題目內容의 變化경향



<表-8>

主 題	年 度											
	1970	71	72	73	74	75	76	77	78			
V. 經 濟	革命生活 강조	11	2	4	6	7	7	12	13	5		
	물자선약	-	-	3	-	1	-	55	5	3		
	기술향상	16	12	12	18	9	16	6	5	3		
	增産重要	23	37	32	37	61	57	4	71	64		
	經濟自立	1	2	2	1	2	10	-	11	9		
社會主義 경제건설 및 獨立성 강조	3	2	2	2	1	-	1	3	3			
計	44	55	55	64	81	72	79	108	87			
勤勞者 直蕪	1	-	-	-	-	-	-	-	-			
각종行렬 (공연, 만찬, 교양)	12	40	63	27	13	18	12	25	24			
育兒사업 중요성 강조	1	-	-	-	-	-	-	-	-			
出版物 利用 강조	1	3	6	3	-	1	-	1	-			
計	15	43	69	30	13	19	12	26	24			
VI. 社會·文化												

그런데 이와 같은 經濟關係기사의 增加는 北韓당국의 基本정책 展開와 매우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는 바 年度別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한다. <表-7>을 보면 '70年度 經濟關係기사가 매우 적은데 이는 그해에 全党大會가 열려 經濟關係를 다소 소홀히 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되며 '71~'73년에는 보합상태를 維持하고 있다.

그러던 것이 '74년에 經濟關係記事 件數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바 이 점은 '71년부터 實施해온 6개년 經濟計劃을 2개년 앞당겨 실천키 위해 70日戰鬪, 100日戰鬪 등의 口號아래 住民의 勞力動員을 강요키 위한 소위 「速度戰운동」을 전개한 해라는 사실이 이를 잘 說明해 주고 있다.

특히 이 해에 強調한 內容이 增産강요라는 점 또한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75년에는 다시 經濟關係記事 頻度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는 李光宰교수의 論文²⁵⁾에서도 指摘된 바 그해에는 北韓이 政治운동쪽에 보다 큰 比重을 둔 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쉽게 納得할 수 있을 것이다.

'76年度の 經濟關係記事의 再增加는 '75年12月부터 北韓에서 展開되기 시작한 (3大革命 붉은旗쟁취운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77年の 대폭적인 增加는 同年度가 84年까지 이어질 7個年 經濟계획실시 첫해인 동시에 (3大革命 붉은旗쟁취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展開할 것을 강조한 점을 그 理由로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이 北韓의 <로동신문>이 經濟關係記事를 계속해서 큰

比重을 두고 있는 理由중에는 무엇보다도 北韓의 눈부신 경제발전
에 크게 자극되어 취해진 현상이 큰 몫을 차지했으리라고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경제관계기사에 많은 比重을 둘것이 豫想된다.

또한 <表-7>에서 보는바와 같이 社会·文化關係記事에 관해서
는 그렇다할 頭角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비록 取扱을 했 다손 치
더라도 <表-8>에 나타나 있듯이 主로 公演, 단찬, 교양등과 같
은 각종 行事記事가 主流를 이루고 있다. 특히 '71년부터 上昇
勢를 보여 다음 해인 '72년에 급격한 頻度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前述한 바 '70年代初부터 國際情勢가 多極化됨을 기화로 北
韓의 국제적 地位를 높여보려고 住民을 公演場이나 觀衆會에 動員
해서 煽動하려는데 底意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公演(映畵포함)과 같은 미디어手段이
說得力이 강하다고 해서 매스·미디어에 못지 않게 중요시하고 있
다는 點을 附言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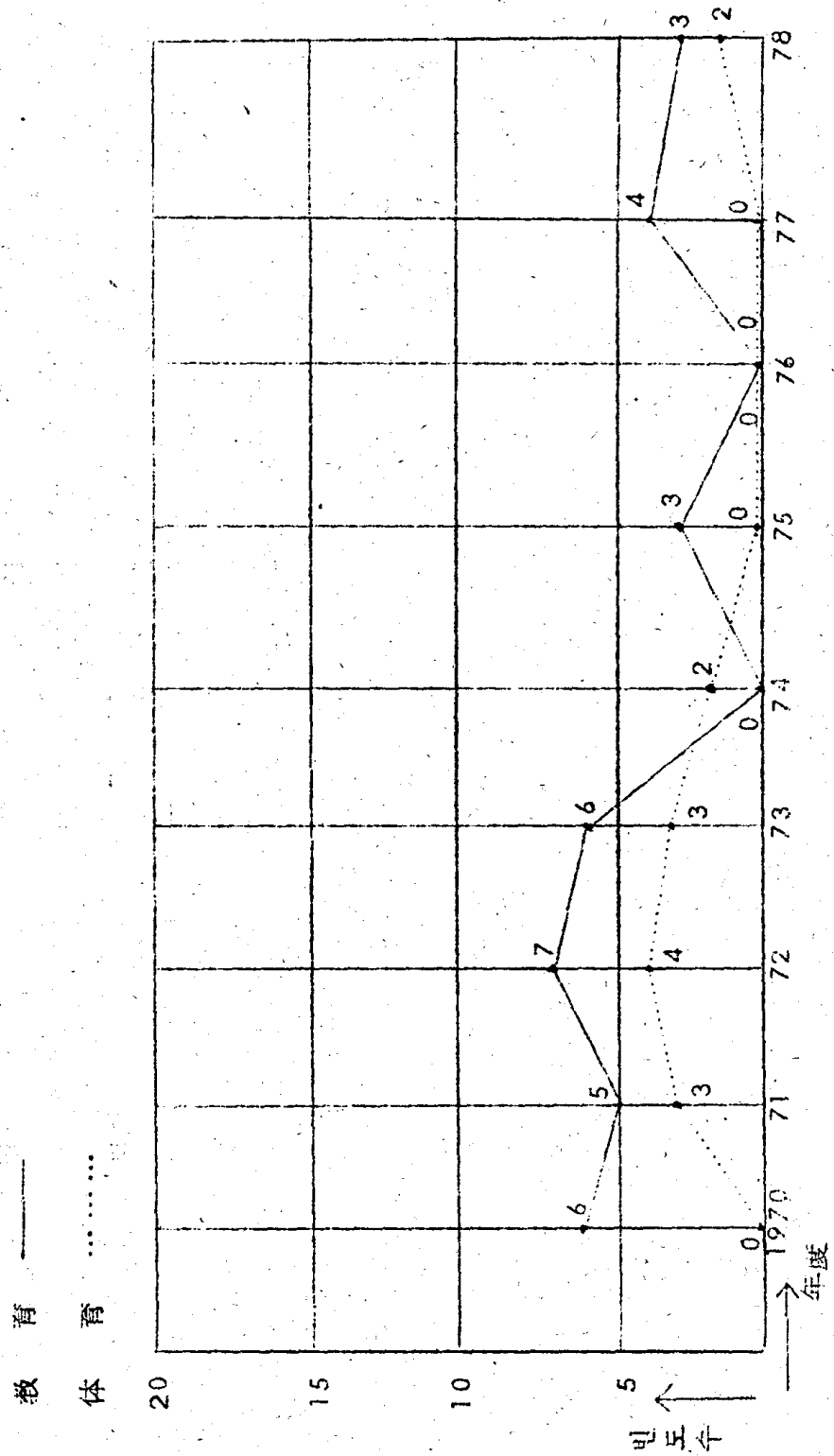
4) 教育, 体育關係

<表-9>, <表-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상했던대로
教育, 体育關係 기사에 대해서는 극히 低調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理由로서 筆者의 見解로는 北韓의 新聞들은 거의가 마르크스-
레닌主義思想이나 金日成의 演說文등에 많은 紙面을 割愛하고 있는
데 이것들이 곧 教科書的 役割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教育에
관해서 強調할 必要가 없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表-9>에서 보듯이 体育關係記事가 頻度面에서 最下位에 머물

<表 9>

教育, 体育에 관한 項目內容의 변화경향



<表 - 10>

主 題	年 度									
	70	71	72	73	74	75	76	77	78	
Ⅶ. 教育	敎育의 중요성 강조									
	4	3	3	3	-	2	-	4	3	
	교육사업 改善강화									
	2	2	4	3	-	1	-	-	-	
	6	5	7	6	-	3	-	4	3	
	敎育人 찬양 및 중요성									
	-	1	2	-	-	-	-	-	-	
Ⅷ. 体育	국제경기 참가									
	-	2	2	2	2	-	-	-	2	
	국제경기 비난									
	-	-	-	1	-	-	-	-	-	
	-	3	4	3	2	-	-	-	2	
	計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에서는 職場別 내지는 職場間의 體育를 상당히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體育關係기 사에 比重을 두지 않는 底意는 무엇일까? 筆者 나름대로 두가지 理由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는 모든 공산국가들이 그리 하듯이 北韓에서도 體育競技에 있어서 商業性을 排除하고 있다는 点이고, 그 두번째 理由는 西方世界에서는 體育記事가 娛樂記事 中에서 主宗을 이루고 있는데 北韓의 新聞들은 娛樂記事는 거의 取 扱하지 않는것이 慣例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 要約 및 結論

共産國家에 있어서 黨은 勞働者와 農民을 포함한 大衆을 代表하는 엘리트階層의 集團이다. 따라서 共産國家에 있어서는 少數 엘리트階層인 <새로운 類型의 政黨>이 大衆을 상대로 教育하고, 선전·선동하고, 그리고 說得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效果的인 理念的 武器가 곧 <새로운 類型의 新聞>으로서 모두가 黨의 機關紙的 기능을 遂行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金日成의 言論政策도 이 데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金日成選集에 收錄된 그의 言論思想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는 新聞을 敵과 싸우는 武器에 비유하면서 武器없이 軍人이 싸울 수 없듯이 黨은 新聞과 같이 銳利하고 전투적인 武器없이 성공적으로 싸울 수 없다고 強調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新聞을 敵과 싸우는데 있어서의 銃이나 칼과 같은 武器로 여긴 金日成은 解放이후 지난 30餘年동안 新聞을 통해 北韓住民들에게 宣傳하고 煽動하고 그리고 組織하는데 가장 有効한 政治的 武器로 利用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新聞을 自己의 政治的 종속물로 간주하고 최대한으로 利用하기 위해 新聞에 대한 強壓政策으로 一貫해 왔으며 마침내는 北韓社會를 그의 恐怖政治 속으로 몰아 넣을 수가 있었고 동시에 스탈린에 못지 않은 카리스마의 1人獨裁像을 北韓社會에 구축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北韓新聞의 報道性向의 分析結果에서도 나타

나. 있듯이 金日成의 偶像化관계기사가 그 頻度數에서 많은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는 點에서도 충분히 立証이 되었다고 본다.

또한 分析結果에 나타난 特異한 사실은 70年代初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國際体制의 多極化에 따라 國際社會에서 南韓을 고립시키고 그 대신 北韓을 국제적 地位에 浮刻시켜 불려고 對外關係宣傳에 인간 힘을 傾注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分析結果 頻度數에서는 海外關係記事數보다 뒤이지만 經濟關係기사에도 많은 比重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南韓이 눈부신 国力培養으로 국제社會에서 認定을 받게 되는데 크게 자극되어 취해진 措置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끝으로 <로동신문>뿐만 아니라 北韓의 모든 新聞들이 金日成의 偶像化, 海外關係 그리고 經濟關係記事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큰 比重을 둘 것이 豫想된다.

註

- 1) 마르크스는 1842年10월에 反政府的 <라인新聞 = Rheinische Zeitung>의 편집主筆로 就任해서 封建的 프로이센政府를 맹렬히 批判했다. 그러다가 1843年4월에 이 新聞은 政府의 彈壓으로 沒收되었다. 梁好民, 共產主義理論과 現實批判全書 第一卷, (서울: 内外文化社, 1964), pp.37-38.
- 2) 滝沢正樹,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 社会理論(東京: 新評論, 1976), p.67.
- 3) 金日成著作選集(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pp.390-391.
- 4) 배순재, 라두림, 신문리론, (東京: 在日本朝鮮言論出版人協會, 1967) p.6.
- 5) 崔諒鎬, 新聞研究 22号, 共產主義新聞의 理論的 系譜와 뉴스政策, (서울, 新聞研究所, 1975), p.158.
- 6) <正路>는 1945年11月1日 (조선공산당 北朝鮮分局)의 機關紙로서 金日成에 의해 직접 창간되었다.
- 7) 金日成著作選集(1), 前掲書, p.21.
- 8) 金日成著作選集(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303-304.

- 9) 小野秀雄 内外新聞史, (東京:日本新聞協會, 1970), p.149 에
서 再引用
- 10) Alex 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
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136.
- 11) Douglas Cater, The Fourth Branch of Govern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59), p.180.
- 12) 北韓에서는 이 <새날>은 1922년에 金日成이 <새날少年同
盟>을 조직하고 기관지로 發刊되었다고 주장하고 北韓共產主
義의 최초의 革命的 新聞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배순재, 라
두림, 前揭書, p. 8.
- 13) 上揭書, p.8.
- 14) F.S.Siebert, T.Peterson and W.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3), p.2.
- 15) 政治事典, (평양: 社会科学出版社, 1973), p.1, 202.
- 16) 国民防諜研究所, 北韓用語大百科, (서울: 甲子文化社, 1977),
p.812.
- 17) 여기서 말하는 新民黨은 1946年2月16日 獨立同盟의 간판을
갖고 入北한 延安派 (金料奉이 主軸) 勢力이 歸國해서 조직한

党이다.

- 18)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中),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4), pp.244-247.
- 19) <로동신문>, 1970年12月21日字
- 20) 月刊共産圈資料, (서울: 極東問題研究所, 1972年5号), pp.81-96.
- 21) Oliver Benson, Political Science Laboratory, (Ohio: Charles E. Merrill, 1960), pp.269-270.
- 22) H.D. Lasswell, Language of Politics, (The MIT Press, 1968), p.55.
- 23) <3大革命 붉은旗 爭取운동>은 1975年11月19日 <조선로동당 5期 11次 全員會議>에서 결성된 새로운 次元의 社會主義경쟁운동으로서 그해 12月1日 咸北 咸德광산에서의 노동자모임을 시점으로하여 單位職場別로 일어난 運動이다. 이 3大革命이란 思想, 技術, 文化革命을 뜻한다. 北韓研究所, 北韓問題解説, (서울: 北韓研究所, 1976), pp.94~95.
- 24) 1975年10月30日, 外務部, 盧信永次官의 聲明.
- 25) 李光宰, 北韓新聞의 大衆動員성에 관한 研究, (未發刊 博士論文, 1979), p.156.

IV. 北韓의 放送實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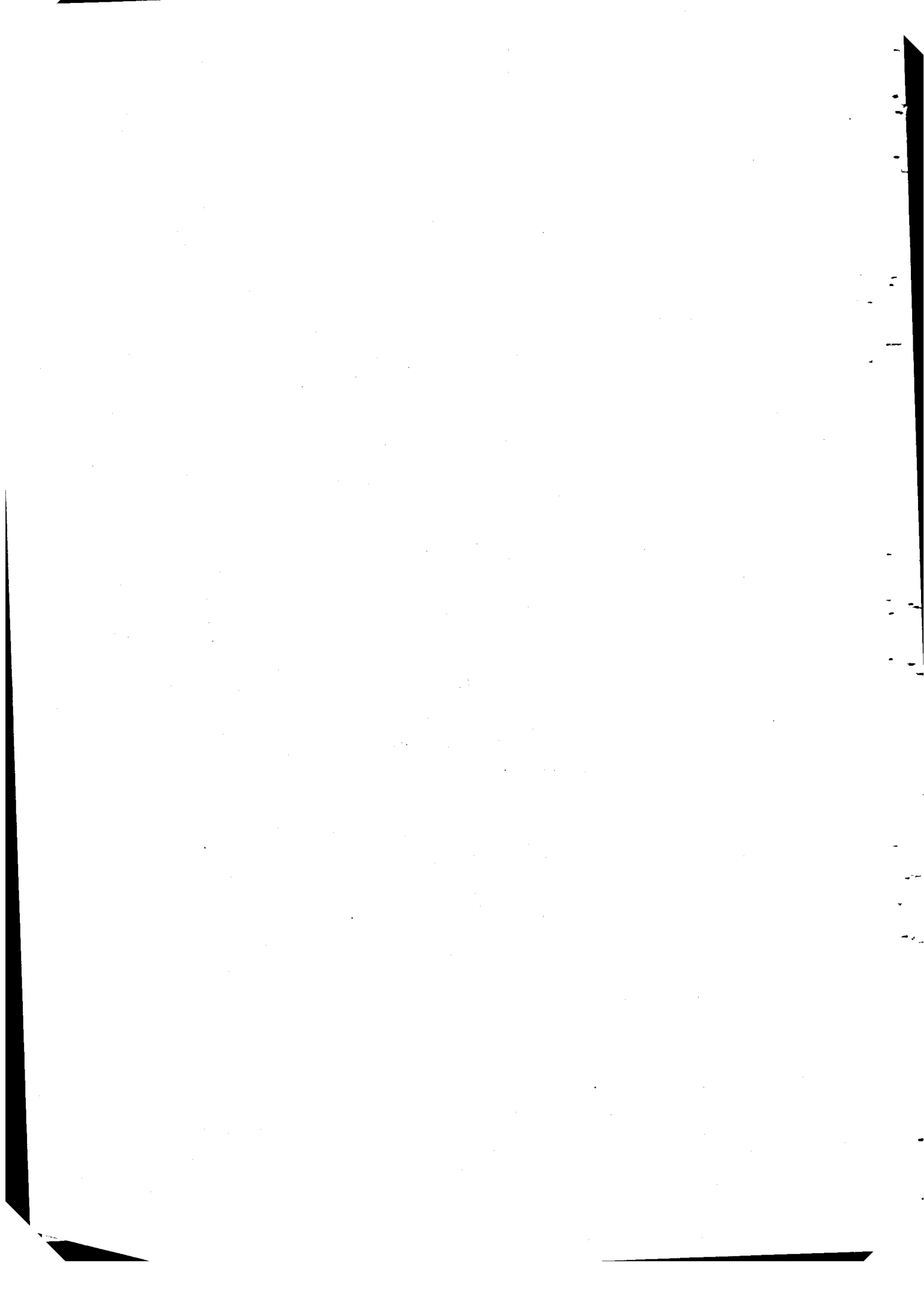
鄭 亨 壽

(略 歷)

- 서울대학교 文理大 史学科卒業
- 서울대학교 新聞大学院卒業
- 서울대학교大学院 新聞学科 博士学位過程 修了
- 서울대학교 講師
- (現) 東亞日報 研究委員

— 目 次 —

1. 序
2. 北韓에 있어서의 放送概念
3. 北韓放送의 機能과 役割
4. 北韓放送의 現況
5. 結 語



1. 序

共産主義 國家에서 매스 미디어를 선전·선동, 조직의 수단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교육수단으로 극히 중요시하고 있는것은 잘 알려져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共産主義 國家에서 放送은 「목소리」로 전달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신문, 잡지등 인쇄 미디어와 다름본이며 그밖에는 하등 다름것이 없다.

방송은 입, 눈, 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신문등 인쇄 미디어에 비해 柔軟性이 있으며 統制하기 쉽고 특히 라디오의 경우 인쇄 미디어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구석 구석의 주민들까지 커버할수 있으므로 방송은 일찍부터 극히 중요한 미디어로 간주되어 왔다.

방송을 선전·선동, 조직의 수단으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교육수단으로 생각한 최초의 한사람이 레닌 (Lenin)이다.

그는 1920년에 벌써 방송이란 『종이와 距離가 필요없는 新聞』¹⁾이라고 말하고 방송은 『모스크바에서 하는 연설이나 강연을 모스크바에서 수백 벨스타, 어떤 조건에서는 수천 벨스타 떨어진 共和國 내의 수백, 수천의 지방에 전달할수가 있으며 방송은 선전·선동, 특히 문맹대중에대한 선전·선동의 견지에서라도 강연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한것』²⁾이라고 주장했다. 레닌은 또 <通信人民委員部에 보내는 便紙>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방송의 중

요성은 대단한 것이며 방송사업에 대한 遲滯와 怠慢은 犯罪』³⁾라고까지 규정했다. 레닌은 이처럼 방송을 선전·선동, 조직의 수단으로 이해올로기의 교육수단으로 중요시하여 「니지니 노브코르드」無線通信所의 라디오 연구의 추진을 위해 10万루브르(金貨)를 예산의 임시지출을 승해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레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蘇聯은 1922년 9월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出力이 강한 방송인 12KW의 방송국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다.

北韓의 방송도 蘇聯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방송을 신문·잡지와 함께 선전·선동, 조직의 수단으로, 그리고 이해올로기의 교육수단으로 극히 중요시하여 蘇聯의 방송을 모델로 삼아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우리가 北韓의 방송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련의 방송이 어떻게 운용되어지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 北韓의 방송은 理論, 體系, 運用에서 蘇聯의 그것을 母胎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을 선전·선동, 조직, 교육할 수 있다고 믿고있으며 특히 레닌은 인간의 意識은 정치적으로 操作이 가능한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도 知的인 上部構造는 生産力의 발전과 階級秩序의 상태를 반영하는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했지만 古典的 理論에서 어떤 逸脫도 하고있지않다는 레닌의 否定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이점에서 자신을 마르크스와 분명히 구별했다.

레닌의 이와같은 思考에 기초하여 소련 공산당은 방송을 소비에

토사회에 있어서 대중의 교사, 안내자,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放送을 新聞과 마찬가지로의 役割을 遂行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여 新聞機構를 발전시켜 온 것과 똑 같은 方法으로 放送기구를 발전시켜 왔다. 소련은 放送의 철저한 집중관리를 위해 「全同盟 라디오 委員會(VRK)」를 조직했다. 소련의 放送은 조직뿐 아니라 운동도 黨의 要求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放送은 黨과 대중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리고 민중을 동원하는 伝導帶의 하나로 또 대중의 공산주의 교육의 道具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동맹라디오위원회는 형식적으로는 關係會議의 직접감독아래 두어 각료회의가 전동맹라디오 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이 위원회는 각료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黨이 전동맹라디오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고 이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지도하는 <決定>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또 黨은 이 위원회의 직원속에 많은 黨員을 배치하여 이 위원회가 黨과 政府의 指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4) 이 위원회에 들어가있는 黨員들에게는 이 위원회가 黨과 政府의 방침에서 조금이라도 逸脫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細胞에 보고하도록 임두지워져 있다. 소련 공산당은 放送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신문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전동맹라디오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절대적인 감독과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北韓이 소련의 전동맹라디오위원회를 본따서 만든 것이 <조선중앙

방송위원회>이거 이 위원회를 北滿의 <로동당>이 감독통제하고있음을 말한것도 없다. 그리고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위원회속에는 많은 것들이 배치되어있어 党의 지령에 따라 이 위원회가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시하도록 되어있다.

소련 공산당과 정부가 방송관계 종사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목표와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것은 소련 방송의 특징을 분명히 해주고있다. 5) ① 광범위한 인민대중에게 정치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식과 정치적 의식을 높일것 ② 대중의 문화적 교육을 확보하고 음악, 문학, 연극의 위대한 작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것 ③ 민중을 규합하여 党과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고 국가가 당면하고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사업을 달성할수 있도록 노동자대중을 동원할것 ④ 教育當局을 도와 민중의 일반적인 교육수준, 특히 건강, 위생, 기초과학, 생산기술영역의 수준을 높일것 ⑤ 민중에게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휴양을 할것.

한편 党의 철저한 통제아래에서 운영되고있는 전동맹라디오위원회는 党의 지침대로 방송을 운영하기위해 방송업무 종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해 놓고있다. 6)

『수백만의 청취자를 갖고 거대한 소련에서 정보가 전달되어 지지 않고 지역에 이르기까지 침투하고있는 소비에트의 라디오는 마르크스-레닌-스탈린의 가르침을 광범위한 대중에게 전달하여 노동자의 문화적·정치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을 매일 매일 노동자에게 알리며 전세계에 걸쳐 방해되고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진리를 전파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소비에트의 라디오는 커뮤니케이션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단일뿐 아니라 노동자의 정치적 발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방송은 불세비키의 진리에 넘친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투쟁하고있는 민중을 도와 소비에트의 힘과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최고로 강화하기 위한 영웅적 행동에 민중들을 소집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지배자의 관심은 정책을 국민의 의사에 적합시키는데에 있는것이 아니고 공산당이 확립한 정책을 국민이 지지하도록 여론을 형성하는데 관심이 있다. 7) 그렇기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방송뿐 아니라 모든 매스 미디어는 兎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중을 동원시키는 하나의 선전·선동의 도구에 불과할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소련에서는 스탈린 死後, “이데올로기의 解氷期”에 들어서면서 방송을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데올로기의 교육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文化生活用品”이라는 각도에서도 보고있는점을 간과해서는 안될것 같다.

소련에서는 현재 방송은 대체로 3가지의 文脈에서 언급되어지고있다. 8) 첫째는 이데올로기의 무기로서의 文脈으로 『선전·선동, 신문, 잡지, 라디오……』라고하는 계열이며, 두번째는 運輸通信으로서의 文脈으로 『육상수송, 해상수송, 철도, 전화, 라디오……』라고하는 계열이다. 세번째는 文化水準이라는 文脈으로 “문화생활용품”

의 하나인 爾欠消費財라고 보인 『자동차, 오토바이, 라디오, 텔레비, 냉장고, 악기, 카메라, 진공소제기, 세탁기……』의 제열에 포함시키고 있다. 소련에서 방송이 첫번째, 두번째의 文脈으로 표현되어진것은 戰後 최초의 荒大인 제 19차 당대회(1952년 10월)에서 이명 전후, 특히 스탈린 사후에 급속히 이같은 문맥에서 파악되기 시작할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방송은 이같은 첫번째, 두번째의 문맥에서 해석되어 질수있고 현상은 찾아 볼수가 없다. 北韓의 방송은 1920년 ~1930년대의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데올로기의 교육수단으로, 그리고 대중의 교사, 안내자, 지도자로서 봉사하고 있을뿐 이다.

2. 北韓에 있어서의 放送概念

北韓도 다른 共產主義 國家와 마찬가지로 蘇聯의 매스커뮤니케이션 哲學을 그들속 매스커뮤니케이션의 基本哲學으로 삼고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을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적으로 適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것이 創造的인 것이 아니고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北韓이 처한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약간 修正』한것에 불과한것처럼 金日成이 신문, 잡지, 방송등 매스 미디어에 대해 내린 『敎示』라는것도 그내용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레닌의 언론철학을 그대로 빌려와 北韓의 역사적·사회적 조건을 감안하여 적용

시키고 있는데 불과하다.

이같은 사실은 北韓에서 발행한 문헌에서 쉽게 찾아낼수가 있다. 北韓에서 발행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理論의 지침 이라고 할수있는 『신문리론』은 北韓에서 마르크스-레닌의 언론철학을 빌려와 적용시키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黨은 創建 첫날부터 新聞에 對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을 우리나라의 具體的 實情에 創造的으로 適用하면서 그것을 더욱 發展시켰다. 이 過程에서 우리나라에서는 科學으로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新聞理論이 더욱 完成되고 豐富化되었다. 이에 있어서 出版事業을 改善 強化하는데 對한 黨의 決定과 金日成의 一連의 敎示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新聞理論의 創造的 適用-發展에서 실로 기대한 意義를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 黨의 新聞은 마르크스-레닌主義 新聞理論으로서의 確固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黨의 믿음직한 思想的 기수로 服務하고 있다』⁹⁾

김일성은 1945년 12월에 벌써 레닌의 『신문은 집단적 선전자·집단적 선동자 일뿐만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이다.』라는 말을 인용, 『正路新聞(로동신문의 前身)』의 기구를 확장하고 『거기에 유능한 일군들을 파견하여 신문의를 높이며 그부수를 5만부까지 달하게 하는 동시에 日刊으로 하여야 할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신문이 집단적 선전자·조직자로 되게 하여야 한다.』¹⁰⁾고 말했다. 김일성은 그의 모든 사상적 기초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두고있음을 강조하기위해 레닌을 『전세계 근로자들의 수령이며 스승』이라고 말하고 『오늘 레닌의 학설은 우리조국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향도적 지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전체는 개인에 우선하므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統制는 전체를 統攝 (integration) 하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統攝의 목표는 黨이 設定하기 때문에 매스 미디어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黨과 政府의 理想的 武器로 전략 할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따라서 김일성의 주체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 理論이 있을수 없으며 그도 마르크스-레닌이나 스탈린의 言論哲學을 지침으로 삼을수밖에 없는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말할수 있다.

이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言論哲學을 기본으로 하고있는 北韓에서는 모든 매스 미디어가 선전·선동의 수단이고 이데올로기의 교육 수단이며 동시에 주민들을 동원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放送이란 「목소리」로 전달되어 진다는 의미에서 신문, 잡지등의 인쇄 미디어와 다를뿐이며 그밖의 차이점이란 찾아 볼수가 없다. 김일성은 新聞과 放送을 동열에 올려놓고 매스미디어를 「階級敎養」과 「共產主義 道德敎養」의 手段으로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우리는 신문, 잡지, 소설, 연극, 영화등 많은 교양수단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라디오, 신문, 잡지, 소설, 연극, 영화등 교양수단들의 역할을 높이며 계급교양과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진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에서 더큰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12)

그렇다고 北韓에서 방송이 電波미디어 라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니다. 北韓도 소련등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신문등 인쇄 미디어를 집중 통하고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방송을 통제 하면서 전파 미디어로써 방송만이 갖는 특성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부과하고 있다. 통일성은 방송을 『마이크는 중앙 인민의 목소리, 우리당의 목소리를 내보내는 데 바쳐져야 한다. 방송일꾼들은 우리당의 선전 역량의 주력부대의 하나이다.』라고 규정 하면서¹³⁾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시하여 『농촌마다 전등을 켜고 라디오를 들을수 있게해야 한다. 농촌마다 라디오를 들을수 있게 한다는 것은 곧 농촌에 정치 의식과 과학지식을 불문이요 음악, 그밖에 다른 문화예술을 일상적으로 보급하여 문화혁명의 임무를 빨리 실현할수있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¹⁴⁾

요컨대 北韓에 있어서의 방송이란 신문등 인쇄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당」이 설정한 高地를 점령하기 위한 선전·선동·조직 및 이데올로기의 教育手段에 불과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放送은 운명적으로 黨이 설정한 目標대로 北韓住民들을 동원하기 위해 「金日成의 목소리」, 「黨의 목소리」, 「政府의 목소리」를 北韓 땅방곡곡에 전달하는 道具일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상식의 영역에 속하는것 이지만 北韓에서는 모든 매스 미디어는 개인이 소유할수 없으며 放送은 國營放送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放送은 모든 매스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黨이나 政治權力을 비판할수 없게되어 있다.

北韓, 蘇聯을 비롯한 모든 共產主義 國家에서는 党的 統制가 徹底히 確立되어 있기 때문에 機能的으로도 地域的으로도 全体主義的인 統制가 完備되어 있고 모든 新聞, 雜誌가 機關紙·誌로 放送은 融會이고 그 責任者의 任免權도 党이 掌握하고 있다.

北韓에서 放送의 概念을 宣傳·煽動·組織 및 이데올로기의 教育手段으로, 党이 選定한 目標으로 北韓 住民을 動員하기 爲해 必要한 「목소리」를 傳達하는 道具로 規定하고 있는 以上 自由世界에서 重要視하고 있는 放送의 速報性과 뉴스의 客觀性은 있을 수가 없다.

勿論 共產主義 매스커뮤니케이션 理論에서도 速報性과 客觀性을 強調하고 있지만 뉴스의 概念 自体가 自由主義 理論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概念과 다를 수 밖에 없다.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 뉴스는 事件 그 自体가 아니고 宣傳·煽動·組織·教育 및 大衆의 動員에 必要한 사실과 共產主義의 社會化 過程에 意味있는 事項과 努力만이 뉴스임으로 이같은 사실, 意味있는 事項과 努力을 언제 報道하느냐는 것은 2次的인 것이며 따라서 速報性은 當然히 排除되어질 수 밖에 없다. 北韓에서는 速報性을 「時事性」이라고 부르고 時事性이란 『바로 오늘에 일어난 그리고 社會 政治的으로 가장 초미의 問題에 결부된 사건을 報道 傳達하려는 本性을 가르킨다』¹⁵⁾ 라고 說明하면서 『新聞(라디오)은 어디까지나 오늘에 일어난 사실과 事件을, 그것도 社會·政治的으로

가장 초미의 問題와 결부되어 있는 事實과 事件을 가지고 報道 傳達한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래서 이같은 北韓의 主張을 들으면 北韓에도 速報性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說明을 보면 速報性을 2次的인 것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비록 時事性을 띠고 있는 새로운 事實과 事件일 境遇 일지라도 環境과 條件에 따라 時期適切하게 報道 傳達되어야 新聞 (타디오)의 本來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¹⁶⁾

여기에서 『環境과 條件에 따라 時期適切하게』라는 말은 宣傳, 煽動, 組織, 教育 및 大衆의 動員에 가장 效果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타이밍을 指摘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또 北韓의 이와 같은 뉴스의 概念에서 客觀性이 問題가 되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共產主義의 마스커뮤니케이션 理論, 特히 北韓에서는 우리가 意味하고 있는 客觀的인 報道를 『客觀的인 報道의 미명아래 感世이션을 追求하고…… 브르조아독자들의 저급한 感覺的 快感을 자극 함으로써 사람들의 耳目을 社會 政治的인 問題로부터 興味꺼리에 돌릴려고 企圖하고 있다』¹⁷⁾고 비난하고 있으며 客觀的 報務란 『客觀的 現實 가운데서 정의와 真理를 發見하여 그를 主觀主義的으로가 아니라 마르크스-레닌主義的 立場에서 公평정대하게 報道하는 것』¹⁸⁾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이같은 說明은 『客觀的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充實하는 것』¹⁹⁾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 北韓에서의 이같은 뉴스概念에서 北韓의 新聞·放送에 대해 「正論性」과 「党性」이라는 것이 強力하게 要求되어지고 있다. 正論性이란 『모든 글(記事)에서 선명하게 表現되는 政治的 指向性이며 事實과 事件, 현상의 本質을 黨과 階級的 立場에서 예리하게 透視하는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正論性은 個別的 事實로부터 出發하여 一般화된 結論에 도달하며, 証明하고 確信하고 呼訴하며, 논박하고 격화하는데서 集中的으로 나타난다.』²⁰⁾ 고 한다. 正論性이란 간단히 말해 어떤 事實을 있는 그대로 報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事實에 宣傳, 煽動, 組織, 教育, 動員에 必要的 要素들을 加味하여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北韓에서는 正論性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는데 이같은 說明을 보면 正論性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例를 들어 어느 유원지에서 勤勞者들이 즐겁게 휴식하고 있다. 이때 첫 記者는 다만 勤勞者들의 幸福하고 명량한 모습과 웃음을 平面的으로 描写하는데 그쳤고 다른 두번째 記者는 이와 아울러 그 기저에 놓인 本質—即, 社會主義制度의 優越性을 正論적으로 分析, 一般화했다면 두번째 記者가 正論性이 있다.』²¹⁾

北韓의 新聞·放送에 대해 階級性과 党性이 要求되어지는 것도 매스 미디어가 黨의 道具인에서 必然적으로 비롯된다. 階級性이란 「프로레타리아 階級에 奉仕한다」는 것이며 党性이란 「黨의 路線과 政策을 宣傳하는데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北韓에

서는 『新聞은 黨의 수중에 掌握되어 黨의 指導 밑에 進當되는. 黨 事業의 構成部分을 이루고 있으며 黨의 路線과 政策을 解說, 宣傳 하고 그것의 貫徹에로 大衆을 組織 動員하는 것』²²⁾이기 때문에 『당적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것이 黨의 노선과 政策에서 主호도 離脫할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²³⁾고 주장하면서 「階級 性과 黨性」을 要求하고 있다.

이밖에 北韓의 放送의 概念속에는 「娛樂」의 概念이 없다. 우리는 放送의 機能으로 一般的으로 報道的 機能, 指導的 機能, 娛樂的 機能, 廣告的 機能을 들고 있으나 北韓에서는 娛樂的 機能이란 찾아볼 수 없다(勿論 廣告的 機能도 찾아볼 수 없지만). 放送의 機能 가운데 重要的 機能의 하나인 娛樂的 機能이란 청취자나 시청자에게 審美的인 快感을 주는 것, 즉, 즐거움이라는 정서적 反應을 일으켜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이며 結果적으로 청취자나 시청자를 즐겁게 만드는 것이지만²⁴⁾ 北韓을 비롯한 共產主義 國家의 放送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 理由는 『蘇聯의 演劇도 노래도 그것이 藝術的 形式으로 表現되어 있지만 역시 宣傳과 煽動』이라는 信念²⁵⁾이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에서는 1930年代 初에 『放送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은 政治的 目的을 가진 일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放送의 大部分은 音樂과 文學으로 짜여져 있으며 여기에도 政治的 方針의 強力한 指示가 存在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마르크스主義的 要素에 對해 黨的인 見解가 아닌 것이나…… 단순한 思考方式을 배제하는 것이 必要하

다』²⁶⁾ 라고 못박아 放送의 娛樂的인 機能을 배제시켰다. 北韓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娛樂를 부르조아의 저급한 感覺的 快感으로 보고있을 뿐 아니라 共產主義的인 人間을 만드는데 有害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또 放送을 對南宣傳의 有力한 手段으로 보고있다. 北韓에서는 印刷 미디어의 役割을 規定하면서 『全體 人民들을 南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對한 우리 黨의 方針으로 그 주구들을 反對하는 鬭爭에 捲어넣어야 한다』²⁷⁾ 는 等의 말을 별로 쓰고 있지 않으면서도 放送에 對해서는 그와 같은 말을 쓰고있는 것으로 보아 電派미디어가 갖는 時, 空的 無制約性을 對南宣傳에 積極 利用하려고 들고있다. 北韓이 金日成 唯一思想과 共產主義體制의 優越性을 宣傳함으로써 韓半島를 赤化統一 할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統一革命黨 목소리放送」이라는 유명방송이다. 勿論 平壤放送도 對南宣傳放送이지만 電波미디어의 長點을 善用한 統一革命黨 목소리放送은 北韓이 그들의 目的 達成을 위해 放送을 어떻게 利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証拠라고 할 수 있다.

3. 北韓放送의 機能과 役割

北韓放送의 概念을 金日成 偶像化政策을 宣傳하고 黨이 選정한 目標을 宣傳, 煽動하여 社會主義 建設을 爲해 北韓 人民들을 組織, 動員하는 手段이면서 同時에 共產主義體制의 優越性을 宣傳하고 對南, 對美 惡宣傳을 함으로써 韓半島를 赤化統一 할려는 道具로 規定하고 있는 以上 北韓의 放送의 機能과 役割은 이같은 概念속에서 限定되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北韓의 放送은 黨이 規定한 機能과 役割을 遂行하고 黨의 指導性을 強化하기 爲해 使用되어지고 있다. 北韓放送의 이같은 機能과 役割을 분명히 把握하기 爲해 黨과 政府가 放送에 對해 어떤 技能과 役割을 遂行하도록 要求하고 있는가를 北韓側 資料에서 直接 살펴보자.

(1) 『勞動黨 中央委員會, 人民共和國內閣』의 이름으로 1970年 10月 14日 北韓放送 開始 25周年을 맞아 『中央放送委員會 記者, 編輯員, 翻譯員, 放送員, 放送藝術人, 勞動者, 事務員들에게』라는 放送 從事者들에게 보내는 「祝賀文」이라는 것에서 放送에 對해 다음과 같은 要求를 하고 있다. 28)

(a) 『革命課業 遂行을 爲해 人民들을 고무충동하고 組織動員하기 爲하여 黨의 唯一思想體系로 더욱 철저히 武裝시키며 全社會를 革命化, 勞動階級化 하기 爲한 黨의 方針을 實現해야 한다.』

(b)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그 구현인 黨政策, 金日成의 革命鬪爭 歷史, 黨의 革命傳統을 放送을 통해 더욱 폭넓게 깊이있게 宣傳해야 한다.』

(c) 『브르조아思想, 修正主義思想을 비롯한 온갖 反黨, 反動的思想和 鬪爭하고 黨의 唯一思想을 보위해야 한다.』

(d)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을 하는데 있어서 黨의 方針을 貫철

할려는 勤勞者들의 革命的 대고조를 견지시키기 위해 鬪爭해야 한다』

(e) 『7 倅年 經濟計劃을 遂行하기 위해 勤勞者들을 繼續 고무하고 淸산리정신, 淸산리방법을 貫철하여 企業管理를 改善하고 더 많이 生産하도록 生産者 大衆을 積極 組織·勤員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f) 『放送部分에 내린 金日成의 敎示를 貫철하기 爲해 積極 努力해야 한다』

(2)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는 70年 10月 14日 放送節을 制定하는 政令을 發表하면서 北韓의 放送의 機能에 對해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29)

『放送은 勞動黨의 偉력한 宣傳手段의 하나로서 全体 人民들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철저히 武裝시키며 그들을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 建設을 위한 鬪爭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重要한 役割을 한다. 黨의 先鋒隊의 主力部隊의 하나인 放送部門 일꾼들은 金日成의 敎示를 높이 받들고 社會主義의 完全勝利와 朝鮮革命의 全國的 勝利를 앞당기기 위하여 共和國 北半의 政治, 經濟, 軍事的 威力를 튼튼히 다지며 南朝鮮 人民들의 反美救國鬪爭을 支持聲援하며 우리 革命의 國際的 연대성을 強化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위에서 引用한 北韓側 資料에서 보면 北韓放送의 機能과 役割은, △ 北韓의 住民들을 黨의 唯一思想으로 武裝시키기 위하여 北韓 住民들을 宣傳, 煽動, 組織, 勤員하고 社會主義 革命을 위해 黨의

方針을 宣傳하며, △ 金日成의 思想을 党的 政策과 같은 것으로 하여 金日成의 偶像化政策을 宣傳, 煽動하고 金日成의 思想을 教育시키며, △ 韓國을 비방하고 美國을 惡宣傳하는 對外宣傳의 機能을 遂行하며, △ 北韓 住民들을 社會主義 經濟建設, 國防建設이라는 미명아래 勞動을 하도록 動員을 強要하는 것이라고 要約할 수 있다.

이같은 北韓放送의 機能은 北韓放送의 放送開始 「25주년 記念報告會」의 「報告」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北韓放送開始 25周年 記念式에서 行한 當時의 朝鮮中央放送委員會 委員長 朱鎡玉은 北韓放送의 機能과 役割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0)

(a) 『人民大衆을 党的 唯一思想으로 튼튼히 武裝시키고 그들을 革命偉業의 實踐으로 組織, 動員하는 強力한 思想戰線의 武器이다.』

(b) 『金日成이 提示한 社會主義 革命과 社會主義 建設에 關한 党的 方針으로 人民들을 武裝시킴으로써 그들을 金日成의 手위에 團結시켰으며 党的 唯一思想인 金日成의 革命思想에 기초한 全社會의 강철같은 政治, 思想的 統一을 이룩하는데 기여했다.』

(c) 『兩朝鮮革命과 祖國統一에 對한 党的 方針을 널리 宣傳하여 兩朝鮮革命을 促進하는데 이바지했다.』

(d) 『党的 自主的인 對外政策을 폭넓게 宣傳하고 美帝의 侵略과 戰爭政策을 暴露, 譴타하며 世界의 革命的 人民들의 反美, 反帝鬭爭을 積極 성원함으로써 우리 革命의 國際的 연대성을 強化하는데 기여했다.』

(e)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그 구현인 党的 政策, 金日成의 革命

鬭爭歷史를 勤勞者들 속에 体系的으로 解說, 宣傳하며 勤勞者들을 敎養하여 党的 唯一思想體系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全社會의 革命化, 勤勞階級化를 促進하겠다.』

(f) 『階級敎養을 基本으로 하는 共產主義敎養과 社會主義的 愛國主義敎養을 展開하겠다.』

(g) 『放送을 通해 美帝의 兩朝鮮 強占, 日本軍國主義의 兩朝鮮 再侵略 企圖를 暴露하겠다.』

(h) 『放送戰線에서 党性, 勞動階級性과 人民性을 더 잘 구현하며 戰鬪性과 正論性을 極限 發揮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말, 우리가 부르는 하나의 노래가 人民들에게는 勝利와 勇氣를 안겨주는 威力한 武器로, 원수들에게는 죽음을 선고하는 무서운 爆彈이 되도록 하겠다.』

以上과 같은 內容의 報告는 30周年 記念報告會에서 한 朝鮮中央放送委員會 委員長 金時學의 「報告」 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고 있다. 31)

4. 北韓放送의 現況

1) 北韓放送의 沿革

北韓은 1945年 10月 14日 日帝時代부터 있던 平壤放送局의 施設을 갖고 金日成의 「조국개선환영 平壤市 群衆大會」를 中繼放送한 것을 北韓放送의 始作으로 잡고있다. 1927年 2月 16日 日帝는 社団法人 「京城放送局」이란 이름으로 出力 1kw, 호출부호 JODK로 韓半島에서 放送을 始作한 以來 1945年 解放이 될 때까지 北韓에는 平壤, 興, 清津, 海州, 元山等 5個所의 放送局이 있었는데³²⁾ 平壤放送局이 金日成의 歸國歡迎式을 中繼하면서 金日成의 소위 「조국개선연설」이라는 것을 中繼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의 演說을 中繼한 1945年 10月 14日을 記念, 이날을 기점으로 「朝鮮中央放送」을 開始했다고 宣傳하면서³²⁾ 政令으로 이날을 「放送節」로 制定하고 해마다 자기를 나름대로 공이 큰 放送關係 從事者를 뽑아 表彰하고 있다.

北韓의 放送은 앞서도 指摘한 것처럼 宣傳, 煽動, 組織, 勸員 및 共產主義 敎育의 手段으로 또는 道具로 重要視했지만 6.25 亂까지는 施設面에서 별다른 擴張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나마의 施設도 6.25 亂으로 모두 破壞되어 그 機能을 상실하고 말았다. 休戰後 北韓은 全住民들에게 戰後 復旧作業을 爲한 住民들의 勞力勸員을 効率的으로 遂行하고 宣傳, 煽動, 組織, 敎育等을 強

化하기 爲해 放送의 施設과 機能의 회복에 全力을 경주했다.

1955年 4月 9日 에는 放送施設 擴張計劃의 일환으로 蘇聯으로부터 援助를 받아 「朝鮮中央放送」의 出力을 150 kw로 強化했으며 그뒤 300 kw로 다시 強化시켰다.

또 1967年 12月 朝鮮中央放送을 「第1中央放送」(300 kw), 「第2中央放送」(500 kw)로 分離하여 第1中央放送은 对内放送, 第2放送은 對外 및 對南放送을 担当시켰다.

5年뒤인 1972年 11月 10日 午前 5時를 期해 「朝鮮中央第1放送」은 「朝鮮中央放送」으로, 「朝鮮中央第2放送」은 「平壤放送」으로 다시 改稱했다. 그리고 南北調節委員會 委員長會議에서 採択된 共同發表文에 따라 重要對南프로를 한때 中斷하기도 했다.

「朝鮮中央放送委員會」는 그 산하에 平壤, 清津, 咸興, 新義州, 사리원, 開城等地에 市·道放送委員會를 두고 平壤放送의 中繼放送 및 該當地方의 放送을 進行했다. 1957年 各 放送局의 施設整備과 技術改善이 이루어졌으며 放送의 質을 높이는 作業도 추진되어 사리원, 강계, 해산 放送局의 無線放送의 出力도 높였다.

또 有線放送 施設擴張에 注力하여 6.25 動亂以後 平壤市の 主要街路, 職場, 구락부 그리고 各 市·道·郡 所在地 및 「勞働者地區」, 「作業班」等에 有線放送 施設을 서둘렀다. 이처럼 有線放送의 施設擴張에 注力한 結果, 1975年 「朝鮮中央放送開始 30周年 記念式에서 『은 나라의 有線放送化가 實現되었다』³³⁾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擴張 되었다.

北韓의 TV放送은 1967年 4月 「朝鮮中央 TV放送局」으로 開局했다. 北韓은 「勞動黨 第4次 全党大會」(61. 9. 11)以後 7個年計劃의 일환으로 TV放送局을 建設하기로 하고 62年 平壤에 TV放送局 建設에 나서 63年 8月 15日까지 完工키로 했으나 1960年以後 繼續된 蘇聯으로 부터의 援助中斷과 技術援助의 부진으로 繼續 늦어졌는데 北韓이 親蘇路線으로 기울기 始作하자, 66年 8月以後 蘇聯으로부터 7個年計劃에 對한 援助가 再開되어 建設이 活潑해 잡으로써 69年에야 겨우 完工을 보게 되었다. 現在의 平壤 TV放送은 25 kw이다. 北韓은 이어 71年 4月 15日 對南宣傳用으로 建設한 開城 TV放送局을 開局했고 갈라 TV도 1974年 4月 15日부터 放映하기 始作했다 한다.³⁴⁾

北韓은 對南黑色宣傳을 위해 1970年 6月 15日부터 「統一革命號 목소리放送」을 放送하고 있다. 이 放送은 마치 韓國의 地下에서 電派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偽裝하고 있는 것이 特色인데 이 放送의 前身은 1967年 3月 15日에 放送을 始作한 北韓의 「南朝鮮 解放民主民族聯盟放送」이다.

한편 北韓의 中央放送委員會는 國際放送機構에 加入하고 國際的인 放送協調의 擴大, 라디오 TV프로의 向上과 技術의 改善等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 1957年 蘇聯, 체코, 몽고 등과 放送協調에 關한 協定을 締結했으며 東獨, 中共, 루마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과 放送資料 및 放送經驗의 相互交流協定 締結.

- △ 61年 기니放送과 相互協調에 關한 協定締結, 日本(電波뉴스社)과 報道, 文芸, 音樂等 放送資料 交換
- △ 63年 쿠바의 革命TV放送局과 TV 및 라디오放送 分野의 相互協定 締結.
- △ 64年 中共의 放送事業局과 라디오 및 TV相互協調協定을 締結.
- △ 67年 폴란드 라디오 및 TV委員會와 라디오 및 TV分野의 協調協定 締結
- △ 78年 파키스탄과 라디오, TV分野 相互協力協定 締結. 불가리아와 라디오分野 相互協調에 關한 議定書 調印.

2) 北韓의 放送体系

北韓의 放送은 黨과 政務院의 2元体系로 되어있으며 北韓의 放送은 表面上으로는 政務院 直屬의 「朝鮮中央放送委員會」의 指導에 의해 運營되고 있다. ³⁵⁾ 「朝鮮中央放送委員會」는 「黨·政務院의 指導 監督에 따라 北韓의 放送을 관장하고 있는 放送機關으로 同委員會의 委員長은 黨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同委員會는 組織, 편제상으로는 「政務院」에 속해 있지만 실지로 放送의 內容에 對해서는 黨 宣傳 煽動部와 連絡部의 指示, 統制를 받고있다. 따라서 北韓의 放送이 2元体系로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組織과 편제상으로는 「政務院」에 속해 있고 「政務院」의 「通信部」가 主管하여 各 放送局

의 施設, 機材의 管理 및 一般事務를 運營하고 있으나 放送의 內容, 放送局의 責任者에 對한 人事는 黨이 攬하고 있기 때문이다. 勞動新聞의 경우 黨機關紙로 黨이 新聞의 모든 것을 統制 管理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放送을 二元體系로 攬하고 있는 것은 放送을 黨이나 어느 組織의 機關放送으로 들수 없는 放送의 特質때문이며 이는 放送을 보다 効率的으로 集中 統制하기 爲해 構築해 놓은 制度라고 할 수 있다.

「朝鮮中央放送委員會」산하에는 各市·道放送委員會가 있고 그 밑에 郡·邑放送委員會가 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 有線放送中繼所가 있다. 放送局의 施設, 機材의 普及과 管理 및 事務的인 일을 担当하고 있는 通信部의 下部組織으로는 市·道通信局이 있고 그 밑에 郡通信所, 通信分所가 있다.

「朝鮮中央放送委員會」는 形式上으로는 放送의 일체의 內容을 統制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各 放送局이 放送하는 모든 것은 同委員會의 檢閱을 받는 것이어야 하며 放送局이란 同委員會가 檢閱한 內容을 단지 技術的으로 電波에 실어보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中央放送委員會의 檢閱이라는 것은 「勞動黨 宣傳煽動部, 組織部」에서 指示하는데로 하기 때문에 그 權限이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朝鮮中央放送委員會의 組織은 蘇聯의 「全同盟라디오委員會」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北韓의 資料에서는 朝鮮中央放送委員會의 機能과 役割에 對한 說明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北韓의 매스커뮤니케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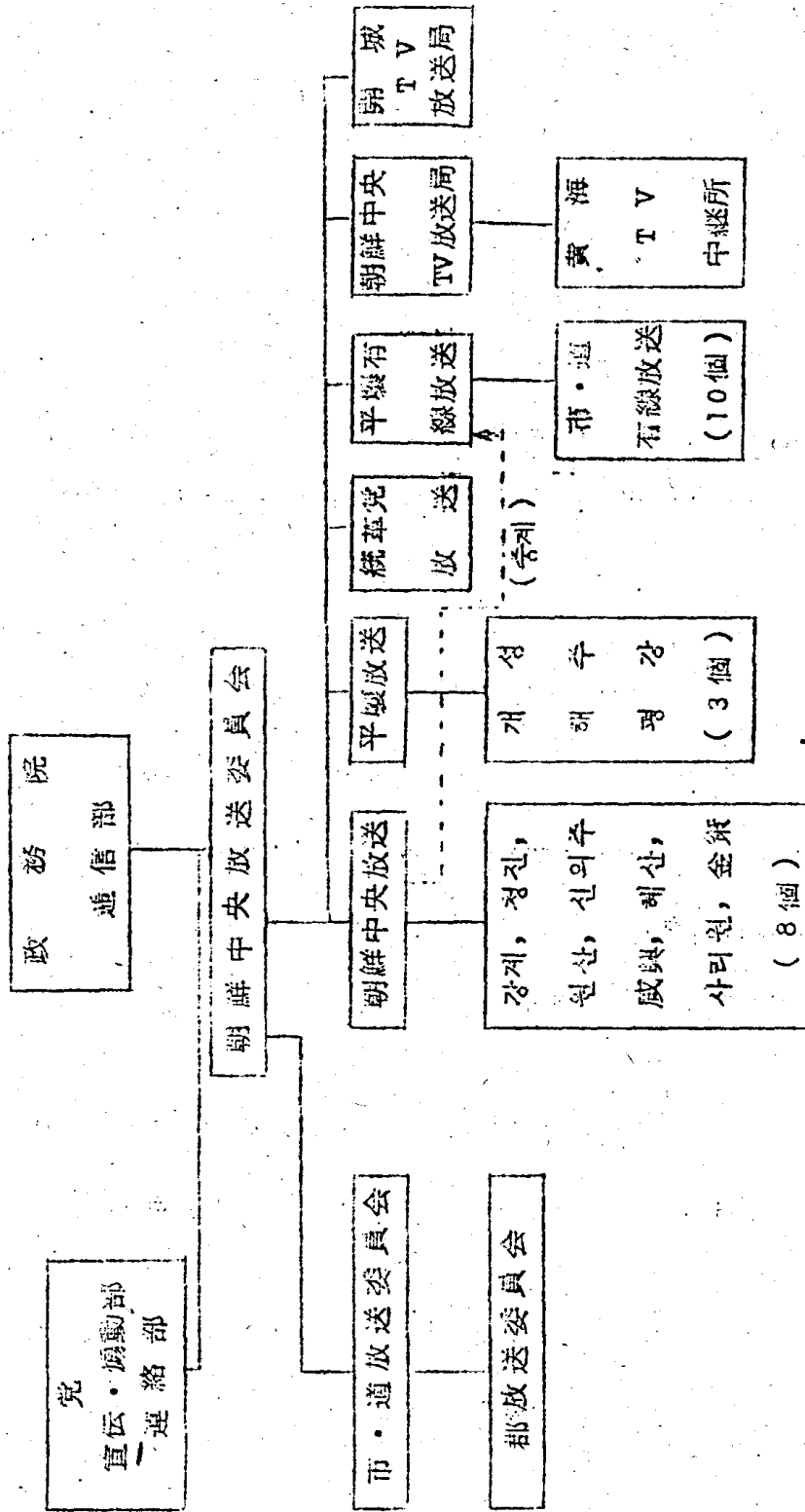
原理라는 것이 蘇聯의 그것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蘇聯의 全同盟라디오委員會가 어떤 機能과 役割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朝鮮中央放送委員會의 그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蘇聯에서는 (a) 黨은 全同盟라디오委員會의 活動을 비판하고 活動方針을 指導하는 決定을 내리게 되어있으며 (b) 黨은 全同盟라디오委員會의 統制와 責任을 갖는 지위에는 信賴할 수 있는 黨幹部를 두며 (c) 黨은 라디오委員會의 職員中에 많은 黨員을 두고 黨員은 黨規律에 따라 同委員會가 黨과 政府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監視하도록 한다. 만일 同委員會가 黨과 政府의 方針에서 조금이라도 離脫하면 黨細胞에게 報告해야 한다.

이처럼 黨에 依한 同委員會의 活動에 對해 絶對的인 監督과 統制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共產黨 中央委員會나 宣傳, 煽動部가 全同盟라디오委員會를 統制하고 있는 것처럼 地方의 라디오委員會는 地方의 黨組織이 監督한다. 36) 이와 같이 黨이 全同盟라디오委員會를 統制, 監督하고 있는 것은 黨의 목소리만을 放送을 통해 내보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의 全同盟라디오委員會의 權限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는 다음과 같은 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北韓의 「朝鮮中央放送委員會」의 存在도 아울러 說明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全同盟라디오委員會가 管理하고 있는 것은 實際에 있어서 放送 演奏室에 限定되어 있다. 37)

北韓放送의 2元体系



3) 北韓의 放送施設

(1) 라 디 오

現在 北韓의 라디오放送局은 中央局 2個, 地方局 10個, 有線放送局 1個, 特殊局 1個等 모두 17個의 短波放送과 25個의 中波放送을 運營하고 있다. 이밖에 17個 送信所, 20個의 中繼所가 있다. 38)

라디오 受信機는 約 2百萬台로 北韓 全人口의 3分の 2 정도가 라디오 受信機를 갖고 있는 셈인데 北韓 家庭에서 가장 흔한 것은 北韓製 4석짜리의 조잡한 것이며 國內의 中波放送만을 受信할 수 있다. 따라서 外部世界の 放送을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受信機는 20萬台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중에서도 兩韓放送을 들을 수 있는 受信機는 얼마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라디오 受信機는 1967년에 이르러서 겨우 30萬台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79年 現在 2百萬台로까지 늘어난 것은 상당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의 現在의 라디오 生産能力이 年 10萬台 정도밖에 많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67年度의 年生産 總台數가 10萬台에 불과했고 그뒤 73年の 오일속크等 北韓經濟의 파탄으로 生産施設을 그이상 擴張시키지 못했을 可能性이 크고 또 TV生産에 注力했다는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때 北韓의 라디오 수신기의 生産能力은 年 10

万台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마다 10万台 정도씩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1百50万台 정도일 것으로 추산할 수도 있다.

北韓에서는 1961年8月30日 南浦通信機械工場에서 11석짜리 라디오(천리마호)를 生産했다고 發表했으나 5석짜리 以上の 라디오는 社会安全部에 登録하도록 하여 철저한 統制를 하고 있으며 5석짜리 以上은 許可를 받은 一部 特殊層만이 所持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리고 한때 北送된 在日同胞들이 갖고간 트랜지스터, 日製 高級라디오는 모두 압수하고 北韓製 저급 라디오를 대신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의 現在의 라디오 總出力은 2千70kw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朝鮮中央放送」 300kw, 「平壤放送」 500kw, 有線放送이 600kw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有線放送局

北韓放送의 또 하나의 特質은 有線放送의 發達이다. 이는 蘇聯에서도 마찬가지로 共產主義 國家의 共通点이라고 할 수 있다. 有線放送은 蘇聯에서 처음에는 放送技術의 後進性, 라디오 수신기의 不足을 보완하는 面에서 利用되었으나 점차로 有線放送이 放送의 內容과 受信을 쉽게 統制할 수 있다는 政策的인 面을 重視, 有線放送을 積極的으로 普及하기에 이르렀다. 蘇聯에서는 定規 라디오 수신기에 비해 有線放送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利点이 있는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39))

(a) 有線放送은 經濟的이며

(b) 加入者들에 對해 個個의 라디오 수신기보다 보다 많은 수신을 可能하게 한다.

(c) 中繼所의 放送프로를 放送하기 쉬워 地方的인 性裕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送出하는데 利用하기 쉽다.

(d) 当局과 民衆을 連結하기가 쉽고 放送內容을 調節함으로써 라디오 청취를 完全히 統制할 수 있으며 同時에 적의 라디오 宣傳의 介入을 完全히 배제할 수 있다.

有線放送이란 우리처럼 라디오 수신기의 다이얼을 돌려 듣고 싶은 放送을 選擇的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放送局이나 放送中繼所의 有線으로 라디오를 直接 連結, 라디오 스위치를 넣으면 언제나 特定放送局이나 中繼所의 放送만을 듣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라디오 수신기의 製作도 간단하여 經濟的이며 当局이 의도하고 있는 放送內容을 더 많이 듣게 할 수 있으며 그 地域의 美情에 따른 內容을 많이 放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結果的으로 当局이 내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만을 내보낼수 있고 同時에 내보낸 메시지만을 듣게하여 수용자들을 完全히 統制할 수 있게 된다.

北韓도 이같은 有線放送의 長點을 利用하기 爲해 有線放送의 全國化를 서둘렀으며, 1975년에 全國의 有線放送化를 實現했다고 主張하고 있다. 現在 平壤에 있는 平壤 有線放送局이 地方中繼所를 통해 放送을 實施하고 있으며 有線放送은 9千255個所에 中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TV 放送

現在 北韓에는 20~25万台의 黑白TV受像機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韓에 있어서 TV視聽은 特權層以外는 公共機關이나 各 人民班(10~15家口)의 班長집에 設置해 놓은 TV를 共同으로 視聽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수상기가 제대로 供給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個人的으로 受像機를 購入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며 暗去來되는 受像機도 그 價格이 1千圓~1千5百圓이나 되어 一般 住民들은 購入이 事實상 不可能하다. 78年 現在 北韓 勞動者들의 平均 月給이 60圓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같은 收入으로서는 暗去來되는 TV受像機를 살수 없을 뿐만 아니라 月 視聽料도 15圓이나 되어 收入에 비해 비싸 個人이 受像機를 所有하기는 아직도 힘에 겨운 形便이다. 따라서 家庭普及率은 미미한 實情이다.

北韓의 TV受像機 生産過程을 보면 62年6月 民族保衛省 直屬의 軍事建設局에서 管轄하고 있는 兩浦通信機械工場에서 TV受像機를 처음으로 生産했으나 브라운管과 진공관은 蘇聯에서 收入한 것이었다. 65年2월에 들어와 軍事建設局에서 브라운管 生産을 위해 慈江道 興川에 電子管工場을 建設, TV受像機를 製作했으나 역시 主要部品을 外國에서 收入하였다. 北韓은 이처럼 技術不足으로 製品의 質이 좋지않자 68年2月 TV生産技術을 높이기 爲해 西獨의 Siemens 회사와 契約을 締結, 平壤에 브라운管 製作工場을 建設하는데 合意하여 西獨의 技術者 5名이 北韓에 와서 技術을 支援했다.

北韓은 外國技術者까지 招聘하여 TV製作에 힘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大量生産體系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受像機도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것과 같은 타입이 아니고 투박한 것이며 모양이 없다. 北韓의 主要 TV受像機 製作工場으로는 平壤TV工場, 南浦通信機械工場, 安州通信機械工場, 端川榮譽軍人工場 등이 있으며 이 4個工場以外 大洞江 TV受像機 造立工場을 建設中에 있다는 것이다. 40)

한편 北韓은 컬러 TV放送을 爲해 70年代初 日本의 NEC等 日本으로부터 컬러 TV에 関한 技術指導를 받았으며 73年9月 西独에서 컬러 TV録面車의 輸入交渉을 했고 日本에 對해서는 컬러 TV 스튜디오 施設의 輸入交渉을 벌렸다. 또 大量의 TV受像機를 輸入하기 爲해 73年10月 스웨덴으로부터 TV部分品の 輸入을 爲한 交渉을 벌렸고 日本으로부터는 TV受像機 5万台의 輸入交渉을 벌려 그 해 12月안으로 北韓에 運送해 주도록 했으며 11月에는 역시 日本으로부터 TV케이블線의 輸入을 要請했다. 이밖에도 같은 해 12月初, 프랑스로부터 TV受像機 5万台를 購入하고 交渉을 벌였으며 76년에는 蘇聯의 “일렉트론聯合企業所”에 “일렉트론216型” 受像機 2万台를 주문했다는 것이다. 41) 北韓의 TV放送은 平壤에서 放送되는 「朝鮮中央TV放送은 東歐式(OIET式)이며 「開城TV放送은 우리와 같은 US方式을 採択하고 있다. 北韓은 TV受像機의 不足으로 日本에서 北送된 在日同胞들이 갖고온 受像機는 淸수하여 上級黨員의 숙소, 公共機關, 호텔等に 備置했다. 北韓의 年 TV受像機 生産台數는 約 1万台경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北韓放送의 報道內容

마르크스-레닌主義 言論哲學을 基本으로 하고 있는 北韓에서 放送의 報道內容이란 自명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앞에서도 指摘한 것처럼 北韓의 放送이 共產主義 革命을 達成하기 爲해 勞動黨이 設定한 高地를 占領하기 위한 宣傳, 煽動, 組織 및 이데올로기의 教育手段 내지 道具에 불과하기 때문에 放送의 內容은 勞動黨이 設定한 目標으로 北韓 住民들을 動員하기 위한 「金日成의 목소리」, 「黨의 목소리」, 「政府의 목소리」를 담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放送의 內容을 主題別로 分類해 보면 △ 報導, △ 教養, △ 娛樂 등으로 分類할 수 있으나 報導, 教養, 娛樂의 그 어느 것에서도 共通되는 特徵은 다음의 6가지 범수에 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① 金日成 主体思想과 革命活動을 宣傳함으로써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것
- ② 黨과 政府의 政策을 宣傳하고 産業, 經濟部門 및 生産活動을 高취시켜 住民들을 生産活動으로 組織, 動員하는 것
- ③ 國內의 消息이라는 形式으로 金日成과 北韓의 地位를 상대적 으로 높이는 것
- ④ 音樂 및 드라마라는 形式으로 北韓 住民을 組織, 一體化하고 金日成을 偶像化하는 것

⑤ 共産主義 및 金日成思想을 解説, 宣傳하면서 資本主義를 비난하는 것

⑥ 對南誹謗을 通해 弱極的으로 韓半島를 赤化統一하고 그 手段의 하나로 對美·對日批難과 自由世界를 誹謗하여 韓國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는 것

共産主義 國家의 매스 미디어는 어느 共産國家를 莫論하고 그 나라의 政治現狀에 따라 여러가지 目的의 道具로 使用되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히 北韓은 對內政治的 統合의 目的과 함께 弱極的으로는 韓半島를 赤化統一하기 위해 對內放送에서도 對外宣傳의 目的을 遂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公공연히 부르짖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경우 對內放送과 對外放送을 嚴格하게 區別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北韓은 「勞動黨 規約」前文에서 「朝鮮勞動黨의 當面目的은 共和國 北半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범위에서 反帝, 反封建의 民主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우리나라에서 共産主義 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⁴²⁾고 規定하고 있을 정도로 北韓의 의도와 目的은 明白한데 北韓은 韓半島 全體를 共産主義로 統一하는 任務까지를 放送을 비롯한 全體 매스 미디어에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放送의 報道內容을 라디오와 TV別로 分類하는 것은 무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기에서는 北韓放送의 內容이 어떤 것인가를 보다 明確하게 알아보기 위해 對內放送인 「朝鮮中央放送」, 對外放送인 「平壤放送」, TV放送으로 나누고 對南黑色宣傳

放送인 「統一革命黨 목소리放送」도 별도로 나누어 考察해 볼려고 한다.

(a) 朝鮮中央放送

이 放送은 하루 22時間의 放送을 하고 있으며 形式上으로 이다. 放送의 뉴스

消息

△ 「産業部門記事」라는 이름의 프로로 産業, 經濟 各 部門
의 生産活動과 勞力競爭消息, 勤勞者들의 勞動愛護精神, 勞力勳員을
고취하는 記事

△ 「國際消息」이리

國家에

는 对内放送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報道는 「朝鮮中央通信」, 「勞動新聞」, 「民主朝鮮」, 「平壤新聞」, 「勞動青年」의 報道와 社說, 論評記事等을 出處를 밝히고 그대로 報道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自体의 것도 報道한다. 放送內容을 편의상 主題別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報 道

△ 金日成이 共產國 및 非同盟帝國의 元首들과 國慶日, 生日 등으로 수고받는 祝電 및 外國元首나 政黨, 社會團體 및 個人이 金日成에게 보내는 편지, 메시지

△ 金日成을 비롯한 黨 政權幹部들이 外國貴賓, 使節團 또는 言論人을 만나거나 歡迎會 開催 및 參席

△ 北韓의 各種 團體들의 聲明

△ 黨·社會團體 등의 各種 集會

△ 最高人民會議, 中央人民委員會의 政令 決定

△ 工場, 學校, 各種 團體의 金日成에 對한 稱성의 盟誓

△ 共產國家, 左傾非同盟國家 政府, 政黨, 社會團體, 個人의 韓 國 및 對美非難聲明과 그밖의 活動

△ 北韓, 西方 및 非同盟國家에서의 金日成 노작연구토론회

○ 關於 消息

- △ 捏造한 南韓消息
- △ 兇, 政府關係 高位幹部의 부고
- △ 國際機構 加入 및 外交成果
- △ PLO等 「民族解放組織」의 鬭爭消息

○ 解說 및 論說

- △ 金日成 主体思想 및 「노작」의 解說
- △ 黨政策 解說
- △ 美·日의 對韓國 및 外交政策 誹謗, 韓國의 모든 政策, 韓國의 住民生活等을 捏造 또는 歪曲解說
- △ 北韓의 統一方案 宣傳
- △ 勞動新聞, 民主朝鮮의 社說, 論評, 論說을 放送하고 自己放送 論評員의 論說, 論評을 放送

○ 教 養

- △ 共產主義 理論
- △ 資本主義의 矛盾
- △ 金日成 主体思想 및 金日成의 革命活動

△ 金日成 偶像化

○ 演 芸

△ 音樂~ 주로 革命歌謠, 器樂, 휘주악

△ 小說, 시낭독 및 만담~內容은 모두 金日成讚揚, 金日成의 빨치산活動 夸張선전, 對美, 對南誹謗, 韓國의 社会相 誹謗捏造, 日帝의 取奪

△ 革命歌劇~內容을 대체로 위의 같으나 특히 抗日鬪爭, 勞力動員, 6.25 때의 韓·美軍을 誹謗, 謀略, 잔인성을 夸張

○ 스포츠

△ 스포츠消息

○ 어린이時間

△ 學校生活, 體育活動, 課外活動 (모든 어린이에게 金日成의 革命思想을 고취하고 南韓 어린이들에 對한 歪曲宣傳)

○ 其 他

△ 北韓에 있는 家族들이 南韓 家族에게 보내는 捏造된 편지, 統一의 呼訴

△ 日氣豫報

(b) 平壤放送

平壤放送은 對南 및 對外放送을 專担하며, 勞動黨 連絡部의 監督을 받고 있다. 平壤放送은 對南共產主義 思想教育을 目的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 放送大學講座」와 「金日成放送通信大學講座」라는 2 個의 講座프로를 設置하여 放送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른 放

送과 다른 特徵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 放送大學講座는 高等教育省(現在는 教育委員會 高等教育部)의 主管아래 1962年 4月 10日에 開講, 마르크스主義 政治, 經濟, 哲學, 北韓憲法 解說, 朝鮮歷史, 勞動黨歷史, 北韓의 政治等의 科目을 講議하고 있다. 이 放送 講議는 『南半部의 勞動者, 農民, 青年學生들을 비롯한 全体 人民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며 先進科學과 真理를 探究할려는 그들의 熱望을 充足시켜주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理論과 北韓 勞動黨의 政策에 對한 体系的인 學習을 保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그들의 의도를 分明히 하면서 總長, 副總長, 敎務部長이라는 職責까지 두고는 이 放送大學을 体系的으로 마치면 北韓의 共產大學 1年半을 修了한 學生의 實力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宣傳하고 있다. 43) 平壤 放送은 1973年 4月 15日에 「金日成放送通信大學講座」를 다시 設置, 北韓의 優越性과 韓國의 諸般施策等을 非難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여 放送을 하면서 소위 「南朝鮮革命」을 위한 主力軍 編成, 統一戰線의 構築, 反革命勢力의 弱화等을 企圖하고 있다.

「平壤放送」은 또 韓國語와 英語, 露語, 프랑스語, 中國語, 日本語 등으로 東南아시아, 구라파, 南美洲, 中近東 및 아프리카, 日本(在日同胞를 爲한 放送도 包含)地域을 對象으로 北韓을 宣傳하고 있다.

「平壤放送」의 放送內容은 以上 열거한 것 以外는 「朝鮮中央放送」의 그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며 어떤 때는 「朝鮮中央放送」의 內容을 그대로 放送하거나 同時에 放送하고 있다.

(c) TV 放送

TV 放送은 平日에는 午後 6 時부터 11 時까지 5 時間, 日曜日
은 午前 10 時부터 12 時까지, 그리고 午後 4 時부터 11 時까지
放映하고 있으며 內容은 라디오의 그것과 같은 內容의 것을 放映
하고 있다. 69 年 開局以後 74 年까지는 全体프로의 50 %가 金
日成의 偶像化를 위한 宣傳映画였고 報道, 評論, 解說이 10 %, 科
学, 記錄映画가 10 %, 어린이, 女性프로가 30 % 정도로 放映되었으나
77 년에는 報道部門이 15 %, 科学 및 記錄映画 15 %, 어린이프로
10 %, 女性 및 家庭의 革命化를 主題로 한 프로가 10 %였다.⁴⁴⁾
北韓에서는 金日成 偶像化와 北韓의 社会主義 建設追進을 위한 映
画가 매일 한편씩 放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 「統一革命黨 목소리放送」

「統革黨 목소리放送」은 그들의 定規放送인 中央放送이나 「平壤放
送」과는 달리 「勞動黨 中央委員會 秘書局의 對兩事業部에서 直接 관
장·運營하고 있으며 이 放送의 送信所는 北韓의 黃海道 海州(東
經 125°42'17", 北緯 38°1'17")에 位置하고 있다. 北韓은 이
放送局이 兩韓地域안에 있으며 韓國地域內的 反政府 용공세력이 규
합하여 組織한 이른바 「統一革命黨」의 代辦放送이라고 強辯하고
있다. 北韓은 이같은 그들의 主張이 사실인 것처럼 論裝하기 위
해 放送語調도 그들의 호전적이고 戰鬪的인 語調를 使用하지 않고
韓國 社会에서 一般的으로 使用되어지고 있는 發音과 억양을 使用
하여 放送하고 있으며 北韓放送 그대로 放送하면서도 北韓放送을

引用해서 放送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

「統革黨 목소리放送」의 前身은 1967年3月 北韓의 平南 順安에서 開設한 「南朝鮮解放 民主民族聯盟放送」인데 1969年에 들어와 南韓에 「統一革命黨」이 結成되었다고 하면서 「南朝鮮解放 民主民族聯盟放送」의 이름을 「統一革命黨 목소리放送」으로 바꾸어 이 放送이 韓國內에서 放送하고 있는 것처럼 偽裝하고 있다. 「統革黨 목소리放送」은 開局時 中·短波 2個의 주파수를 갖고 하루 2時間씩 放送을 實施했으나, 1973年6月부터는 短波放送의 주파수를 1個 늘리고 6時間30分으로, 다시 1974年6月부터는 年 28時間으로 늘렸다가 75年12月부터는 다시 年 31時間으로 延長, 放送하고 있다.

이 放送은 73年에 들어와 英語放送을 30分間 追加시켰으며 75年부터는 1時間으로 늘려 駐韓美軍과 周邊의 英語使用國을 對象으로 北韓의 主張을 宣傳하고 있다. 또 北韓은 1975年12月 從來의 中波放送 出力 300 kw에서 1千500 kw로 增強, 어떤 國家도 國內放送의 出力은 500 kw를 넘지 못한다는 國際電氣通信聯合(I.T.U)의 規定을 完全히 無視하고 있다. 北韓은 1975年7月 17日 同 機構에 加入했으며 機構의 規定을 어기면서 까지 속임수를 쓰고있는 것이다. 北韓은 I.T.U에 登錄한 99個 주파수 속에는 「統革黨 목소리放送」의 주파수는 登錄하지 않았다.

「統革黨 목소리放送」의 內容은 午前 7時부터 30分間 朝鮮中央放送의 프로를 그대로 中繼하는 것을 비롯, 시종일관 韓國 非難,

金日成 讚揚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韓國에 對한 兪언비어 捏造, 駐韓美軍 撤収 主張, 韓國 社會의 混亂造成, 韓國의 國際的 孤立 등을 試圖하고 있다.

5. 結 語

北韓의 放送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体制와 機構를 갖고 北韓의 勞動黨이 設定한 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道具의 機能과 役割을 遂行하고 있으나 北韓의 放送이 金日成이 의도하고 있는 그대로 完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北韓放送 僑員들이 그들에게 부과된 業務를 해나가면서도 創意性과 熱意를 갖지 못하고 시키는대로, 마지못해 일을 해나가는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共產主義 社會의 共通點이라고 할 수 있지만 北韓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北韓에서는 이같은 현상을 「形式主義」, 「教條主義」, 「官僚主義」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思想事業에서 이를 없앨려고 오래동안 努力해오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形式主義와 教條主義, 官僚主義는 비단 放送關係 從業者들에게만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新聞, 通信, 雜誌等 모든 매스 미디어 從業者들에게는 勿論 宣傳煽動일꾼들에게조차도 共通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극히 주목할 만하다. 이에 對한 시정을 爲해 金日成이 直接 介入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金日成은 『우리의 宣傳事業은 많은 點에서 教條主義와 形式主義에 빠져있다』면서 『우리의 宣傳・煽動事業에서 남의 것만 좋다고 하고 우리 自體의 것을 소홀히 하는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⁴⁵⁾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일꾼들이 形式主義의 病에 단단히 걸려있기 때문에 일에서 걸치레만 하고

깊이 파고들지 않으며 한가지 問題를 알아도 똑똑하게 具體的으로 알지 않고 그저 걸만 밟고 있다』⁴⁶⁾고 指摘하고 있다. 金日成의 이같은 指摘은 黨의 強要에도 不拘하고 宣傳・煽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黨中央委員會 등에서 보내는 北韓放送開始 25 周年의 「祝賀文」도 放送要員들에게 다음과 같이 強要하고 있다.

『당신들의 課業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자면 우선 당신들 자신이 金日成의 革命思想과 그 具現인 黨의 政策을 깊이 研究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金日成의 革命鬪爭 歷史를 研究, 体得하기 爲한 革命傳統學習을 生活化하고 組織生活에 誠實히 參加하여 자신을 부단히 革革命化, 勞動階級化 함으로써 革命戰士가 되어야 한다.』

形式主義・教條主義・官僚主義를 없애야 한다는 金日成 등의 強力한 경고에도 不拘하고 그것들이 쉽게 일소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朝鮮中央放送委員會 委員長」 金時學의 「報告」⁴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金時學은 『既成慣禮와 在來式 方法等 形式主義의 낡은 틀을 없애고……』라는 말을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金日成이 宣傳事業에서 形式主義等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것이 1955年인데 20年이 지난 1975年에 있는 金時學의 「報告」⁴⁸⁾에 다시 形式主義 問題가 拳論되고 있는 것을 보면 北韓의 宣傳・煽動에서 形式主義, 教條主義, 官僚主義等이 없어지기는 영원히 不可能할 것 같다.

끝으로 放送에 對해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은 機能과 役割을

遂行하도록 強要하고 있는 北韓에서 放送이 黨이 設定한 共產主義 建設내지 統合에 주는 一般的인 効果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자. 北韓의 放送效果에 關한 資料가 없기 때문에 中共放送의 效果에 對해 言及한 文獻을 보면 放送이 갖는 物理的인 特性과 內容의 劃一性에 依해 民衆의 國家에 對한 帰屬意識은 어느 정도 높인 것이 確實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農村地域과 젊은층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같으나 農村地域의 放送으로 民衆이 近代의 내지 集團主義的인 方向으로 向하도록 動機지워졌는지는 中共當局의 主張에도 不拘하고 의문스럽다는 것이다.⁴⁹⁾ 알렌·류우(Alan Liu) 教授는 의문을 表示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로 사람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態度를 매스 미디어만으로 變容시켰다는 例가 없으며 人民公社의 라디오放送局이 그뒤 完全히 自취를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中共 政府가 農民들에게 어느 정도의 自治를 부여했다는 事實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共產主義 宣傳의 特徵이 國內에서는 對抗宣傳(counter-propaganda)이 없고 持續的인데서 強力한 效果를 갖기 때문에 이같은 前提가 무너지면 效果가 상쇄되어질 수 밖에 없다. 現在 蘇聯의 境遇를 보면 매스 미디어에 依한 統制의 效果가 北韓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強力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北韓의 對外宣傳에 對해서는 우리의 積極的인 對外弘報와 對抗宣傳으로 北韓의 意도를 封鎖해야 할 것같다.

註

- 1) 大衆社会と 社会主義社会, 辻村明, p.106.
- 2) 辻村明, 上掲書, p.107에서 再引用.
- 3) 辻村明, 上掲書, p.107에서 再引用.
- 4)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Alex Inkeles, 日訳版
辻村明訳, p.213~214.
- 5) Alex Inkeles, 上掲書, p.236.
- 6) Alex Inkeles, 上掲書, p.245.
- 7) The Soviet Citizen, Alex Inkeles and Raymond A. Bauer,
日訳版, 生田 正輝訳, p.186.
- 8) 大衆社会と 社会主義社会, p.108~109.
- 9) 「실문리론」, 배순재, 라두림, p.18.
- 10) 1945年12月17日에 열린 소위 「조선공산당 북조선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보고 「북조선공산
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가운데 「우리의 과업」의
세번째 문제에서 지적한 것임. 김일성 저작선집 1, p.21.
- 11) 「태년의 확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김일성 선집 1, p.237.
- 12) 「우리의 인민군대는 노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
적 정치적 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
집 3, p.497~504.
- 13) 「노동당 중앙위원회, 인민공화국 내각이 조선방송중앙위원회 기

- 자, 편집원, 번역원, 방송원, 방송예술인,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노동신문, 1970년 10월 15일자.
- 14)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전국시·군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 김일성 저작선집 2, p.255.
- 15) 「신문리론」, p.60.
- 16) 上掲書, p.60.
- 17) 上掲書, p.64~65.
- 18) 上掲書, p.64.
- 19) 大衆社会と 社会主義社会, p.104.
- 20) 「신문리론」, p.66.
- 21) 上掲書, p.67~68.
- 22) 上掲書, p.44.
- 23) 上掲書, p.44.
- 24) 「코뮤니케이션학 概論」(下), 車培根, p.1,270 방송에서 오락의 비중은 라디오가 전체 프로의 57%, TV가 66%를 담당, 방송이 오락적 기능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5) Alex Inkelet, 上掲書, p.238.
- 26) 上掲書, p.238.
- 27) 「축하문」, 「労働新聞」, 1970년 10월 15일자
- 28) 「労働新聞」, 1970년 10월 15일자

- 29) 「政令」, 「勞動新聞」, 1970年10月15日字, 北韓에서는 이 「政令」으로 해마다 10月14日을 「放送節」로 기념하고 있다. 北韓에서 이날을 「放送節」로 결정한것은 소위 金日成의 평양 입성을 환영하고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金日成의 연설을 처음으로 중계한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 30) 朱鉉玉의 「보고」, 「勞動新聞」, 1970年10月15日字.
- 31) 金時學의 「보고」, 「勞動新聞」, 1975年11月11日字.
- 32) 「文化 京郷社史」, 文化放送, 京郷新聞, p. 315 ~ 317.
- 33) 「朝鮮中央放送委員會 委員長」 金時學의 기념보고, 「勞動新聞」, 1975年11月11日字.
- 34) 北韓概要, 国土統一院, p. 185.
- 35) 「조선중앙연감」, 1972년도판, p. 350.
- 36) Alex Inkeles, 上掲書, p. 214.
- 37) Alex Inkeles, 上掲書, p. 211.
- 38) 北韓全書, (中卷), 極東問題研究所, p. 257.
- 39) Alex Inkeles, 上掲書, p. 226.
- 40) 「日通」, 1978年, 7月23日字, 「朝鮮中央放送」,
- 41)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李相斗, p. 277.
- 42) 「조선로동당 규약해설」, p. 26 ~ 29.
- 43) 北韓 「朝鮮中央通信」, 1962年, 4月4日.
- 44) 李相斗, 上掲書, p. 284.
- 45) 「思想事業에서 主体를 確立할데 대하여」, 金日成 著作選集, 1), p. 560 ~ 564.

47) 「당사업에서 形式主義와 官僚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革命化할

데 대하여」, 金日成 著作選集, 4, p. 404

48) 金時學의 「보고」, 「勞動新聞」, 1975年11月11日字.

49) [Communications and national Integration in Communist
China], Alan P. N. Liu, p. 128.

V. 北韓言論의 初期實相

金 昌 順

(略 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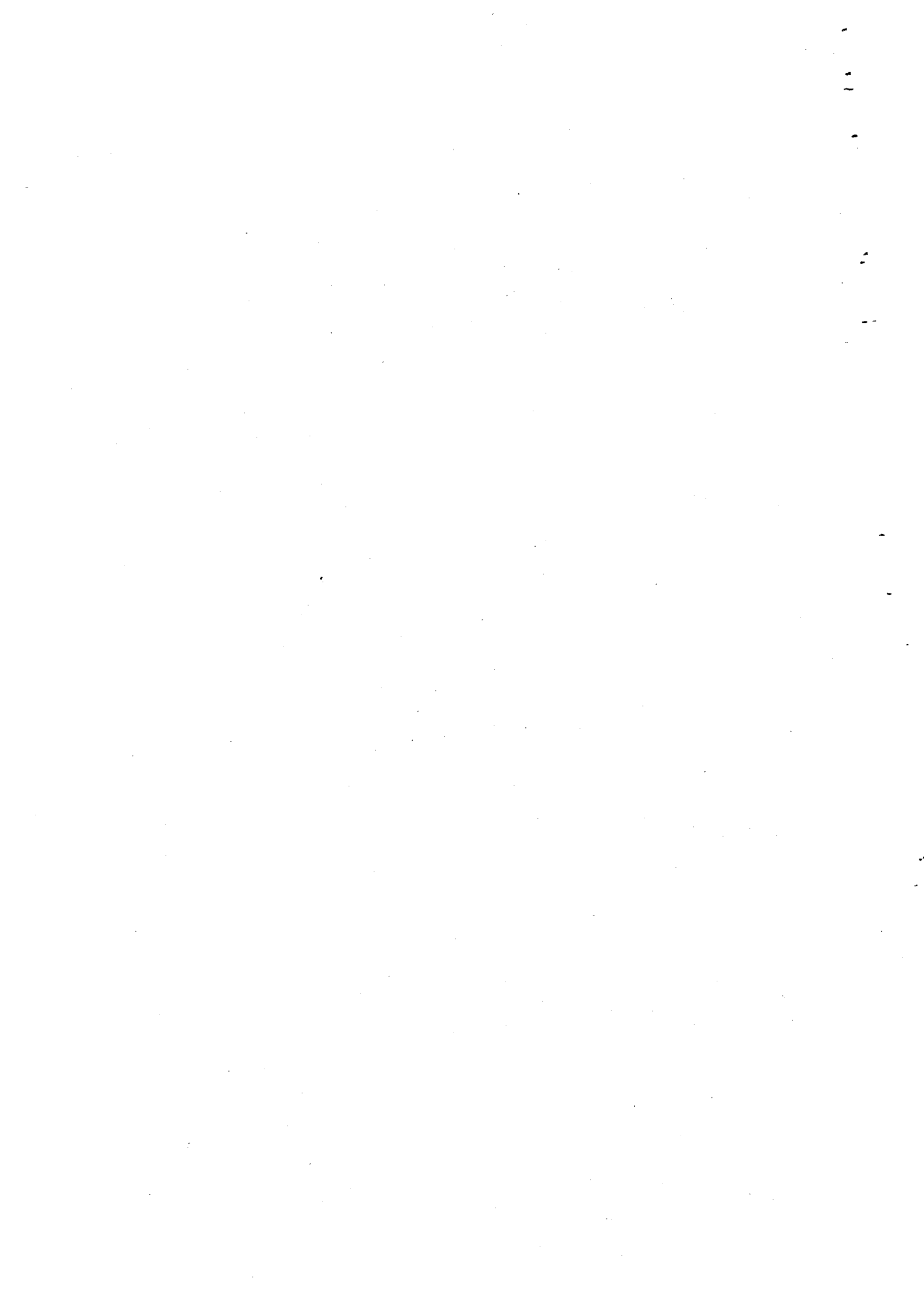
- 滿洲哈爾濱學院(國際大學)卒業
-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研究委員
- 北韓研究所 所長(現)
- 内外通信 理事長(現)

— 目 次 —

머 리 말

1. 北韓言論의 特性
2. 北韓言論의 初期樣相
3. 北韓의 初期言論과 越北言論人

맺 는 말



머 리 말

北韓言論은 廣義廣域的으로는 新聞, 通信, 放送 및 그밖의 定期, 不定期, 刊行物을 포함한 一般出版物까지를 同一範疇에 넣어서 論하는 것이 普遍的 方法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一次的 性格에 있어서 同一한 存在이기 때문이다. 곧 北韓의 新聞, 通信, 放送 및 그밖의 定期, 不定期, 刊行物을 포함한 一般出版物들은 黨의 宣傳 煽動 組織의 三大機能을 수행하는 道具인 限에 있어서 同一範疇에 속하며 어느 하나도 그 範疇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小論에서는 그 全部에 대한 初期 實相을 体系的으로 論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新聞만을 對象으로 하되 특히 印象的인 것 또는 아직 世上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골라서 되도록 記錄的 價値에 重點을 두고 論理 展開에 의한 接近方式은 피하고자 한다.

그 理由는 北韓의 初期言論에 관계했던 本人의 証言的 記述이 어찌면 더 흥미있고 값어치가 있다면 있을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1. 北韓言論의 特性

自由社會와 自由人의 言論概念을 가지고서는 北韓言論의 特性은 理解할 수 없다. 北韓言論은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그런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사람들의 알고자하는 需要와 알리는 供給法則에 의하여 成立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야 무엇을 알고자 하건 그것과는 관계없이 一方的으로 알린다. 同時에 그 以外의 것은 알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따라서 철저한 下向一辺倒의 官制言論인 것이다.

北韓言論은 北韓住民의 生活的 要求와 政治的 意思와는 관계없이 소비에트政權의 模造的 수립과 그의 維持를 위한 集團的 宣傳者 集團的 煽動者 集團的 組織者로써 發生했다. 따라서 個人이나 民間團體에 의하여 發刊되고 運營되는 雜紙, 通信, 放送은 하나도 없다.

北韓言論은 첫날부터 近本的으로는 蘇聯軍政에 의하여 통제되었고 蘇聯占領軍 철수 후 에는 黨에 의하여 장악되었다. 蘇聯軍政과 그 후의 黨獨裁는 言論機關의 獨占에 의하여 民主 民族勢力의 形成可能性을 분쇄하고 봉쇄하기 위하여 外部世界의 소식과 民間의 情報通路를 단절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外部世界의 否定的 事態發生과 自體內의 不條理現象은 一切 알리지 않았다.

自由言論에 있어서는 公衆의 情報需要에 의한 情報提供의 需要供給法則에 따라 事實報道와 速報性的의 兩大客觀性이 言論의 生命視되지만 北韓言論은 그렇지 않다. 客觀性 代身에 主觀的 党性을, 事實報道代身에 共產主義理論의 眞理性을, 速報性 대신에 共產主義的 교양의 能動性을 言論의 生命視한다.

北韓言論은 첫날부터 대중에게 政治的 影響을 미칠 目的으로 共產主義가 왜 眞理이며 金日成이 왜 指導者인가에 대한 구체적 政治教化 (Political indoctrination) 를 담당했다.

北韓言論은 첫날부터 蘇聯軍政의 布告文, 党的 決定書와 口號 및 金日成의 演說문 등을 大衆으로 하여금 絶對價值視하도록 의도적으로 解説하며 정책적으로 概念化시켰다.

北韓言論은 아직도 정치의식수준이 낮은 大衆을 간략하게 정리된 주장으로 되풀이 煽動하고 이를 支持케 하는 政治캠페인을 첫날부터 展開했다.

이 事實과 같이 北韓言論은 첫날부터 大衆宣傳, 大衆煽動, 大衆組織의 機能을 수행하고 있다. 北韓言論의 이같은 機能遂行은 統과 붓은 政權을 奪取하고 그것을 공고히하는 두개의 武器라는데 根拠를 두고 있다. 이 命題에 관한限 北韓言論은 마르크스보다도 레닌原則에 더 따르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옳을 줄 안다.

레닌은 1895年 가을에 齷察에 체포되어 4年間의 獄中生活과 시베리아流形을 치루고 1906年初에 석방되었는데 이때 그가 最初의 出殯을 무엇으로 始作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은 新聞과 黨을 創設

하는 일이었다. 그는 同年 12 월에 有名한 卍시킨의 詩句에서 「불꽃」이란 題号를 택하여 第 1 号를 發刊하였으며 그것이 오늘의 「푸라우다」前身인 「이스코라」이다. 「이스코라」第 1 号에 레닌은 다음과 같은 要旨의 論文을 실었다.

「歷史上 스스로의 政治的 指導者들을 前面에 내세우지 않고서 權力을 장악한 階級은 하나도 없다. 卽 運動을 指揮하고 組織할 수 있는 指導的 代表들을 前面에 내세우지 않고서 權力을 장악한 階級은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革命의 餘暇만이 아니라 全 生活을 바쳐서 이같은 人間을 養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北韓言論의 宣傳, 煽動, 組織의 三大機能은 淵原的으로는 마르크스主義에 基礎를 두고 있다 하겠으나 더 一般的이고 直接的으로는 레닌의 言論觀에 根拠하고 있다 할 것이다.

2.北韓言論의 初期樣相

初期에는 北韓社會의 모든 것이 그러했던 것 처럼 言論도 不可抗力的 蘇聯軍政의 엄격한 統制하에 스탈린主義의 膨脹政策에 服從하고 奉仕했다. 新聞, 放送, 通信 및 그밖의 定期, 不定期, 刊行物 할 것 없이 파쇼獨逸과 日帝打倒를 위해 號擲한 스탈린大元帥와 蘇聯人民의 役割 特히 소련붉은軍隊의 解放者의 役割에 대한 하늘과도 같이 높은 讚揚과 바다와도 같이 깊은 感謝表示로 紙面을 채우는 것이 普通이었다. 新聞을 비롯한 모든 出版物과 放送原稿들이 蘇聯軍政當局의 엄격한 檢閲을 거치는 關係로 蘇聯軍政의 利益에 부합되지 않는 言論은 根本적으로 許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當時 蘇聯軍政當局의 新聞, 出版物등 檢閲사령부에는 純韓國人으로서 는 金相午「海州道立病院醫師」가 있었고 蘇聯系 韓國人으로서는 金用秀등 몇명 있었다.

日帝時 各道庁所在地에 存在했던 日本人所有의 新聞社와 附設되었던「共同通信」施設 및 放送局 등은 8.15해방과 同時에 自然發生的인 各道自治機關에 接受되어 運營되었기 때문에 勿論 各道마다 事情이 꼭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일단 道自治機關의 所有로 되었다. 이 事實은 解放當時로서는 共產黨은 아직은 公式的 執權黨이 아니었기때문에 소련 占領軍의 戰利品化된 日帝時의 新聞社 放送局 등 言論文化施設이 當場은 共產黨의 獨占物로 되지 않았던 사정과 關係가 있다.

되었다. 이어 평양에 唯一通信社를 設置하여 通信供給의 一元化를 기하는 同時 몇개의 中央紙를 組織하고 이와 系統的인 地方紙를 두게 되었다. 이 方針은 종래 中央없이 各道單位로 發行하던 體制를 中央과 地方의 系統조직으로 整備하는 것이었다.

1946年 12月에 發足한 「北朝鮮通信社」는 완전히 따스通信의 機能을 모방한 것이다. 8.15直後 「서울人民報」관계자들인 金正道 韓暎, 李東柱등이 延安에서 온 朴茂 및 在北言論人 3人과 共同發起하고 日本時代の 平壤武德殿에 本社자리를 잡았다. 물론 党的 추진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同時的으로 同通信社는 各道支社를 設置했는데 支社長은 各道人民報責任主筆이 이를 兼하게 되었다. 「北朝鮮通信社」는 北傀政權의 直屬代辦機關으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各道政權의 機關紙인 各道人民報責任者가 「北朝鮮通信社」의 支社長을 兼하게 된 것이다. 當時 各道人民報社內에는 「北朝鮮通信」의 受信施設이 되어 있었고 極稀한 일이지는 했지만 支社에서 通信을 發行하기도 했다.

初創期的 「北朝鮮通信社」는 A.B版의 兩種通信과 月刊 時事誌「北朝鮮通信」을 發行했는데 A版은 一般 新聞社등 言論機關과 主要行政機關 및 党 團體들에 配布되었고 B版은 金日成을 비롯한 有力機關의 長에게만 배달되었다. 通信은 A.B版 모두 無料로 조직적 配布를 했고 時事誌「北朝鮮通信」은 有料로 一般 購読者에게 提供되었다. 그리고 「北朝鮮通信」은 1948年 12月「朝鮮中央通信」으로 改稱되었고 1949年版「朝鮮中央年鑑」을 最初로 發行했다.

新聞은 8.15解放 直後の 自然發生的 形態를 論外로 한다면 機關紙로서는 共產系의 平安南道黨 發行「烽火」가 처음이었다. 1945年 10月 中旬頃이다. 「烽火」는 同年 11月初 「朝鮮共產黨北朝鮮分局機關誌 「正路」에 吸收되었고 「正路」는 1946年 9月1日 「新民黨機關誌 「前進」과 통합하여 오늘의 「勞動新聞」으로 改題되었다. 이 조치는 1946년 8月末 「北朝鮮共產黨」과 「北朝鮮新民黨」이 合黨措置를 취한 것과 때를 같이 하는 것이다.

오늘날 北韓의 모든 文件들은 「勞動新聞」의 創刊일을 1945年 11月1日로 記錄하고 있고 또 金日成의 발기와 指導 밑에 創刊된 듯이 主張하지만 이것은 事實이 아니다. 11月1日이란 日字는 서울에 本部를 둔 「朝鮮共產黨의 北朝鮮分局」(평양설치) 機關誌 「正路」의 創刊日이며 이때의 同分局責任秘書(署理)는 金鎔範이었고 오늘의 北韓 金日成은 1945年 10月14日 平壤公設運動場에서 「金日成將軍」으로 잠간 선을 보였을뿐 아직 公職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金日成의 發起와 指導云云은 當時의 事情과 合致되지 않는다. 「勞動新聞」의 創刊日은 당연히 「正路」와 「前進」이 一対一의 統合措置에 의하여 「勞動新聞」으로 改題 發行된 1946年 9月1日이어야 옳다. 이렇게 따지면 北韓가 主張하는 「勞動新聞」의 紙齡과 創刊紀念日은 正當하지가 못하며 또 11月1日을 「勞動新聞」創刊日이기 때문에 「出版節」로 定한 北韓政令(1970年 12月 20日)도 正當치 못하다.

어쨌든 「正路」와 統合時의 「前進」責任者는 前東亞日報記者이며

評論家로 알려진 尹圭涉 一名 尹世平이다. 尹은 6.25 當時 「金日成大學」 교수로 되어 春香伝 등 古典文學을 강의하고 있다는 說이 있었지만 지금은 行方이 不明하다.

「前進」과 統合時의 「正路」責任者는 教育學을 專攻한 者로 一定의 教育背景을 가진 黨中央委員 太成洙이다. 太는 「勞動新聞」의 初代 責任主筆로 있다가 去勢되어 朝鮮으로 돌아갔다. 지금 中央아시아의 達志肯트에 사는 모양이다.

太成洙 責任主筆 밑에 副主筆에 任命된 者는 延安서 온 한글과 歷史 專攻인 黨中央檢査委員 柳文華이다. 柳文華는 1948年 5月 「民主朝鮮」 責任主筆에 任命되었다가 1953年 延安派最終숙청에 連累되어 行方이 不明하다.

太成洙 責任主筆 밑에 初代 편집부장은 朴八陽이다. 朴八陽은 日帝時 서울에서 이미 東亞 朝鮮 中央 등 三大紙의 社會部長을 지낸바 있으며 滿洲로 進出하여 「滿鮮日報」 間島總支社長 및 同社 取材部長을 거친 經歷의 者이며 金麗水란 詩人의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6.25 當時 「金日成大學」 교수로 轉補되었다는 說이 있으나 그후 소식이 不明하다.

「勞動新聞」은 첫날부터 蘇聯共產黨機關誌 「푸라우다」의 편집방침을 그대로 모방했다. 예컨대 國際面을 제 4面으로 돌려므로서 本紙로서는 最後面이 되었다. 이것은 「푸라우다」紙가 제 1차 5개년계획(1928~32)의 開始와 함께 國內의 生産活動에 重點이 돌려지고 國際뉴스는 제 1面에서 제 4面으로 돌린 결과 마찬가지

지로 그와 同一한 편집방침을 보인 것이다. 또 푸라우다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集團的 宣傳者, 煽動者, 組織者로서 黨과 政府要員에 대한 마르크스, 레닌主義教育 및 一般大衆의 動員수단이라는 사명을 一貫하여 遂行하면서도 그 內容은 時代와 함께 변하고 특히 레닌治下와 스탈린治下에서는 꺾으나 그 樣相을 달리하고 있듯이 「勞動新聞」도 소위 反帝反封建民主革命의 연합전선을 표방했던 6.25 以前과 또는 反對派속청과 社會主義制度를 完成했다고 하는 1950年代 그리고 1961년에 金日成一人體制를 確立하고 나서의 「勞動新聞」은 그 內容과 樣相이 많이 달라졌다. 더구나 지금은 소위 金日成主体思想으로 一色化되어 있는 사실과 对照할 때 今昔之感조차 없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勞動新聞」은 첫날부터 「푸라우다」의 본을 따서 소위 「勞動通信員」制度를 실시했다. 이 制度는 都市와 農村의 生産現場에서 일하는 勤勞者들 가운데서 通信員을 任命하고 그들로 하여금 生産現場에서 일어난 일 또는 자랑거리의 生活相을 써보내게 하는 조직이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制度는 「勞動新聞」만이 실시했고 「民主朝鮮」을 비롯한 其他 中央紙는 臧棄的 地方記者網에 의하여 地方記事가 確保되었다.

「勞動新聞」의 또하나의 特別性은 6.25 以前에 이미 「新聞郵送化」를 단행하고 讀者는 郵便에 의하여 新聞을 받아보게한 사실이다. 「民主朝鮮」등은 6.25 以後는 몰라도 그 以前까지는 오늘의 南韓社會와 마찬가지로 地方支局網을 통하여 신문배달과 구독보수금

을 했다.

이와같이 「勞動新聞」은 通信部를 통하여 読者群에 集團郵送하고 신문대금도 通信部를 통하여 수금하는 國營制를 취함으로써 일찍부터 民營形式을 멀리했다. 이같은 諸點은 다른 신문에 대하여 革新과 進歩를 指向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黨機關紙「勞動新聞」과 併行하여 政權機關紙로서는 「民主朝鮮」紙가 刊行되었다. 「民主朝鮮」은 「平壤民報」의 後身인바 「平壤民報」는 1945年 10月中旬 「平壤人民政治委員會」의 機關紙로 發足했다. 다시 말하면 曹晩植政權의 機關紙로 出發한 것이다. 이때의 責任者는 李東華(越南, 현재 서울)였는데 同年 11月末 金九등 臨政要人の 歸國을 보도했다는 理由로 소련軍政에 의해 停刊處分을 當했다. 그러나 「平壤民報」停刊의 眞實한 理由는 그같은 表面的 口實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曹晩植系의 李東華社長과 玄俊赫系의 金光鎮편집국장 許義純총무부장 등의 體制로 확고한 「平壤民報」를 그대로 두고서는 金日成一派의 主張을 代辯해줄 길이 막혔기 때문에 早期에 이 有力한 表現機關을 一次的으로 봉쇄한 다음 기회를 봐서 金日成一派에게 넘겨주려는데 있었다. 여기서 玄俊赫이라 함은 京城帝大出身으로 한때 大邱師範에서 교편을 잡은 일도 있다고 하며 8.15해방과 더불어 民族民主界 指導者 曹晩植을 擁護하여 民族·共産의 연합정권을 수립함에 있어, 共産側을 대표했던 사람이었고 金日成一派에 의하여 早期에 暗殺되었다.

「平壤民報」의 社屋 印刷施設은 日帝時의 「平壤每日新聞社」를 接收하여

사용했는데 소련軍政当局이 自己네가 사용하겠다고 매았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소련占領軍機關誌 「朝鮮新聞」을 한글로 발행했는데 아마도 1946年 2月頃부터이다. 同新聞의 편집장은 소련 육군大尉이며 詩人으로 행세하는 趙基天이었고 편집부원은 평양의 젊은 詩人들인 閔丙台 金朝奎와 러시아語에 能한 朴孝貞등이 있었으며 업무부장은 소련육군少佐인 崔某였다. 同新聞은 소련의 文物制度를 소개하는 한편 美蘇共同委의 상황을 비롯한 占領軍政의 이익을 변호했다. 異彩로운 것은 「푸라우다」등의 소련신문의 편집 형식을 벗어나 連載小説을 실었는데 醫師이며 純文學을 지향했던 평양의 崔明燾은 「麥嶺」을 발표하여 好評을 받았던 것이 특히 인상적이다.

1946年 2月 金日成을 首班으로 한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가 출현하게되자 당장 政權機關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平壤民報」를 「民主朝鮮」으로 改題하고 同年 6月初부터 발간하게 되었다. 社屋은 平壤駅前의 旧「丸屋」運送店자리를 사용하게 되었고 陣營도 바뀌었다. 서울에서 北上한 前카프同盟의 韓雪野가 責任主筆이 되었다가 黨文化人部長으로 轉出하게되자 日帝時 大衆文芸評論家로 알려진 前京城日報地方記者 韓曉가 臨時責任主筆이 되었다. 얼마 안되어 그가 「北朝鮮通信社(朴茂社長時代)主筆로 轉出하자 日帝時 平壤每日記者였던 韓載德이 責任主筆이 되었다. 그는 그동안 「平壤民報」에 「金日成將軍凱旋記」를 발표하여 「人間金日成將軍」을 同紙에 발표한 韓雪野와 變遷으로 한때 김일성의 총애

를 받게 된 사람이다. 1948年 9月 韓戰德은 北朝鮮通信社 國內情報部長으로 降職되어 갔고 그 後任에 黨文化人部 副部長인 延安系의 柳文華가 配置되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1950年代末 延安派除去때 자취를 감췄다. 「民主朝鮮」은 各道人民報社와는 관계없이 自體의 道支社를 두고 이를 통하여 地方取材 및 一般購讀者에 대한 有料配達을 했는데 黨機關紙「勞動新聞」과는 對照的인 保守性을 나타냈다.

「民主朝鮮」紙는 1947年 2月 北韓單獨政權이며 韓半島에 있어서의 所謂 첫 푸로레타리아政權形式으로 性格規定된 「北朝鮮人民會議常任委員會 및 北朝鮮人民委員會」機關紙로 되었고 1948年 9月에 는 北僑人共和國의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 및 內閣」機關紙로 되었다.

이밖에 所謂 友黨機關紙라는 「北朝鮮民主黨」의 「朝鮮民報」과 「北朝鮮青友黨」의 「開闢新聞」은 兩者 모두 1946年中에 創刊된 것으로 안다. 前者는 스스로의 印刷工場을 갖지 못하고 「民主朝鮮」紙의 印刷施設을 利用하는 등 불편한 생활을 하다가 6.25直前에 보잘것 없는 印刷工場을 차렸고 後者는 自體印刷施設을 가지고 간신히 平板機로 찍어냈다.

6.25前 「朝鮮民報」의 責任主筆은 京城帝大助敎와 前朝鮮日報調查部員이었던 李明新이었고 同時期 「開闢新聞」의 責任主筆은 左翼과는 관계없는 民族系 天道敎人인 金道賢이었다. 兩新聞은 創刊때부터 用紙配當의 差別實施 등으로 意凶的인 制限을 받아왔다. 勿論

國際問題의 論評은 一切 自作을 不許했고 오직 「소련 通信部」가 提供하는 국제 관계의 時論만을 게재했다. 運營은 各自의 道党 宣傳 部에 支局 技能을 부여하고 有料 販売를 實施했다.

이밖에 社会 团体의 日刊 機關紙로서는 「勞動者新聞」(北朝鮮 職業 總同盟), 「農民新聞」(北朝鮮 農民 總同盟), 「民主青年」(北朝鮮 民主 青年 同盟), 「關士新聞」(愛國 關士 後援會) 등이 대체로 1946~47 年中에 創刊 되었고 行政 部署의 日刊 機關紙로는 「交通新聞」(交通 省), 「조국보위」(민족보위성)가 역시 1946年~47年中에 創刊 되었으며, 이밖에 專新聞으로서는 「文化戰線」(北朝鮮 文芸總), 「教員 新聞」(教員 文化人 職業 同盟), 「朝鮮特報」(朝·蘇 文協), 「大學新聞」(金日成 大學), 「少年新聞」(教育省) 등이 역시 1946~47年中 創刊 되었다.

이보다 2,3年後인 1948~49年中에는 「祖國戰線」(祖國戰線 中央 委), 「旬刊消費組合」(北朝鮮 消費組合), 「民主赤十字」(北朝鮮 赤十 字) 등이 創刊 되었고 華僑新聞인 「民主華僑」도 나왔다.

6.25 以前의 北韓에는 唯一하게 新義州製紙工場만이 馬糞紙 비슷한 新聞用紙를 生産하고 있었는데 할론 그 數量도 얼마되지 않았 다. 後에 海州製紙工場에서 平紙用 新聞用紙를 生産하게 되었는데 수량은 보잘것이 없었다. 新義州製紙는 日帝時의 「王子製紙」이며 8.15 해방前에는 卷取紙生産을 하지않았다. 日帝時의 同社 韓人正 社員인 李勝三이 최초의 支配人이 되어 卷取紙生産에 成功하고 主로 「勞動新聞」과 「民主朝鮮」에 용지공급을 했다. 그러므로 6.25

以前에 그토록 많은 신문부수와 출판물을 도처에서 찍어냈다고하는 북한선전문건의 主張은 사실과 다르다.

北韓言論의 初創期樣相을 말함에 있어 또하나의 특징적 사실은 漢字音과 用語의 概念規定을 누가 最후적으로 有權 해석을 내렸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로 金枋奉이 담당했고 金日成은 이 領域에는 손을 내밀지 못했다. 신문기자들이 「勞動」을 「노동」으로 썼을때 그것을 「勞動」으로 고치도록 한 것도 金枋奉이고, 또 「李承晩」을 「이승만」으로 썼을때 그것을 「리승만」으로 고치도록한 것도 金枋奉이다. 또는 어떤 記者가 「挑」字는 본래 「도」니까 발음규칙상 「조」로 써야 옳지않겠느냐고 역습했더니 「挑戰」은 무조건 「도전」이라고 쓰라는 분부였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金枋奉이 全權에 속하는 것이었다. 金日成은 金枋奉의 言語學에 모든 것을 내맡긴 상태였다. 金枋奉은 北韓에서 언어학박사학위 제1호를 받았다.

또 8.15 해방 직후에 北韓에서 한창 유행했던 「新民主主義」, 「前進的民主主義」, 「資產階級性民主主義」등등에 대한 有權 해석도 소련서 온 사람들은 처음에 입을 열지 못하고 金枋奉의 해석에 맡겨 버리다싶이 했다. 그러나 1947年부터 소련派理論政策家로

알려진 朴昌玉이 「中央党宣傳煽動部長의 實力者로 登場하면 서부터 소련式 用語가 中共式 用語를 하나씩 물리치는 時代가 왔다. 곧 「新形態의 民主主義」, 「人民民主主義」 등으로 같은 概念의 用語이지만 새롭게 登場하게 되었다. 그러나 8.15 해방후 北韓言論에 汎濫하게된 「堅決」, 「提起」, 「鞏固」, 「提綱」, 「爭取」, 「同志」 「互相」 등등의 中國語 그대로의 用語는 물러가지 않았다. 어젯돈 金料翰이 北韓에서 언어학박사 제1호의 학위를 받은 것은 그가 단지 周時徑의 首弟子였다는데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끝으로 各紙의 印刷施設에 대하여 한마디 証言해 두고자 한다. 평양은 서울과는 달라서 8.15 해방이 되자 한글活字를 維持하고 있었던 印刷所가 없었다. 그리하여 서울에 올라와서 字母라면 이것 저것 가리지않고 닥치는대로 모아다가 썼기 때문에 活字가 不一齊하여 紙面이 알락달락하게 보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1947年 後半부터 「勞動新聞社」에 종합공장이 附設되고 여기서 字母를 비롯한 모든 印刷機材를 開發하게 되었다.

3. 北韓의 初期言論과 越北言論人

北韓言論의 初期實相을 말함에 있어 그때의 越北言論人の 印象的 動向을 몇가지 記錄으로 남기는 것도 전혀 의미없는 일은 아닐지 모른다.

南으로부터의 言論人の 北上은 1945 ~ 6年 中과 1948 年中의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1945 ~ 6年中에는 出生地가 北江原道라는 民村 李箕永과 고향이 咸鏡南道라는 韓雪野, 韓曉 및 黃海道라는 崔象德, 安畝 등을 비롯하여 南韓人인 金正道, 李東柱, 鄭憲 등이 北上했다.

李箕永은 당시 北江原道臨時政治委員會 教育部長으로 推戴되었다가 소련軍政当局의 召喚에 의하여 평양에 와서 소위 「朝鮮文化協會」 委員長이 되었고 韓雪野는 「民主朝鮮」紙의 責任主筆이 되었다. 韓曉는 韓曉野가 黨文化人部長으로 派出함에 따라 「民主朝鮮」紙 臨時責任主筆에 就任했다가 「北朝鮮中央通信」의 主筆로 派出했고 다시 「斗士新聞」의 責任主筆이 되어 6.25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崔象德은 海州에서 發行되는 「黃海人民報」의 責任者로 있다가 安重根義士를 讚揚하는 글을 실었다고하여 단단히 꾸지람을 듣고 일찌감치 서울로 도망갔다. 當時 崔象德에 대한 정책은 테러리스트에 不適當한 安重根을 무엇때문에 人民的 機關에서 찬양할 必要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때의 北韓共產集團의 安重根 評價는 바로

그러한 것이다.

安含光은 韓雪野 밑에서 「民主朝鮮」紙 편집국장이 되었다가 곧 「北朝鮮文芸總」書記長으로 転出했다. 그는 「民族文學論」이란 內容이 어려운 評論을 發表했는데 그 論文에서 民族意識을 자주 강조한 것이 問題가 되어 6個月 동안 執筆停止의 停權處分을 당하기도 했다.

金正道는 安含光의 뒤를 이어 「民主朝鮮」紙 편집국장이 되었으며 한때는 「北朝鮮中央通信社」의 發起人 名單에도 올랐는데 그의 出世는 아버지가 革命家이기 때문이라는 說이 있었다.

李東柱는 南韓에서는 詩人으로 알려진 者인데 평양에 와서는 「北朝鮮通信社」의 發起人으로 잠시 存在를 나타냈을뿐 別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鄭憲은 서울에서는 金正道와 함께 「서울人民報」에서 편집동료로 活動한 모양이고 평양에 와서는 「民主朝鮮」紙 記者로 있다가 후에 「平北人民報」記者로 가버렸다.

1948年中에는 소위 남북정치협상 또는 海州人民代表者大會를 계기로 하여 金午星, 李相吳, 高景欽, 金武森, 安懷南, 尹逸模 등이 北上했다.

金午星은 고향이 平安北道이며 그밖의 者는 모두 南韓人이었는데 金午星은 「勤勞人民黨」宣傳部長의 經歷에 의하여 北倭人共和國의 宣傳省副相이 되었고 李相吳도 일단 「貫錄」이 인정되어 同宣傳省宣傳局長이 되었다.

高景欽은 1920年代末서부터 1930年代前半에 걸쳐 이미 共產主義者

로 有名했고 특히 法廷에서 一時間동안의 轉向演說을 한 사실을 가지고 有名하거나 呂運亨 被擧時에 같은 車에 타고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에 自他共認하는 出衆한 論客의 대우를 받았다. 「民主朝鮮」社에는 아직 그런 職制는 없었던 論說委員室을 붙여붙여 만들어서 그에게 提供했다. 그러나 高는 날이 감에 따라 氣가 죽었다. 그가 담당하는 週 1回的 全 4 단짜리 「南朝鮮情勢」論은 단 한번도 그대로 통과한적이 없었다. 두 서너차례의 改作을 요구당하는 것은 보통이고 甚하면 7,8회에 걸쳐 改作을 요구당했다. 高의 筆力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의 고민을 잘 알수 있었다. 高는 南韓에 살때는 苦境조차도 못한 카바이트化學酒를 들이마셨다. 高는 마침내 退妓이며 지난날에 民謠歌手로 이름 높았던 鮮于一扇의 집인 朝陽旅館에 투숙하면서 情까지 통하는 생활로 「云落」하게 되었다. 이것이 問題視되어 그는 창피하게도 職美同盟會議(全職員會議)에서 소위 自我批判를 하기도 했다.

金武森은 兩韓에서는 아마도 洪命燾黨의 宣傳部副部長이었을 것이다. 그는 入北하여 「民主朝鮮」紙 편집부국장이 되었는데 食客신세를 그대로 나타내어 하루종일 붓글씨를 쓰는 것이 그의 日課였다. 때로는 鉉石學에 대하여 「一家見」을 펴기도 했는데 아마도 그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광산에도 달아다닌 經歷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安讓南은 作家로서 이름있는 사람인데 入北과 더불어 「民主朝鮮」

의 文芸部長이 되었다. 그의 肥大症과 과묵이 말하여 주듯이 민
첩하지 못하고 無能하기로 有名해졌다. 作品도 쓰지 못하고 食客
으로 소일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다.

尹逸模는 8.15 해방이 되자 서울에서 잡지 「新天地」記者였고 평
양에는 取材次 한두번 따라간 경험이 있다. 그는 최종적으로 入
北하여 「民主朝鮮」國際部論說記者가 되었는데 주로 「南朝鮮情勢」
欄을 메우는 일을 보았다. 筆力도 시원치 않고 理論도 변변치
않았으나 對人관계가 無難했다고 할런지 그럭저럭 살아가는 형편이
었다.

이밖에 서울에서 「勤勞人民黨」의 宣傳部 副部長으로 있었던 키가
자그마하고 一見 40代 中年가량의 金某가 「民主朝鮮」편집국장이
되었는데 勿論 형식적 존재에 不遑했고 실질적으로는 편집국 부국
장인 金昌柱가 맡아 보았다.

이상 越北言論人の 초기동향을 기억나는대로 기록했는데 한가지 설
명을 가해두어야 할 것은 越北言論人の 거의 모두가 政權機關誌「民主
朝鮮」에 集中的으로 配置되었다는 사실이다. 勿論 金午星 李相昊
등 政權機關의 宣傳부에 配置된 者도 있기는 했지만 그 이유는 첫
째로 「勞動新聞」같은데는 들여놓아도 모든 생활에 따라갈 수 없었
거니와 根本적으로 喋어놓지도 않으려는 方針에 의한 것이었다. 또 소위 越
北言論人에 대한 대접이라는 정치적 고려사항도 있어 아무렇게나 보
잘 것 없는 言論機關에도 配置할 수 없는 일이어서 일단 「民主
朝鮮社」가 그들에 대한 「收容所」로 指定된 셈이었다.

맺 는 말

北韓共產主義者들의 言論의 特徵은, 勿論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숭배가 철저하다는 점과 초기문건을 獨裁者 金日成神格化에 맞도록 모조리 改作 내지 姿作하고 있는 사실은 히틀러와 스탈린을 필선 능가하고 있다.

예컨대 1973年 4月 4日字 「勞動新聞」은 독재가 김일성을 138회나 登載했고 同月 25日字 同紙는 독재가 김일성을 150회나 登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날이 갈수록 더욱 激化되는 現象이다. 지난 봄 평양세계탁구대회에 取材次 北韓에 들어갔던 外信記者가 평양의 박물관 門前에서 안내양으로 부터 90分間의 안내말을 듣는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을 500번 이상이나 되풀이 했다고 1979年 5月 4日字 네일리 紙(英)

初期의 北韓言論은 김일성우상화를 지금토록은 狂的으로 行하지 않았다. 오늘날의 北韓共產主義는 「역사사건」을 비롯한 記錄 文件을 만들어서 北韓言論이 첫날부터 김일성우상화에 全力을 다한것 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그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역사위조의 表現方式이다.

初期의 北韓言論이 김일성우상화에 全力할 수 없었던 것은 첫째로 그때로서는 김일성우상화의 민중적 기반이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둘째로 아직은 党内有力者들이 엄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實証的으로 1945年 11月 新義州學生 義學가 일어났을때 이의 뒷수습

으로 金日成이 新義州에 와서 東中學校운동장에서 연설한 장면과 내용을 当地 唯一의 신문인 「平北新報」는 제 2面 左側구석에 立切 4 단으로 조그마하게 다루었고 이와는 对照的으로 제 1面에는 크다랗게 道臨時政治委員會 記事가 실려 있었다. 또 百戰老將을 自稱했던 武亭은 어떤 사람은(김일성을 지칭하는 것임)있지도 않는 역사까지 지어서 내세우려고 하면서 나(武亭)같은 사람은 지니고있는 역사마저 내세우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나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토로한 사실이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 「歷史의 証人」이란 기록문건 제 155 페이지에 잘 드러나 있다.

初期의 北韓言論이 김일성우상화에 인식했던 것은 아무리 소련軍 政當局이 기피했을때 마다 명분있게 김일성우상화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민중사회에는 「저것은 가짜 김일성장군이다」는 一定의 先入見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편집자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이상은 되도록 極大化하지않는 방향을 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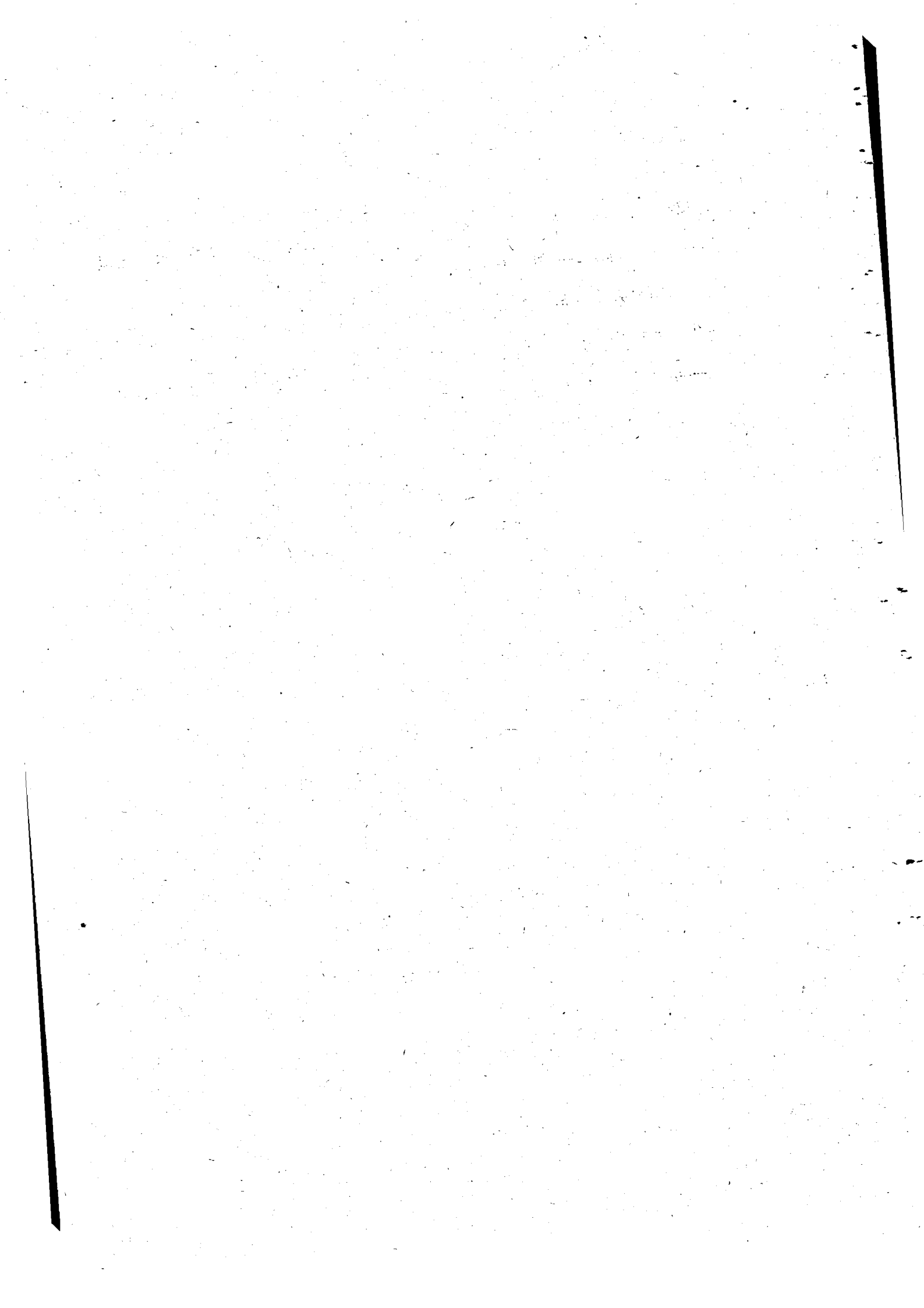
소련軍政도 아주 初期에는 金日成記事를 왜 極大化하지 않느냐는 등의 노골적 간섭은 되도록 하지 않았다. 주로 記事內容에 초점을 두고 검열하는 作風을 유지했다. 勿論 金日成을 政治의 표면에 登場시키면서부터 소련軍政當局의 김일성우상화정책은 점차로 표면화되었고 北韓言論이 이를 기피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게 되었다.

특히 1948년 12月 소련 点領軍이 철수하고 신문검열업무가 北傀 金日成 내각의 宣傳省에 이양되자 김일성우상화정책은 조직적으로 강화되어 나갔다.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를 우상화는 단계로 들어가게된 것이다.

北韓言論의 初期異相이 어느정도로 그려졌는지 說者諸位의 가차없는 叱正을 바라거니와 論理展開에 의한 接近方法을 一切 외하고 되도록

歷史의 証人된 위치에서 証言的 記錄的 價値를 남기고자 했음으로
이點만은 理解하시기 바란다.

北韓言論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論文들을 읽어 주시가 바라며 이 小論은 다만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란다.



VI. 北韓의 言論

—오늘과 來日—

朴 權 相

(略 歷)

-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学卒業
- 美Northwestern 大学大学院卒業
- 美Harvard 大学修了
- 東亞日報社 論說委員, 編輯局長, London特派員
-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長

— 目 次 —

1. 金日成을 위한, 金日成에 의한, 金日成의 言論
2. 金日成의 新聞理論
3. 北韓言論의 機能
4. 中共의 自由化
5. 實事求是—言論에 새물결
6. 北韓의 選擇과 北韓의 言論



1. 金日成을 위한, 金日成에 의한, 金日成의 言論

79年 4月 26日 A P通信이 平壤에서 전하는 에피소드 한토막.

그날 北京에서 平壤에 가는 北韓民 航空旅客機에서 일어난 일이다. 매마침 平壤에서 開催되는 世界 탁구 대회에 출전하는 各國 선수단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태리 선수 한사람이 무심코 金日成의 사진이 게재된 勞動新聞을 깔고 앉았다. 이것을 目擊한 北韓旅客機의 스텐어디스양은 새파랗게 질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이 모셔진 신문을 깔고 앉다니, 이 무슨 짓입니까』¹⁾

하고 이태리 선수를 힐란하였다. 이에 당황한 이태리 선수가 그럼 신문을 어디에다 두느냐고 反問하였는데, 이에 대해 스텐어디스는 『수령님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머리위에 옮기시오』

라고 말하여 비행기내에 때아닌 복소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金日成 神格化가 가져온 戲劇이다. 北韓에서 모든 住民은 하루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지 않거나 그의 錄音된 음성을 듣지 않고는 지낼수 없으며 모든 北韓人은 심지어 外國旅行 할때까지 가슴에 金日成 배지를 달아야 한다.

개인 숭배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세뇌로 말미암아 北韓住民 全体가 金日成의 榮光에 모든 것을 바치는 광대놀이의 社會로 변하였으며, 77年 9月 1日 北韓의 중앙방송은 「오늘의 평양사람들」이라는 이른바 「正論」프로에서,

『평양사람들은 수령님을 몸 가까이 모시고 있으므로 수령님을 더 잘 모시고 받들어야 한다는 성스러운 위치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평양에 살게된 것 그 자체가 『경애하는 수령님의 배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2)

北韓을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金日成의 神格化에 전해를 같이 한다.

『金日成 배지를 上衣 가슴에 달지 않는 사람을 못보았고 銅像이나 사진은 広場, 駅, 學校는 물론 가정마다 넘쳐흐르며 모든 이야기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로 시작되지 않는 것이 珍貴하다. 北韓은 금년 봄 金日成 생신 67 주년을 기념하여 人口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동과 학생 전원에 제복을 배급하였는데 「경애한 수령님이 베푸는 선물」이었다.

「경애하는 수령 께서는 1킬로그램 60 전으로 사들인 쌀을 우리들 소비자에 불과 8 전으로 나누어 주시고」이 아파트는 「경애하는 수령이 주신 것」이고 「경애하는 수령 께서는 거저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고 무료로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이다』 3)

모든 정부의 시책은 『어버이 수령님의 은혜』로 규정짓는다. 따져 보면 北韓人民이 노동해서 生産한 價值 가운데 分配안된 剩餘 價值가 일단 國庫에 들어간 다음 『偉大한 수령님의 선물』이라는 形式으로 國民에 환원된다는 것이다. 納稅者로서의 權利意識이 아니라 每事를 어버이 수령님의 施惠라는 것이다.

어느 言論人이 개탄한대로 北韓은 中世紀的인 『金日成 個人的 封建領主國』이라고 볼 수 있으며 金日成의 소생이 몇 명이나 되느냐 라는 질문에 한결 같이 『우리 모두가 그의 아들, 딸』이라고 東問西答하는 것을 볼때⁴⁾ 모든 國民은 絶對君主國의 「臣民」이 아니면 封建領主를 섬기는 「백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金에 있어서 『朕은 곧 國家』이겠고 그보다도 『金日成을 위한 金日成에 의한, 金日成의』 國家라고 오늘의 北韓이라 할 것이다.

勿論, 이런 封建領主國에서 言論은 한결같이 철저히 封建領主를 섬기는 黨과 政府 또는 단체의 一部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私的인 絶對君主体制 또는 封建領主体制의 北韓社會가 다른 點이 있다면, 後者는 철저히 組織化된 全体主義社會라는 것, 國家가 公的은 勿論 私的生活까지를 빈틈없이 조직하고 있다는 點이다.

여기서 言論은 당연히 이러한 政治制度의 주요 기둥의 하나가 되어 強制와 說得의 수단이며 이點 다른 共產主義와 同一하다.

다른 共產國家들과 相異한 點은 全体主義體制이면서도 絶對君主國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言論은 絶對君主인 金日成을 위한 金日成에 의한 金日成의 言論이라는 點이다.

2. 金日成의 新聞理論

金日成은 엄청난 分量의 이론바 「勞作」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으나, 그 스스로 學問的으로 수업한 사람도 아니고 이론적인 訓練을 받은 경험도 있다는 구체적인 경력 이 없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창조적인 이론이나 主張은 실은 대부분 맑스·레닌, 스탈린 등의 저작을 표절한 것에 불과하며 新聞理論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두가지 例를 든다.

金日成은 1963年 2月 8日 "自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일이 있다.

『부르조아지는 自由에 대하여 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自由란 지주, 자본가들의 근로자들을 착취할 수 있는 自由이며 노동자, 농민에게 있어서는 헐벗고 굶주릴 수 있는 自由입니다』⁵⁾

이상의 말은 스탈린이 美國의 新聞發行人 로이·하워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구절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는 引用符號없는 진정한 自由, 진정한 個人的 自由를 위해 그것(共産主義)을 건설하였다. 실업자에 있어 굶주리고 努力이 불모없는 個人的 自由가 아니고 무엇인가?』⁶⁾

1957年 니키타·후루시초프는 新聞의 개념에 언급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新聞은 우리들의 이데올로기의 주요 무기다. 이 新聞의 임무

는 노동계급의 적과 근로대중의 적을 紛碎하는 일이다. 무기없이 군인이 싸울수 없듯이 党은 신문과 같은 예리하고 戰鬪的 武器 없이는 성공적으로 싸울 수 없다』⁷⁾

金日成의 말을 引用한다.

『…… 革命軍隊가 武器를 가져야만 적과 싸울 수 있는것 처럼 革命組織은 出版物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 戰鬪的인 思想的 武器를 가져야만 대중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다』⁸⁾

심지어 형용사까지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勿論 모든것이 「主体的」이고 創造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 新聞理論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인 이론에 확고히 입각하면서도 그것을 나라의 具體的인 실정에 創造的으로 구현한 우리의 党的 新聞經驗의 총화로 직접적으르는 우리 신문들의 실천 활동에 이바지할 산 理論으로 되어야 된다. 여기로부터 우리 新聞理論分野에서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⁹⁾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主体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 그들이 제시한 답변을 듣는다.

『우리 党 思想事業에서 주체란 金日成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모든 思想事業을 바로 朝鮮革命의 이익에 복종시켜 진행하는 것을 뜻하며, 그러므로 우리의 신문 이론도 당적 신문들이 조선혁명에 보다 훌륭하게 이바지 하도록 圖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¹⁰⁾

이른바 主体思想에 관해서는 증언부언하는 선전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쉽게 말해서 革命과 建設의 進行에 다른 나라에 의존

치 않고 늘 主体性を 잃지 않고 自力으로 한다는 별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원용할 수 있는 민족자주 노선 같은 것이지만, 北韓에서의 主体云云은 動機와 目的이 특이하다.

北韓에서 主体思想이란 바로 金日成이 창시하였다는 억설이다. 北韓의 副首相 鄭準基는 『우리나라의 目標은 全社會의 主体思想이며, 主体思想은 金日成이 창조한 思想이므로 全社會의 主体思想化는 곧 主体社會를 金日成思想으로 統一한다』는 要旨의 말을 하였다.¹¹⁾

여기에 金日成 우상화의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며 金日成의 絶對君主化의 論理的인 뒷받침이 있다.

主体思想과 더불어 반드시 따라 붙은 說得課題의 하나는 이른바 唯一思想體系인데, 역시 金의 主体思想을 唯一無二한 信仰的인 根拠를 두는 것이다.

그러면 黨의 唯一思想 體系는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金日成을 여호와 神으로 모시는 狂奔的 宗教思想體系를 뜻한다. 金日成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 黨의 唯一思想 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黨 政策으로 全黨을 무장시키고 모든 黨員들을 수령과 黨中央의 주위에 굳게 묶어 세워 革命事業을 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¹²⁾

金日成 스스로 자기를 『수령』으로 부르고 수령 주위에 봉쳐야 한다고 강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黨의 公式見解는 더욱 狂的

이다.

『우리 黨에 있어서 唯一思想體系를 세운다는 것은 全 黨과 全 人民을 金日成 同志의 위대한 革命思想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며, 그의 唯一的 영도밑에 革命과 건설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 黨의 唯一思想體系란 全 黨과 4千萬 朝鮮人民의 경애하는 수령 金日成 同志의 革命思想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김일성 同志를 철저히 擁護하여 김일성 同志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하며, 김일성 同志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며 수령과 生死苦樂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 (中略) 黨의 唯一思想體系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金日成 同志의 교시와 개별적 간부들의 지시를 혼동하지 말며, 항상 김일성 同志의 교시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간부들에 대한 환상, 우상화, 아부아침을 철저히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김일성 同志에 대한 충실성을 尺度로 하여 原則性있게 대하여야 한다』¹³⁾

東西古속에 유예를 찾을수 없는, 그리고 近代的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神格化라 할까.

그러기 위해 『세살먹은 어린이가 萬景台 (金日成이 태어났다는 곳)의 모형을 앞에서 김일성의 이른바 혁명위업을 기술한 장문의 대본을 줄줄 암송』하는¹⁴⁾ 極度의 세뇌교육이다. 이렇듯 탁아소에 서 시작한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金日成 원수 革命活動研究室」 또는 「金日成同志 革命思想研究室」이 학교마다 설치되고 人民學校

의 경우 週 23-28 시간 수업에 반드시 1 시간은 金日成에 대한
학업이 되어있다.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스·미디어는 당연히 金日成의 唯一思想 주
입의 主要 도구임은 말할나위도 없다.

3. 北韓言論의 機能

共產主義 言論의 機能에 관해서는 레닌의 고전적인 정의가 있다. 즉 『신문은 집단적인 선전자이며 집단적인 선동자일뿐 아니라 집단적인 組織者』이며 바로 그것이다. 레닌의 후계자인 스탈린은 신문들의 기능에 관해 이렇게 말하였다.

『신문은 黨이 매일 매시간 불가결의 언어로 근로계급과 이야기하는 주요 수단이다. 黨과 階級을 맺는 정신적인 유대를 맺기 위해서는 이처럼 적절한 수단이없고 이처럼 융통성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은 本質的으로 明白하다』¹⁵⁾

이러한 共產主義의 교조들이 내린 新聞機能의 정의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本質的인 수정이 없다. 다만 이를 원용하는 방법이 때와 場所에 따라 다를 뿐이다. 오늘의 北韓에서는 이 모든 原則을 金日成의 偶像화, 金日成의 主体思想에 입각한 社會主義建設, 그리고 對南心理戰 및 反美宣傳에 동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北韓新聞에 실리는 뉴스라는 것은 地球上에서 일어난 無數한 事件, 事實 가운데, 다음 몇가지만이 記事化할 수 있는 것이다.

- ① 金日成의 主体思想의 교양과 보급
- ② 金日成 偶像화를 위한 선전과 찬양
- ③ 黨策의 실천 요구와 黨決定의 告知
- ④ 人民經濟建設의 促求와 努力競争運動의 고무

- ⑤ 对南言論이 宣傳政策으로서 南韓에 대한 비방과 부정적 側面
과장
 - ⑥ 反美, 反日宣傳과 反帝, 反植民主義 고취
 - ⑦ 第3世界, 프로레타리아트, 民族解放運動 紹介
 - ⑧ 非同盟을 비롯한 北韓의 外交活動 紹介
- 등이다. 16)

따라서 이상의 지극히 제한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어떤 중대
사건도 거의 記事하지 않는다. 그런 結果 北韓住民들은 北韓 스
스로를 『世界에서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樂園』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고 사상최초로 人間을 달에 上陸시킨 美國의 아폴로 달 탐
사계획에 참가했던 紐約州 헌팅턴 거주 프레드 드래너씨는 그가
만나본 대부분의 北韓 젊은이들이 人間이 달에 上陸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도리어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론하더라는 것이다. 17)

신문, 방송은 黨에서 指定된 指針에 따라 제한된 뉴스만을 보도
하며, 北韓의 個人住宅에 라디오 수상기는 보급되어 있지 않다.
역시 世界 탁구대회를 取材한 朝日新聞의 小票記者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北朝鮮에서 근로자나 농민의 가정을 세집 방문하였으나, 어느
집에도 라디오가 없었다. 記者가 携帶한 라디오에서는 서울방송
이 깨끗이 들렸으나, 내가 방문한 세 가정에는 다이알을 自由롭
게 돌려 放送局을 선택할 수 있는 라디오 대신 평양방송을 일

방적으로 흘러 보내는 有線放送의 스피카가 벽에 걸려 있었다.
平壤市內의 큰 백화점에서 알아 보았으나, 스피카는 팔지만 라디오
는 팔지 않는다는 대답이었다』¹⁸⁾

新聞의 사실 또는 放送이 내보내는 의견 역시 보도기능의 경우
와 같이 특정한 범주의 내용이 압도적이다. 한 專門家가 「로동
신문」과 中央放送을 선정 최근 5년간의 신문사설 및 방송의 견
프로의 傾向을 조사한 結果는 ① 金日成의 主体思想 ② 金日成
의 革命傳統 ③ 社會主義의 우월성 ④ 經濟建設등이 圧倒的으로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¹⁹⁾

結論적으로 北韓의 言論은 金日成의 主体, 唯一思想을 조작 선전
선동하여 金에 대한 盲目的인 추종과 노동당 정책의 一糸不乱한
조직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언제까지나 妄想의 閉鎖社會에서 살 것이며, 北韓言
論은 언제까지 絶對的君主 또는 封建領主人 金日成의 선전도구 노
릇을 계속할 것이며 北韓同胞들은 끝내 『世界에서 부러울게 없
다』고 우물안의 개구리 生活을 계속할 것인가

萬物은 유전하며, 아무리 強力한 獨裁體制도 永久不變일 수 없
다고 가정한다면 北韓역시 언젠가는 開放化의 時代的 潮流를 거역
할 수 없다고 짐작된다.

특히 지난 몇해 동안 北韓의 이웃 中共에서는 카리스마적인 지
도자 毛沢東의 死亡後 급진적인 변화가 各界各層에서 일어나고 있
으며 특히 언론의 경우, 때로는 共產主義 신문관이나 共產主義의

本質에 비추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自由化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더구나, 中共은 단순히 北韓에 인접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소련과 함께 北韓에 대한 強力한 後見國이고, 특히 지난 10年間 中共은 北韓에 대한 國際社會에서의 大變자였다. 아울러 생각할 것은 中·朝 두나라는 歷史적으로 다같이 儒敎圈에 속해 權威主義的 사고방식 등 유사성을 띄고 있으며, 中共이 이른바 「專」보다 「紅」에 치우쳐 소련을 修正主義라고 규정하여 中·蘇간에 이데올로기 論爭이 시작된 이래 北韓은 中共에 기울어졌으며 같은 開發途上國이라는 점에서 蘇聯과는 달리 中·朝 두나라가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北韓의 外的環境이 급속도로 변할때, 北韓内部에 점진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宿命적 관계에 있다.

먼저, 中共에서 일고 있는 變化, 즉 鄧소평, 華國鋒을 中心으로 하는 實用主義派가 급진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變化의 규모 및 이것이 言論에 미치는 效果를 검토키로 한다.

4. 中共의 自由化

1976年9月 毛沢東의 죽음은 中共政權 成立 後 30년간에 가장 歷史的 事件이었다.

그것은 당장에도 政治, 經濟, 國際등 여러 側面에서 엄청난 뜻이 있었으며 卮倒하는 카리스마의 지도자의 退場에 따르는 당연한 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긴 歷史의 眼目에서 볼때 그것은 毛가 發展시키고 毛가 성취시킨 프로레타리아 革命의 一大路線 修正을 뜻하는 것이며, 左派 獨裁 政治體制와 非能率的이고 孤立主義的 經濟體制에 終止符를 뜻하였으며 統制와 긴장으로 組織된 경직화된 社會體制의 大幅緩和를 뜻하였다.

현실적으로는 毛를 등에 업고 10年 勢道를 누린 이른바 四人幫의 축출과 毛의 비위를 거슬러 政治舞臺에서 쫓겨난 鄧小平一派의 突權장악으로 나타났다. 所謂 實用主義路線의 全國 부활이며, 毛一派가 主導한 文化革命派에 대치되는 온건 右派의 승리를 뜻하였다.

勿論 毛死亡 이전부터, 毛의 죽음은 中共의 右派선 회를 예언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右傾化의 幅과 기간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언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을 中共政權成立 後에 계속 存在해온 「紅」과 「專」사이의 振子運動 (OSCILLATION)에서 이데올로기 一辺倒의 紅에서 脫 이데올로기의 專으로 치우치는 정도로 짐작할 정도였다. 다시말해서 紅으로 左傾化할 수도 있다는 可能性 속에서의

相對的인 右傾向—— 이것이 毛治下에서도 설새없이 벌어진 振子運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毛死亡 3年間 벌어진 中共内部의 變革은 中共歷史 30年間의 變化보다 보다 広範하고 보다 本質的인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四大近代化路線(今世紀 末까지 농업, 工業, 國防, 科學技術을 西方先進國家 수준에 제고시킨다는 目標)이 78年 3月 5日 憲法條項으로까지 채택되면서, 經濟的으로 西方資本主義社會와의 公公然한 合作을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具體的으로 日本, 美國 그리고 西歐諸國의 資本 및 技術의 大幅導入(85년까지 5,000億弗의 外資導入 希望)에 의한 經濟成長을 그들의 指標로 삼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에 있어 下部構造(經濟)는 上部構造(政治, 法律, 宗教, 指導)를 결정한다는 것이 그들의 世界觀이다.

中共과 政治的인 ideo는 다르지만, 일찌기 戰後敗亡한 日本이 모델로 세워 美國으로 부터의 資本과 技術의 도입에 입각한 經濟建設에 成功하였고 中共의 周邊國家인 韓國, 台灣, 香港, 싱가포르 등이 모두 日本의 先例를 부지런히 뒤쫓아 지난 20年間 括目的 成果를 거두고 있다.

中共이 四大近代化路線을 내걸고 西方側에 급속도로 접근, 合作하는 戰略戰術은 中共 또한 日本式 모델을 답습하기로 決心한 것이 分明하며, 鄧小平의 유명한 잠언 "귀를 잘 잡느냐가 중요하지, 겁은 고양이냐 흰고양이냐는 중요치 않다"는 主張 毛로부터 "走資派"의 낙인을 찍힌 것도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듯, 走資派的 대담한 經濟에서의 노선수정은 外交路線에서 역시 상상할 수 없는 親西方으로 급선회 78年 8月엔 日本과 平和友好條約을 맺었고, 79年 1月 1日부터 美國과 外交를 正常化 實力者 鄧小平이 直接 美國을 방문, 經濟的 支援을 請하면서 美·日·中의 合作으로 蘇聯의 霸權主義에 共同으로 對抗하자는 反蘇十字軍의 形成을 제창하였다. 또한 79年 10月엔 中共 主席 華國鋒이 直接 仏, 英, 獨, 伊 등 4大 西歐國家를 訪問하면서 역시 反霸權主義 聯合을 主張하면서 西方側의 經濟 및 軍事의 支援을 導入하는 頂上外交를 벌였다.

中共의 四大近代化路線이 決定的으로 失敗하지 않는 限, 中共이 다시 「紅」 一辺倒로 反轉될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날이갈수록 西方 資本主義世界와 不可分의 유착관계가 깊어질 것이다.

둘이켜 생각할때 스탈린의 죽음은 蘇聯共產主義體制에서 「專」 獨走를 除去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르스초프의 平和共存路線과 緩和된 對內政策을 가르켜 中共은 修正主義 또는 消費者 共產主義라고 할만한 바 있다. 毛沢東의 死亡後, 中共의 言論은 20年間 지속된 그러한 공격을 中斷했다. 對內的 수정주의 또는 平和共存이 攻擊의 대상이 아니라 「社會帝國主義」 또 「膨脹主義」에 대한 攻擊으로 根本的 修正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中共은 반드시 스탈린 후의 蘇聯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훨씬 급진적인 것이다. 즉, 鄧·華 主導下의 四大近代化路線과

이에 입각한 코페르니스의 外的 政策 선회가 큰 실수 없이 진행된다면, 『北京은 흐루쇼프의 제한된 自由化 보다 훨씬 멀리 나갈수 있을 것이며 中國은 아세아의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사회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20) 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거의 每週 中共代表團이 유고슬라비아로 떠나 유고의 경험 다시말해 근로자들의 自營方式으로부터 完全開放의 觀光政策까지를 배우고 있으며, 『머지 않는 장래에 예를 들어 中國에 가는 美國 訪問客은 北京行 편·아메리칸 旅客機를 타고 外國人이 건설, 운영하는 호텔에 묵고, 다이ナス·클럽 증명서로 中國 골동품을 사고 맥도날드 연쇄식당(筆者 註: 美國의 유명한 연쇄 합바가식당)의 助言으로 생긴 식당에서 먹게될 것이다』 21)

'79年 봄 北京과 上海을 방문, 다섯번이나 패션·쇼를 가진 피에르·까르맹은 『앞으로 5年 이내에 中國人들은 人民服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의상을 다양하게 추구할 것이다』 22) 고 豫測하였다.

까르맹은 '78年 12月 처음으로 中共을 방문한 후 불과 3개월만에 패션쇼를 上陸시킨 것이다.

도시 中共社會에 침단을 걷는 불란서의 패션쇼가 열리게된 그 자체가 신기한일, 까르맹은 3개월만에 찾는 中共에 이미 큰 變化를 뚜렷히 느낄수 있었다는 것이며 이미 中共의 공장에서는 미국, 日本 취향의 복지, 스웨타 등이 생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毛治下의 北京은 巴黎의 패션과는 가장 상반되는 도시였다. 그 北京의 지도자들이 巴黎의 패션·디자이너를 부르고 패션·쇼를

열개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엄청난 思考의 변화 및 思考의 변화에 따르는 行動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變化의 속도와 變化의 幅은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豫測치 못했던 것이다.

5. 實事求是 - 言論에 새물결

이런 變化는 당연히 中共의 言論에 엄청난 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勿論 여기에는 嚴格한 제약이 있다. 言論制度 및 言論機關 自体가 國家機構의 一部이기 때문에 萬一 言論의 기능 그 自体에 어떤 本質的 變化가 있다면 政治制度 自体에 變化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中共은 아직도 嚴然히 프로레타리아트의 獨裁下에 있고 맑스·레닌 및 毛沢東 등의 思想은 아직도 변함없는 國家的 基本原則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實用主義路線下의 中共言論에 本質的 變化의 證조가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中共當局은 이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인 根拠를 제출치 못하고 있다. 우선 몇가지 실례부터 보자.

79年 7月 21日 天津日報는 市人民委員會 企劃部가 얼마나 生産性을 높이고 浪費를 줄이고, 生産品の 質을 높였는가를 大書特筆하여 第一面에다 실었다. 같은 신문은 8月 5日字에 天津市 교외의 실험농장에서 이룩한 과일의 엄청난 生産增大를 역시 第一面에 大書特筆하였다.

바로 8月 하순 어느날 같은 天津日報는 역시 第一面에 長文의 편지 두 통을 掲載하였는데, 그것은 7月 21日字와 8月 5日字의 大書特筆한 記事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는 讀者의 편지였다. 이 대답한 조치와 더불어 天津日報의 主任論評員은 讀者의

편지가 옳다고 시인하고 과거 보다는 나아졌으나 사실과 다른 기사가 아직도 신문에 만연되어 있다고 告白하였다.

이러한 대담한 오보나 과오의 시인 사과는 資本主義社會의 自由롭고 그리고 책임있는 言論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고 쉬운일도 아니다. 하물며 共產主義의 政治目的에 한낱 수단에 불과한 철저히 통제하의 共產新聞에서는 前例없는 일이다.

天津日報의 경우는 구체적인 事例의 하나이지만, 이미 北京의 人民日報가 79年7月24日字에 대담한 自我批判文을 실어 本質的 變化의 싹을 보였다. 즉 人民日報는,

『부르지와지 신문과 社會主義新聞의 주요 차이점은 後者が 잘못을 인정하는데 있다』

고 前提하고 北京日報 스스로 과거에 讀者를 誤導하는 일련의 허위보도를 대담하게 비판하였다. 人民日報는 이날 長文의 1面 論評記事에서

『모든 기자의 엄숙한 의무는 진실을 말하고 쓰고 허위와 싸우는 것이며 보도는 진실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많은 기사에서 실제 발생한 것보다 더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허위내용을 보도하는 과오를 범하므로, 이를 공개적으로 가차없이 自我批判한다』고 선언하였다. 23)

이 모든것은 中共指導者들이 79年初에 내건 『實事求是』 즉 사실로부터 진리를 찾는다는 과제와 선전적 요소를 除去하려는 全國的 캠페인에 立脚한 것이다.

그들은 中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로 中共人民들이 문제들을 客觀的으로 直視하게 하자는 것이다.

지난 30年間 共產黨 指導者들, 官吏들, 工場管理者들은 欠陥이나 과오는 음폐하고 發展이나 개선만을 강조되고, 言論은 이런 외교 과장선전만을 보도 찬양하였던 것이다.

이제 적어도 표면상 그들은 客觀的 보도야말로 진정한 進歩에의 열쇠이며 近代化計劃의 기둥이라고 지적하고, 中共의 신문이 과거에 한낱 선전도구였고 선전내용을 전혀 검토없이 독자들에게 伝하였다고 반성하고 나선 것이다.

前記 天津日報의 自我批判論文은 『게으르고 非道德的인 記者들이 소문이나 남의 意見을 앵무새처럼 퍼트리고 어떤 記者들은 남이 주는 情報를 전혀 確認도 안하고 보도한다』고 밝히고 이어 讀者들에 呼訴하는 形式으로

『독자들은 좋은 結果를 保障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우리는 讀者들이 우리 作業을 감독하고 허위 보도를 무자비하게 撲滅하는 것을 환영한다』

고 結論지었다. 24)

中共言論의 특수 형태인 壁報「大字報」가 지난 3年間 自由와 民主主義에의 대담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北京 天安內 廣場 한 모퉁이 「民主主義의 壁」에 『民主主義 萬歲!』가 나붙고 美國獨立宣言의 한 대목이 引用되는 등 역시 毛治下에서 상상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

야할 것은 大字報는 公式的으로는 黨에서 統制 안되고 누구나 그들의 생각을 써붙일 수 있는, 人民의 소리하는 것과, 적어도 共產主義와 保存할 수 없는 부르조아지 思想의 口號가 나붙어도 中共當局이 과묵하게 統制 안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勿論 中共樹立 30年 歷史에 右傾向 乃至 自由化 경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56年의 百花齊放, 百家爭鳴運動시에 毛沢東과 對立한 劉小奇, 鄧小平등 右派는 신문이 是是非非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특히 『신문지상에는 몇가지 相異한 의견이 소개되어야 하고 신문이야말로 百家爭鳴의 장소이다』는 것이 劉小奇의 신문 이론이었다.²⁵⁾ 그러나 그것은 毛沢東 中心의 左派의 反擊에 부딪쳐 短命하였고, 또한 中共自体는 西方社會와 담을 쌓 「竹의 장막」에 가려져 있었다. 이點 毛死亡後 急速度로 모든 分野에서 進行되고 있는 自由化運動 그리고 이와 併行되고 있는 西方世界에의 대담한 接觸許容 및 西方列強에 資本, 技術 및 市場을 의존, 合作하는 경제건설 추진등은 前例없는 것이고, 따라서 後退를 不可能케 하거나 대단히 어렵게 하는 것이다.

中共이 어느 정도까지 自由化될 것이며, 中共의 言論이 과연 眞實報道에 충실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蘇聯의 경우, 스탈린 格下運動 乃至 제한된 自由化運動은 헝가리와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에 波及되었으며 쓸제니친과 사히실브 등의 反体制運動을 불러 일으켰다.

中共은 嚴然히 『프로레타리아트 獨裁下의 계속 革命을 견지하고

階級鬭爭, 生産鬭爭, 生産鬭爭 및 科學實驗의 三大革命運動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78年 새 憲法의 前文이 明示하고 있으며 이어 『本世紀內로 우리나라를 농업, 공업, 國防 및 科學技術의 現代化한 위대한 社會主義強國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國家目標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때 中共의 自由化에는 넘어설 수 없는 限界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의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分明하며 外部世界와의 接觸이 잦아지고 상호 의존관계가 強化됨에 따라서 言論의 기능 또한 自由化, 多樣化될 것으로 짐작된다.

6. 北韓의 選擇과 北韓言論

蘇聯에서 스탈린의 죽음은 一人 獨裁에 終止符를 찍었고 흐루시 초프 治下에 사람의 탈을 쓴 共產主義로 변질하였다. 自由化의 물결은 東·西冷戰体制의 崩壞와 데이망트의 진전으로 徐徐히 蘇聯 社會에 스며들고 있다. 그러나 蘇聯言論에 관한 기능과 目的에 있어 레닌 主義에 입각한 黨의 完全 統制하여 있다. 言論은 黨과 國家目的에 奉仕하는 政治制度의 일부이며 무엇을 報道印刷 放送할 것인지 심지어 무엇이 뉴스냐 아니냐의 決定權까지 黨이 결정한다. 『社會主義發展의 과정』만이 뉴스라는 고정개념은 그대로 고수되고, 무엇이 社會主義發展의 과정이나 與否는 黨이 결정한다. 다시말해 共產黨과 政府의 判斷에 비추어 이로운 것은 뉴스이고 해로운 것은 뉴스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을 中共의 人民日報가 지적하고 시정을 主張한 것이지만, 中共의 言論이 어느 정도까지 自由化될 것인지는 分明치 않다. 分明한 것은 蘇聯, 中共할것 없이 一人專制体制의 崩壞가 프로레타리아트 獨裁体制의 崩壞를 가져오지는 안했지만, 그리고 西方에서 말하는 言論의 自由의 개념에 近接해 지지는 안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筆者의 判斷으로는 共產主義体制의 目的이나 原則 등이 변한 것이 없지만, 그들의 目的이나 原則을 달성하기 위해 權力이 作用하는 狀況에 있어 또한 目的達成의 수단에 있어 本質的인 變化가

일고 있다는 것이다.

言論은 「狀況과 手段」의 범주에 속한다. 특히 中共社會의 狀況的 變化는 지난 3年間이 그에 앞선 30년에 해당하며, 앞으로의 變化가 어느 정도 빨리 얼마나 깊고 넓을 것인지 귀추가 注目된다.

앞으로 北韓은 어찌할 것인가? 언제까지 한 個人이 모든 것을 결정짓고 全世界에서 고립되어 門을 닫고 살수 있는 것인가.

아마도 알바니아를 除外한 모든 共產國家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門戶를 열고 西方側과 平和共存, 相互交流로서 落後된 經濟의 발전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 70年代의 추세이며, 60年代까지 가장 완고했던 中共까지 솔직하게 스스로의 弱點을 시인하고 대담하게 西方側에 매달리고 있음을 위에서 論하였다.

北韓으로서는 80年代에 들어서면서 이런 時代的 潮流에 순응하느냐 아니면 끝내 武力統一의 迷夢에 집착하느냐의 갈림길에 봉착할 것인데, 筆者의 判斷으로는 韓國이 政治, 經濟, 軍事, 社會 諸側面에서 안정과 발전을 誇示하여 圧倒的 우월성을 유지하는 한 北韓 역시 中共의 先例를 따를수 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韓國이 民主的發展으로 國民의 合意에 입각한 制度化를 이룩하고 아울러 社會 正義가 구현되는 體制를 구축하는데 成功할때 北韓으로서 긴장을 緩和하고 平和的인 協調關係를 거부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가) 北韓을 지배하고 있는 게리라 出身의 旧世代가 앞으로 10年이면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되며 새로운 世代가 實權을 장악한다.

金日成은 68才, 그리고 그의 주위에서 요직을 차지하는 이른바 유격대 출신의 나이도 그와 비슷하다. 金은 그의 아들 金正一을 후계자로 내세워 한때 金正一의 우상화 운동까지 벌였으나, 반드시 成功的이었다고 볼 수는 없어, 金이 死亡하는 경우, 權力繼承問題가 어떻게 落着되든, 34年間の 強圧政治가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며 결국은 직업적인 테크노크라트 世代의 실용주의가 대두할 것이다.

나) 北韓을 둘러싼 모든 나라가, 심지어 北韓의 唯一한 이념적인 同志上典인 中共까지 西方側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經濟的 後進性을 극복하는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北韓역시 이미 비슷한 논선을 挾하였다가 20億弗의 부채를 안고 國際的인 수치꺼리가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는 길은 그러한 노선의 後退가 아니라 前進일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中共의 先例를 본따 北韓社會를 차츰 開放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 北韓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날이갈수록 平和志向的이며, 70年代를 一貫해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傾向은 美·日·中·蘇 등 周辺四強이 韓半島에서의 紛爭을 원치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 南韓에서의 共產革命의 기회는 회박해지고 있다. 이 課題의 先行條件으로 美軍의 철수를 끈질기게 主張하고 있으나, 실혹 美地上軍이 80年代에 가서 철수하는 일이 있다. 치드라도 美國의 韓國 國防衛公約이 파기될 가능성은 회박하고, 國軍의 현대화로서 南北 軍事균형이 일거에 깨질 가능성은 없다.

北韓이 바라는 唯一한 希望은 南韓에서의 政治的 混亂과 여기서

自生하는 共產革命이겠는데, 反政府勢力을 포함한 모든 國民은 反共이라는 共通分母에서는 완전히 合意하고 있다.

결국, 새로 등장하는 北韓의 지배자를 東北 아세아의 새 현실에 적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筆者의 判斷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中共의 政治列車의 엔진은 경제발전』이 되었고 中共이 『이제 올로기 보다는 현실을 중시하고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外國의 先進技術을 도입해야 한다는 명제를 관동하고 나서므로 東北亞에서는 아이디어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北韓을 除外한 이 지역 모든 國家들이 日本 경제모델을 추종하려 하고 있다』²⁶⁾고 볼 수 있고 오직 北韓만이 金日成의 「主体」광상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主体妄想에 그들이 깨어나려면 아마도 金日成의 死亡이 先行되어야 할른지도 모른다.

그러나, 時代의 흐름은 어쩔수 없는 것, 北韓社會에서도 이미 이미 하지만 自由化의 증조가 일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自由는 선택이다. 아직도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릴 선택(自由)은 없지만 의복생활의 변화에 A P通信의 피타·아네트 記者는 다음과 같이 伝한다.

『平壤에서 놀랄 側面이 있다. 베트남이나, 中國에서와는 달리, 北韓의 女性들은 면과 실크로 다채롭게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남자들은 상대방에 과도한 관심을 두고 있어 보인다. 그들은 늘 세이빙·로션을 바르고 그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는다.

毛沢東服을 입은 金日成을 除外한 모든 官吏들은 洋服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다』²⁷⁾

79年2月과 3月 板門店에서는 4회에 걸친 南北對面이 있었다. 이 對面에 參加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71年~73年の 對面當時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들의 복장이 제마다 다르고 넥크·타이가 다양성을 띄고 있다는 변화라고 필자에 말한 일이 있다.

역시 世界 탁구선수권 大會를 取材한 AP의 에디트·레다라 記者는 北韓生活의 변모를 평양주재 외교관의 입을 빌어 이렇게 보도하였다.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北韓에도 일종의 생활의 民主化가 일어나고 있다고 귀띔하면서 최근 평양에서 상영된 루마니아 영화를 그 예로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거의 누드에 가까운 장면이 아무런 削除도 없이 그대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 밖에 蘇聯에서 제작된 세익스피어 원작의 「해프릿트」와 「리아王」이 상영되어 많은 관람객을 끌어 들였으며 美國 대중음악가 칼렌·밀러의 「月光 세레나데」가 나오는 蘇聯 스파이 영화가 人氣를 모았었다』²⁸⁾

이런 變化는 70年 後年기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되며, 이런 정도로 北韓社會에 自由化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너무 천진난만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韓國을 의식하여 經濟建設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증조는 있다.

主体 또는 自力更生의 발상자인 金日成 스스로 79年 新年辭에서 79年을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새로운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특히 「무역진흥」의 必要를 강조하면서 『人民經濟의 전 부문에서 수출품을 우선적으로 생산한다』고 지시하였다.

北韓 신문과 방송은 金日成의 主体思想과 革命傳統 그리고 경제 건설에 熱을 올리고 있는데, 78년에 이르러 경제건설에 관한 위급 빈도가 다른 어느 항목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다. 29)

바로 여기에 金日成과 北韓의 모순이 있다. 主体의 광상에 사로 잡혀 있는한 一人統治는 쉽겠으나, 國際協力에 입각한 經濟發展은 가하기 어렵고 中共마저 뒤쫓고 있는 日本式 發展 모델을 따르자면 中共처럼 自力更生의 낡은 모델을 과감히 포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본, 기술을 外部世界에서 들여 올때 門戶는 개방되어야 하고 外部世界에서의 情報가 따라 들어오기 마련이다. 西方社會의 소비수준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 「樂園」이라고 믿고 있는 大衆에 欲求不滿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北韓社會의 解氷은 早晚間에 불어닥칠 不可避性을 지니고 있다. 그때 가야 北韓言論 역시 狀況的 變化에 따라 점진적으로 中共모델의 變化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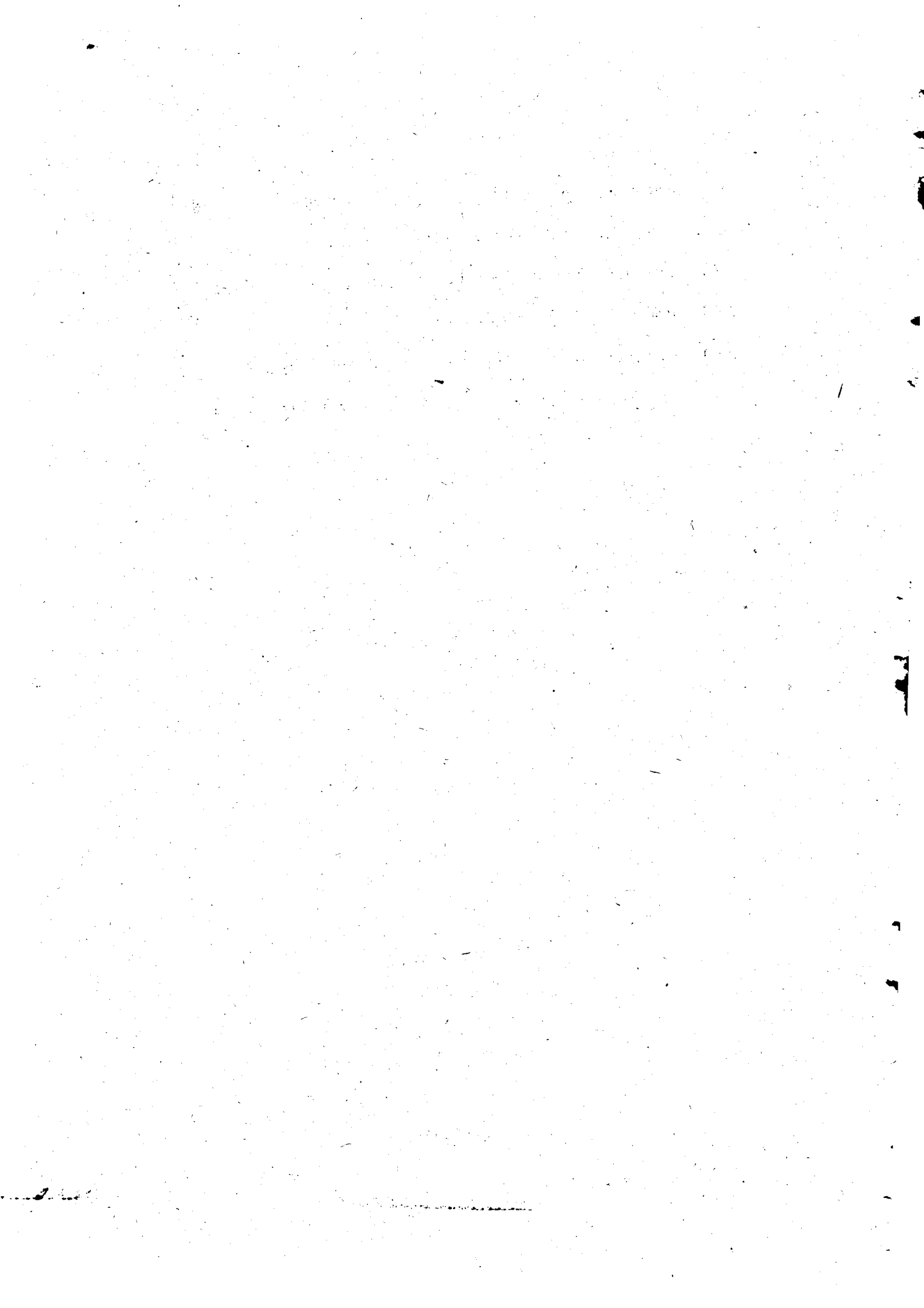
적어도 金日成이 死亡할때, 모든 것에 우선하는 金日成 神格化를 위한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紙面構成이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며, 中共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省과 變化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34年間 쌓아올린 神聖不可侵한 存在로 金日成의 專制君主로 대체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註

- 1) 1979年4月27日 東亞日報
- 2) 1979年5月9日 서울신문
- 3) 朝日新聞 小栗敬太郎記者의 北韓訪問記, 1979年5月19日付
에서
- 4) 1979年10月7日字 Newsweek, Bernard Krisher 의 평양
방문기에서
- 5) 金日成선집 제3권 P.481.
- 6) Fred S. Siebert, Theodore Peterson, Wilbur Schramm,
Four Theories of the Press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6), P.126.
- 7) 「Nikita S Khrushchev Lays Down the Line on the Arts」
The New York Times Magazine, 1957年9月29日, P.68.
- 8)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東京「재일조선 언론출판인협회」,
1969), P.13.
- 9) Ibid., P.6.
- 10) Ibid., P.6.
- 11) 朝日新聞 編輯委員 岩垂弘의 北韓訪問記, 朝日新聞 1978年
12月8日
- 12) 「사회과학원편, 정치용어사전, 1970, p.156.

- 13) 上同
PP.157-158.
- 14) 朝日新聞 小栗敬太郎記者 北韓訪問記, 同新聞, 1979年5月20日
- 15) Alex Inkeles, 「Public Opinion in Soviet Russi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0) P.136.
- 16) 李相斗,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言論 (서울:汎友社, 1979),
P.199.
- 17) AP 에디트·레더지 記者 平壤取材記, 東亞日報, 1979年
5月23日
- 18) 朝日新聞 小栗敬太郎, 前掲 5月17日字
- 19) 서울신문 1978年11月27日, 統一論壇 세미나 「北韓의 매스
컴을 통한 住民思想教育」
- 20) Fox Butterfield, The New York Times, 1978년 12월 10일
字 부록잡지, 「The New York Times Mngazine,」 P.43.
- 21) 上掲, P.43.
- 22) 東亞日報, 1979年4月6日字
- 23) AFP 北京發, 1979年7月25日字 東亞日報 掲載
- 24) 소상한 내용은 1979年8月31日字 The New York Times
참조
- 25) 劉小奇와 毛沢東의 相反되는 신문이론에 대해서는 李相斗著,
「마르크스·레닌主義와 言論」 (汎友社, 1979) PP.71-79 에
잘 소개되어 있다.

- 26) Jack L. Gostnell, 「韓半島와 東北亞의 새현실」
東亞日報, 1979年9月20日
- 2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79年5月8日
- 28) 東亞日報 1979年5月23日
- 29) 서울신문 78年11月27日 서울신문에 掲載된 文通 氏의
「北韓의 매스컴을 통한 住民思想教育」論文 参照



Summary

North Korea, South Korea: in physical proximity, the closest of neighbors; in ideology, light years apart. Yet surely their shared language, their shared history and traditions and culture destine them for reunification sometime in the future. The hope of reunification is something else that is shared by the peoples of both sides - and by Koreans wherever they may be living in the world. But still there remains the hard reality, the cruel fact of a 155-mile demarcation line, holding at bay over one million armed and trained forces - the most militarized zone in the world. The situation for the past 26 years, the years that have followed the signing of the armed truce, has been described, and quite correctly, as a state of non-war, nonpeace. Nobody knows clearly how long this tension-ridden, momentarily explosive situation will last. All that is known is that in spite of there existing a state of non-war, there is a restless, ceaseless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ystems of government. Both sides want to survive. Both sides want economic development, In pursuing their separate paths, a great deal of psychological warfare is shuttled back and forth across the demarcation line.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making full use of the mass media in trumpeting its cause, apparently having concluded that the mass media provides the most effective weapons for reinforcing its militant views. Newspapers, radio and TV are all marshalled in support of Kim Il Sung's "chuche" concept. His strategy of carrying the revolution to South Korea is aggressively promoted. And underscoring all the propaganda is the unremitting theme: the deification of Kim Il Sung. How very strange it is that we in South Korea have neglected for long undertaking a full-scale study of this bombardment by words, this sight and sound weapon that North Korea uses so effectively, so relentlessly, against, in effect, her own people.

The six scholars, journalists, and specialists have engaged in an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press, a joint effort to which they have tried to bring both depth and scope.

Prof. Choi Jeong-ho dealt with North Korean press policy, which he characterizes as a centrally controlled mono-type press system. He pointed out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press under the authoritarian rule of Kim Il Sung, a rule that deviates considerably from orthodox communism.

Mr. Lee Sang-doo of Chung-ang Ilbo, in the essay entitled "Editorial Format of North Korea's Newspapers", analyzed in detail the content of "No Dong Shilmun", the official mouthpiece of North Korea's labor party, comparing it with its counterpart in the free world. He also discussed the policy behind the idolizing of Kim Il Sung, noting that in the newspaper's editorial dated September 15, 1972, Kim Il Sung's name was mentioned 24 times, each time with the laudatory preamble "the most respected leader of all the Korean people".

Along with Mr. Lee's analysis, Prof. Han Pyong-ku of Kyung Hee University, studied the nature or specific character of "No Dong Shilmun"'s reporting tendencies during the past 9 years. He also found deification of Kim Il Sung to be a highly apparent feature, with credits to his leadership in all areas of development, but especially in economic development and in revolutionary diplomatic activities.

Mr. Chong Hyung-soo Dong-A Ilbo has given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North Korea's broadcasting system. He has provided readers with a clear mental picture of the current state of both radio and TV broadcasting in North Korea.

Mr. Kim Chang-sun, Director of North Korean Studies, has written on the state of the North Korean press, focusing on what happened to the press in the early stages of Kim Il Sung's ascendancy to power. He pointed out that there was less idolatry of Kim Il Sung in the North Korean press in the late 1940's when it was under the supervision of Soviet military occupation authorities. Interestingly enough, Mr. Kim notes that today North Korea is fabricating its own written history, tracing back only 30 years, thereby giving the impression that Kim Il Sung was a deity "from the beginning".

Finally, under the title "The North Korean Press - Today and Tomorrow", Mr. Park Kwon Sang of the Dong-A Ilbo has tried to surmise what may be the future course of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press after the demise of Kim Il Sung, finding parallels in the Chinese experience after the death of Mao Tse Tung, which took place just three short years ago. Mr. Park refers particularly to the totally unexpected magnitude of the change in the Chinese press.

In the last analysis, this collection of six essays on the North Korean press, its theory and practice, is certainly not complete. Nor is any claim made for total accuracy, as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obtain objective data. Materials in general were not of easy access. But the authors hope that this embryonic attempt will encourage more complete studies in this vital area of interest in the future.

